

| 부평문화상상테이블 |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비한 예술인사전
부평의 얼굴들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비한 예술인사전
부평의 얼굴들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 부평문화상상테이블 |



조은성 / 고진이 / 유광식 / 조경아 / 황선화 / 성채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부평구문화재단 2019 부평문화상상테이블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파견예술인들과 함께했습니다.

04 2019 부평문화상상테이블을 펼치며

PART 01

좋다

- | | |
|--------|--------|
| 08 조은성 | 20 조경아 |
| 12 고진이 | 24 황선화 |
| 16 유광식 | |

PART 02

그리다

- | | |
|--------|--------|
| 30 심기명 | 46 공지선 |
| 34 이진우 | 50 조규창 |
| 38 맹가영 | 54 이정은 |
| 42 정나래 | |

PART 03

짓다

- | | |
|--------|--------------|
| 60 김민경 | 72 이경림 |
| 64 김흥기 | 76 양진채 |
| 68 김미혜 | 80 춤추는달팽이도서관 |

PART 04

놀다

- | | |
|------------|--------------|
| 86 극단 907 | 102 공연창작소 지금 |
| 90 필근아 소극장 | 116 구보댄스컴퍼니 |
| 94 예술숲 | 110 석보배 |
| 98 연희단 비류 | 114 서지아 |

PART 05

울리다

- | | |
|----------|---------|
| 120 백선희 | 136 안종도 |
| 124 고진현 | 140 설현철 |
| 128 정유천 | 144 허진혁 |
| 132 찬란밴드 | |

PART 06

담다

- | | |
|---------|---------|
| 150 정예지 | 162 안수민 |
| 154 손민환 | 166 밀레 |
| 158 김순지 | |

PART 07

만들다

- | | |
|----------|---------|
| 172 나무온실 | 184 온리 |
| 176 김창기 | 188 홍주희 |
| 180 예성호 | |

- 192 <알.쓸.신.예> 작업을 마치며
- 194 여운을 남기며

2019 부평문화상상테이블을 펼치며

부평문화상상테이블은 '무엇이든' 올려놓을 수 있는 널찍한 테이블입니다. 정해진 내용도, 형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이나' 올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평 안에서 지역문화와 지역민의 교류, 지역 안에서 향유할 수 있는 숨은 문화 등을 소개하고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문화기획자들과 지역의 명소들을 거니는 등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상상테이블을 꾸려왔습니다.

올해 부평문화상상테이블에 올리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예술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부평이라는 공간을 예술로 채우고 있는 예술인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비한 예술인사전> - 부평의 얼굴들 -이라는 제목으로 엮어보았습니다. 최대한 많은 예술인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이름을 정리하는 것도 유의미한 작업이었으나 예술가 자신의 이야기, 그동안 걸어온 길, 앞으로 하고 싶은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작업도 필요했습니다. 예술이 그들의 목소리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면의 이야기들, 아직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싶어 특별한 시선을 빌렸습니다. 예술인의 눈으로 바라본 예술인은 어떤 모습일지,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비슷한 분야 혹은 양 끝에 닿아있는 영역의 예술인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나눌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각 분야 다섯 명 파견 예술인들이 기꺼이 그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찾아낸 모두가 아니라, 누군가를 '선정'하여 답아야 한다는 것은 무거운 일이었지만 그 무거움을 담은 신중함으로 머리를 맞대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타는 태양의 계절부터 단풍마저 마르는 초겨울까지 다섯 명의 예술인들이 부평을 걷고 걸어 예술인들을 만났고, 그 시간을 글자로 옮겼습니다.

부평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부평에 거주하지는 않아도 부평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부평에서 활동하지는 않아도 우리와 고향을 공유할 수 있는 부평출신 예술인들을 만나 일곱 개의 동사로 담았습니다.

'좋다'는 예술인들을 만나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눈 다섯 명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파견 예술인들의 인터뷰입니다. '그리다'에는 미술 분야 예술인들, '짓다'는 글과 관련된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놀다'는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예술가들의 이야기이며 '올리다'는 음악으로 자신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담다'는 문화기획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만들다'는 예술을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로 형상화시키는 예술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기꺼이 자신을 나눠주신 43명의 예술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힘을 담아 전해주신 이야기들이 더 많은 곳에 닿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담지 못한, 그리고 아직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한 부평의 예술인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이번 작업이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기적인 발전과 확장을 해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곡차곡 쌓아나가 언젠가 부평의 모든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기를, 아니 부평의 예술인들이 끊임없이 배출되어 새로운 이야기들이 이어져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 책의 독자는 우리 모두입니다. 이 예술인들과 협업을 이어갈 수 있는 문화예술기관의 담당자에게도, 부평의 문화예술을 찾는 누군가에게도, 그리고 부평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알아두면 쓸데많은' 즐거운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평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반갑고, 재밌고, 그들의 좋은 소식에 뿌듯한 마음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는 예술가로 남는 것을 이 신비한 예술인들은 진심으로 기쁘게 여기리라 생각합니다.

2019. 12.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성채은

종다



영화감독 조은성



화가 고진이



사진작가 유광식



소설가 조경아



배우 황선화



음악과 로맨스를 사랑하는 영화감독 조 은 성

부평에 살고 있거나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찾아 인터뷰하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인터뷰 대상으로 만난 조은성 감독. 워낙에 바쁜 일정으로 움직이는 터라 오늘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인터뷰 장소인 부평으로 왔다고 하는 그와, 부평의 한 카페에서 특별한 인터뷰를 시작했다.

올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조은성 감독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천 부평에서 살고 있는 영화감독 조은성입니다. 각본, 감독을 한 〈선샤인 러브〉(2015)가 대표적인 장편 영화입니다. 그 외에 여러 단편 영화와 광고 등을 찍어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 어제 밤늦게까지 현실적이면서도 판타지 요소가 모두 담긴 로맨스 영화 〈선샤인 러브〉를 보느라 늦잠을 잤는데요. 문득 왜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셨는지 궁금해졌어요. 고등학교 때 영화를 많이 보면서 막연하게 그냥 영화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영화 볼 곳이 별로 없어서 프랑스 문화원과 독일 문화원에 가서 영화를 많이 봤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영화는 배창호 감독님의 〈바보 선언〉(1984)이라는 영화입니다. 시나리오 없이 찍은 실험적인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도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또한 〈기쁜 우리 젊은 날〉(1987)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멜로장르 영화에도 꽃히게 돼서 첫 번째 장편 영화도 이런 장르의 영화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결정적으로 영화에 빠진 계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빼먹고 ‘미림극장’에서 〈오세암〉(1990)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문득 스크린이 제가 몰려드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연극영화과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연극영화과로 대학을 진학하셨나요? 네, 90년대 초에는 연극영화과가 9개 밖에 없었습니다.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해서 3수만에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때 처음 단편 영화 시나리오를 쓰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영화를 찍

으려면 스스로 각본을 써야하는 것이 당연했고 졸업을 앞두고 무조건 단편 영화를 찍어야 했거든요. 그 후 7-8편의 단편을 더 찍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자연스럽게 단편 영화를 찍으며 감독의 길에 들어서게 되셨군요. 대표적인 작품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30대에 찍었던 단편영화들은 사실 대표작이라고 할 수 없겠고, 2015년에 개봉한 장편 영화 〈선샤인 러브〉가 아무래도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샤인 러브〉의 원래 제목은 〈고양이가 잔다〉였어요. 고심해서 다른 시나리오를 쓰고 있을 때, 갑자기 자전적인 내용의 시나리오를 써보면 더 즐겁지 않을까 생각해서 쓰게 된 시나리오였죠. 결국 〈은하철도 999〉같은 판타지적 상상력과 내 이야기를 섞어서 쉬는 느낌으로 쓴 시나리오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게 되었고, 2년 뒤 부산 영상위원회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제작사에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거기서 주연 배우로 오정세 배우와 조은지 배우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이광수 씨가 초기에 주연으로 거론되기도 했었죠.) 부산에서 큰 여관방 두 개를 빌려서 12일 만에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 12일이 지금까지 두고두고 즐겁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시 자금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고맙게도 배우분들과 제작진들이 스스로 노캐런티로 작업에 임해 주셔서 영화가 완성될 수 있었죠. 이후 투자자와 트러블이 생겨서 개봉이 1년 반 정도 미루어졌고, 우여곡절 끝에 다른 배급사에서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재밌었지만, 그때만큼 마음
 졸였던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오늘 제천에서 급히 올라오셨는데 근황
 소식도 알려주세요. 재즈 다큐멘터리,
 <디바 야누스>가 ‘2019 제천국제음악영
 화제’ 제작지원 프로젝트 공개 피칭 행사
 ‘피치 펀치’의 공개 심사를 거쳐 최종 지
 원 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성 재즈
 보컬 박성연님이 40년 동안 운영하신 클
 럽 야누스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좋
 은 소식이에요. 축하드려요. 제가 알기로
 감독님은 부평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알
 고 있는데 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지역은
 어디신가요? 활동은 아무래도 인력과 물

자가 집중된 서울에서 주로 합니다. 사는
 지역인 부평에서는 집 주변에 있는 부평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시나리오를 쓰죠.
 지역에서 현재 하고 계시는 활동도 있다
 고 들었는데요? 어릴 때 자란, 중구 신흥
 동 항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과 도
 시 재생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습
 니다. ‘인천영상위원회’에서 제작 지원을
 받아 현재 30-40프로 진행되었습니다. 인
 천지역의 중요한 다큐멘터리가 될 것 같
 네요. 사는 지역이 부평이신데, 앞으로 부
 평에서 하고 싶으신 활동이 있으실까요?
 얼마 전 ‘에스컴시티 프로젝트’를 보고,
 부평에서 미군 부대 음악 밴드와 관련된
 기록, 음악 다큐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
 면서 기록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또한

지역을 보는 다른 관점도 생겼습니다. 영
 화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좋은 점과 힘든
 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고, 어떻게 극복이 되셨는지 궁금
 합니다. 지금까지 예술 활동에서 가장 힘
 들었던 때는 장편 영화 개봉이 미뤄지던
 기간, 그러니까 영화개봉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장편 영화 <선샤인 러
 브> 개봉이 된 후에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만큼 큰 전환점이 되었죠. 개인적
 으로는 영화감독이라면 장편영화를 찍어
 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봉 이후
 감독의 정체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
 다. 위기를 통해 더욱 단단하게 다져졌군
 요. 앞으로가 기대되는데요. 조은성 감독
 님의 앞으로의 계획 혹은 포부가 궁금하
 네요. 큰 포부로는 상업영화를 찍거나 미
 국에서도 영화를 찍어보고 싶습니다. 일
 단은 내년 3월 예정된 다음 영화를 잘 찍
 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 영화를 잘 찍어
 서 칸영화제에 가자는 염원이 있습니다.
 다음 영화도 로맨스 영화라는 소식을 들
 었는데 감독님에게 사랑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사랑을 해야 사람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사
 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에 대해 긍정
 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네요. 다음 영화
 도 꼭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
 님께서 맛집을 잘 아신다고 들었는데 혹
 시 부평지역에 추천하는 맛집이 있으신

가요? 백운역 주변 대만 음식점 ‘산동포
 자’를 추천합니다. 중국 음식이지만 기름
 기도 없고 진짜 요리를 하는 곳이라 추천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 고진이 (2019.8)



#영화감독 조은성#

현재 음악다큐 <디바 야누스> / 인천다큐 <아주 오래된 미래도시> / 장편영화 <낭만적 공장> 촬영 중
 2019 아리랑TV <See What I See-20부> 감독
 2015 장편영화 <선샤인 러브> 각본/감독



공간에 대한 기억을 담아내는 마법사를 꿈꾸던 화가 고진 이

아직은 뜨거운 열기가 가시지 않은 8월 어느 주말 오후, 플레이스 막에서 <도기다시> 전시를 열고 있는 고진이 작가를 만났다. 네모반듯하게 정형화 되지 않은 공간에서 고진이 작가가 담은 공간의 기억들을 사각이라는 틀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단단하게 잡아두고 있었다. 색감이 화려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마음을 보는 것 같은 수줍음도 엿보였다. 40년이 넘는 시멘트 바닥에 흩어져 있는 자국들을 표현하는 회화작업의 행위과정을 도기다시(Togidashi; 돌 따위를 갈아서 윤기를 냄)라는 공사 용어에 빗대어 전시회를 기획했다는 설명부터 작품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까지 생글한 미소로 설명해주던 고진이 작가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주 앉았다.

쑥스러우시겠지만, 먼저 고진이 작가님이 직접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막상 제가 직접 소개를 하려고 하니 무척 당황스럽네요.(웃음) 저는 현대미술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고진이 작가라고 합니다.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개인전은 12번, 공동 전시는 40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작품 활동이외에도 SNS를 활용해 창작수업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교육을 하는 게 작가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현대미술을 어려워하니까 그런 창작수업으로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창작수업을 해온 것은 6~7년 정도 되지만, 이렇게 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작한 건 작년쯤부터고, 이번 해부터는 ‘작업실 이진고’를 열면서 제가 직접 수업을 만들고 제 방식으로 하고 있죠. 저는 입시미술 학원에서 주입식으로 배우는 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예술은 예술다워야 하는데 아무래도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식은 주입식 형태가 많으니까요. 성인들 위주로 창작수업을 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가요? 아무래도 아이들의 경우 입시위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 기본 예의나 매너까지 가르쳐야 하니까 부담스러운 면이 많아요. 성인들의 경우가 대화를 나누며 자유롭게 창의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서 수업이 훨씬 즐겁거든요.

고진이 작가님이 작가활동을 시작하게 된 시점 혹은 계기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어

떻게 미술을 시작하게 된 거죠?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다들 웃으시는데, 어릴 때 꿈은 마법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마법이 그냥 마술이었다는 걸 깨닫고 너무 실망을 한 거죠. 그러다 당시에 가장 마법과 유사한 장르가 미술이다 싶어서 그냥 이 길로 들어섰던 거 같아요. 하하, 재밌네요. 어렵פות이 어떤 포인트가 닮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마법이 아닌 미술로 표현하는 게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던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을 거 같은데..... 제가 어릴 때 몸이 좀 약했어요. 대신 어머니가 집에서 벽이나 바닥에 낙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늘 그림을 그리면서 놀았던 거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거 빼 놓고는 특출 난 거 하나 없는 그냥 아픈 아이였으니까요. 정말 잘하는 게 없으니까 한쪽 면으로만 발달을 해서 부모님들도 제 진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셨던 거 같아요. 예술가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점도 있는데요? 저는 너무 다른 경험치가 없어서 걱정스런 면이 있어요.

워낙에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해 오신 분이라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자신의 작품이나 전시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작품이나 전시를 고른다면? 첫 졸업전시 때 발표했던 작품이자, 첫 개인전 메인작업이자, 처음으로 팔린 작품이 있는데, 그 작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같은 주제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는 거 같아요. 작품 이름이 뭐였나요? ‘Hallway’였어요.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작품인데 약간 어두운 면이 있죠. 아무래도 첫 작품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투영되어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죠. 제 얘기도 좀 날 것이



섞여 있고, 그러면서 제가 좀 마음에 드는 밀도로 표현이 나와서 더 애착이 있어요. 물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도기다시> 전시 역시 의미가 있죠. 더군다나 제 고향에서 하는 첫 전시기도 하나까요. **미술계에서 작가가 첫 전시를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지금 고진이 작가님이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신인으로 데뷔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졸업하기 전에 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몇 백 개 갤러리에 다 보냈어요. 그래서 답장이 오는 곳은 미팅을 하기도 하고, 답장이 없더라도 찾아가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답장이 왔던 갤러리 중에 하나가 지금 전시하고 있는 ‘플레이스 막’이기도 해요. 그때 인연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저는 이런 과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대개는 전시를 하기 위해 기획안을 써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고 그 지원금을 가지고 갤러리 전시관을 대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방식으로 전시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작가의 의지대로 전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전적으로 제 기획 의도나 전시 방향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갤러리에 제가 직접 제 전시기획 방향을 설명하고 함께 전시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선호해요. 그렇게 되면 갤러리 측도 전시장만 빌려주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저와 함께 뛰는 파트너가 되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도 하죠. 아무래도 전시 홍보에도 더 적극적으

로 나서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갤러리와 작가와의 관계를 좀 더 능동적으로 변화 시키면서 전시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맞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

올해 초 굴포천에 ‘작업실 이진고’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부평지역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죠? 사실 저는 이 지역에서 살았지만, 작년에 부평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하면서 처음으로 부평구문화재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역 활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작업실을 차리고 동네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죠. 특히 부평 예술가들의 아지트 같은 곳인 북극서점 사장님을 알게 되면서 이 부평지역에도 예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예술 모임을 만들면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된 거죠. 덕분에 미술 창작모임도 만들게 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 거 같아요. **작가님 SNS를 보니 다른 예술인 모임에도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부평지역 예술가들과 교류를 하고 서로 협업도 하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도 활발하게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부평 지역에서 더 하고 싶은 예술 활동이 있으신다면?** 제 작업실이 있는 굴포천 주변이 예술가들로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동네가 예술가들이 활동하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술인들이 이 지역에 모여 들어서 더 많은 예술적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업적으로 너

무 유명해지면 힘들겠지만. 제가 이 지역에 자리 잡은 예술인으로써 다른 예술가들이 이곳에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어린 시절부터 예술 활동을 해 오셨는데 그 시간 동안 전환점이랄까 어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미술을 하면서 위기나 슬럼프는 없었지만, 저한테 전환점이 되고 슬럼프가 되었던 것은 항상 집이었어요. 저희 집, 그러니까 가족들 간의 관계가 저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들도 집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들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작품이 어두웠다가 밝아졌다가 하는 것도 저희 집 상황과 비슷해서,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먼저 알아보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벗어난 것 같기도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과 기억들이 아직도 저에게 공간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저는 사람마다 혹은 공간마다 고유의 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작가님이 작업하는 작업실이란 공간에서 스스로를 어떤 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살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살구보다는 좀 더 진한 주황색에 연두색이 약간 가미된 색깔이요. 그러니까 살구색인데 아래 연두 빛 이파리가 하나 달려 있는 거 같은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 처음 봤을 때 느낌으로 보라색 느낌이 많이 났어요.** 아, 제가 술을 많이 먹거나 그러

#화가 고진이#

현재 '작업실 이진고' 운영 중
2019 고진이 개인전 <도기다시> 플레이스막 인천
인천 외 개인전 10여회, 단체전 다수

면 얼굴빛이 그렇게 변하기도 하죠.(웃음)

—

작가님은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성공한 작가요. 작품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중적으로나 모두 성공한 작가.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작가, 세속적으로 말하면 ‘팔리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즐겁고 행복한 예술가가 되고 싶거든요. 어떤 분들은 빈곤이 예술의 상징인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말에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예술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면,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해야죠. 어떤 의미로든. **부평에서 자주 가는 공간이나 본인의 아지트 같은 공간이 있을까요?** 작업실 근처에 ‘연꽃빌라’라는 카페 겸 서점이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이죠. 물론 굴포천 근처에 있는 가게들은 다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인터뷰 : 조경아 (2019.8)





시골의 녹음을 그리워하는 도시인 도시의 기억을 담을 줄 아는 사진작가 유광식

처음 그를 만나고 이야기해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놀라운 기억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그의 기억력이, 기록하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속한 공간 속에서 타인과 공간의 삶을 기록하는 작가라는 느낌과 함께 사회시스템이나 국가 또는 더 커다란 무엇인가에 대한 반감이 느껴졌다. 마치 소설책에서 읽던 운동권 ‘형’ 느낌인데, 사실 지금 얼굴에서도 그 모습이 보인다. 이유가 궁금해졌다.

더운 날 아침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970년대 후반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내고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된 유광식입니다. 대학 졸업쯤에 인천으로 이사 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활동하며 살게 되었어요. 대학에서 항공기계공학을 전공하였고, **잠시만요! 항공기계공학이요? 전혀 다른 분야를 전공하셨네요. 그렇다면 예술분야로 진입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계기는 사람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를 간 것인데 입학 후 학업에 흥미를 잃었어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운동권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지금의 제 모습이 시작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 운동권 활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었나요?** 그 단체의 이름은 ‘희망의 노래 꽃다지’라고 해요. 민중가요 운동단체죠. 신입생 OT에서 〈바위처럼〉을 처음 듣고 꽃다지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 2집 앨범 테이프 뒷면에 있는 후원가입서 주소로 무작정 찾아간 것이 시작이었죠. 그 후 저의 20대 인생 전반에 깔린 것은 ‘꽃다지’였어요. 거기서 소식지 봉투를 부친다든지 후원회 모임에 참여하며 마음을 많이 뻗리게 되었죠. 저의 내면에 그쪽 성향의 기질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단체 사람들의 따뜻함도 너무 좋았어요. 방향하는 제게 따뜻함을 줬거든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사진작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단체 안에서 여러 파트가 나누어져 있어요. 공연하는 사람들, 기획하는 사람들 등. 제가 문화운동 활동가들 위주로 만나고 다녔어요. 문학, 미술, 풍물, 음악, 연극, 무용, 만화 등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요. 딱히 그때 뭘 해야겠다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들

을 만나고 다니는 것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일반기업에 취업했지만, 4개월 만에 퇴사했죠. **빨리 퇴사하셨네요!** 마음이 힘드니 몸도 같이 힘들어지는 제 모습이 싫었거든요. 그 전의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공간이 그리워라고요. 그 중 사진이라는 장르를 택하게 된 것은 나의 전공과 이웃해 용이하기도 했고, 주변에서 이끌어 주는 사람이 조금은 있었기 때문이에요.

—

저는 작가님이 운동권 학생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어요. 본인도 그런 느낌을 풍긴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가요?(웃음) 전에는 그런 기질을 숨기고 살았어요. 좋은 대접을 받지도 못했고, 선배들의 차후 행보도 실망스러웠기에 말이지요. 다음 세대들에 대한 돌봄이 없는 선배 세대에 대한 실망에 많은 것들을 숨기고 끌어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죠. 인천으로 이사를 온 후 끌어내는 시간을 가졌고, 다 정리하고 혼자서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니 그것이 10년이 넘었네요. 07, 08년부터이니.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그렇다면 작가님의 최근 활동과 대표작이 궁금합니다.** 음. 제 대표작은 『이삿짐 Moving』이라고 할 수 있어요. 30대에 동네 주변을 이웃 마실 다니듯 다닌 작업이에요. 사실 처음엔 기록하러 들어간 것은 아니고 혼자만의 아지트 느낌으로 거니는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혼자 많이 돌아다녔고, 비가 오면 가고 밤에 걸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곳을 혼자 보는 것이 아쉬워 사진을 찍게 되었고, 공간에 계신 어르신들의 인터뷰를 시작하게 된 거죠. 애초에는 사업으로 시작했

지만, 이곳이 재개발된다, 허물어진다는 소식에 조급한 마음이 들어 스스로의 이삿짐을 싸게 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허름한 마을 안 집집마다 낙인처럼 찍혀 있었던 ‘이. 샷. 집’ 문구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이삿집’ 작업은 나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록이에요.

—

공간을 대하는 작가님의 자세가 애뜻하게 느껴져요.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 서울로 이사 와서 학교 등록 절차를 밟는 날 길을 잃어 집에 못 갈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두려웠죠.(웃음) 그때의 기억이 크게 남아있어요. 시골에서는 아무리 길을 잃어도 거기서 거기예요.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처음 오게 된 낯선 곳에서 위치감각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제게 두려움으로 느껴졌어요. 그때 똑같은 네온사인들을 보면서 혼란을 느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불안이 생겨 어디에 가면 지형지물을 익히는 습관이 생겼어요. 아~ 제가 작가님을 보며 기억의 방식이 디테일하다고 생각한 게 이 지점이에요. 작가님은 날짜와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는 특이한 능력을 갖추신 것 같아요. 그래요? 다들 그렇게 기억하지 않나요?(웃음) 빨리빨리 각인시키는 습관이 생기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언젠가 ‘나의 사진은 무엇이고 나의 작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의도로 만든 작품은 아니어도 찍어 두고 보니 정체성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내 생각과 내 작품의 리뷰가 동일시될 때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기분이 좋죠. **인터뷰하러 다니면서 유광식 작가님이야말로 이번 질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예술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

평지에서 하시는 예술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 지역에 대한 작가님의 애착이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없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도 느껴지고요. 없어져 가는 곳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갔던 곳이 없어져 가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집, 가게, 전시장 등 좋아서 몇 번 다니면 항상 없어졌어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그 거리 안쪽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까이 있을 때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내가 ‘이곳’에 ‘있으니’ 이곳을 사진에 담는 거죠.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식상해하고 지루해해요. 그런데 내가 매일 가는 버스정류장 하나 담아둔 사진이 없다면 언젠가는 아쉬워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찍어두는 것일 뿐 다른 거창한 이유는 아니에요.

—

앞으로 부평에서 또 어떤 예술 활동을 하실지 궁금해지는데요. 부평이라고 한정 지으면, 여기는 음악도시라고 하죠. 그리고 제 고향 완주는 소리의 고향. 그 공통점으로 음에 대한 부분을 작업해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동네를 산책할 때 나는 내 발걸음 소리 등을 가지고 협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거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꼭 실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기록도 더 많이 남기시고요.** 이제는 내가 찍는 활동이 타인에게 인식되는 세상이에요. 제가 걷다가 동네를 찍어도 누군가는 왜 이걸 찍는지 불편해하기도 하죠. 그게 제가 더 숨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더 잘 기록해 봐야죠 뭐. **그럼 활동하시면서 특이점이나 전환점으로 다가온 다른 일들이 있을까요?** 지역에서 받은 상처, 중

아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많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거리를 두면 사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것도 사람이라 되레 생각해요. 특이점이라 생각되는 것은 의도치 않게 찾아왔어요. 마흔이 되면서 갑자기 고향 생각이 크게 들어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고향의 기억이 치밀어 그 순간에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케치와 글로 정리해 두었어요. 스스로 벽차고, 더없이 행복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스스로 치유가 되었다 할 정도로. 다 떠났지만 정서적으로 누울 수 있는 고향이 내 가슴 안에 살아 있다는 것 자체에서 치유를 받은 것 같아요. 작년 초에 북극홀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어요. 또한 완주에 한 달 동안 생활할 기회가 왔고, 올해는 이 기록을 출판 제작 중이에요. 고향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그곳으로 가서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인천을 아껴요. 제가 닫고 있는 공간을 사랑하고 아끼며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가님의 특이점 전환점은 지금이네요.** 맞아요. 모든 사람은 남기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많이 남기는 사람인 것이고요. 가능하다면 자연스러운 방식을 찾아서 말이죠.

—

공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신데, 혹시 다른 지역에 대한 동경은 없으세요? (예를 들면 여행 작가에 대한 생각은?)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요. 저는 오래 있고 싶은 곳이 필요합니다. 낯선 것에 대한 거부

감과 불안감이 있어서 그런 거죠. 시간이 채워져 있는 공간이 좋아요. 세월이 느껴지는 공간. 군산과 목포의 느낌이 다른데 제게는 목포의 정서가 조금은 맞는 것 같아요. 근현대의 역사가 깃든 장소가 좋더라고요. 그래도 제주는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원다는 의미에서 제주에서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인물사진이 별로 없는 것이 궁금합니다.** 사람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건 아니고, 찍고 싶어서 안 찍고 있어요. 사실 감정을 모으고 있습니다. 감정을 모아서 그쪽으로 투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오래보고, 알고 찍고 싶어요. 그날 만나서 그날 찍는 인물사진이 아니라. **이 지역에 추천해주고픈 다른 예술가들이 있으신지?** 저는 눈에 띄고 있는 사람보다 이제 막 시작하려 하는 예술인들에 관심이 가요.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고 싶어요. 작가에게 첫 번째 개인전이 중요하듯이 어수룩해도 첫 번째 이야기를 기록해두면 그 예술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그런 의미에서 모든 후배의 활동을 간접적으로나마 응원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추천해주시고픈 부평의 맛집이나 아지트는?** 음~ ‘5.5닭갈비’요. 음식이 맛있기도 하지만 그 공간이나 그곳의 주인이 주는 친절함이 방문하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자주 가요.

인터뷰 : 황선화 (2019.8)

#사진작가 유광식#

2019 자전예세이 『완주소년』 출간 / 전시 <열음집이 녹는다>
2018 전시 <몸 속 어딘가의 녹음>





공감을 이끌어내는 글이 좋은 글이라면 쉽게 읽혀야 한다고 믿는 작가 조 경 아

약간 늦은 여름 어느 화가의 작업실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리다만 화가의 그림이 그녀와 제법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문득 그녀의 소설 속에 묘사된 살인마가 떠올라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묘한 기분을 안고 그녀의 소설 제목처럼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묘한 인터뷰를 시작했다.

본인의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쑥스럽네요.(웃음) 2018년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한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작가인 소설가 조경아입니다. 현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파견예술인으로써 부평구문화재단에서 협업 활동을 하고 있고, 다음카카오 브런치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소설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지만 금방 질려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유독 글 쓰기만큼은 오래 해도 질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글로써 나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좋아했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게 된 계기는 회사생활에 지쳐 직장을 그

만둔 후 인데요. 어떤 계획이나 목적보다는 번 아웃 된 상태에서 그저 하염없이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글을 쓰기 위해 도서관에 매일 다녔었는데, 도서관에 꽂혀있던 책들을 보면서 내가 쓴 글이 책으로 나와 이 서가에 꽂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글을 좀 더 쉽고 재밌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저만의 방법을 찾게 되었죠. 제가 예전에 작사가로서 활동을 했을 정도로 노래에 이야기를 담는 일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나 어떤 상념들을 가지고 짧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습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글들을 블로그에 올리다보니 짧은 소설들이 80여 편이나 만들어졌죠. 이때에 쓴 짧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장편소설로 확장되었어요. 첫 장편소설인 『3인칭 관찰자 시점』의 경우 노래소설에서 신부님들 얘기가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문득 신부님들이 궁금해져서 무작정 성당에 찾아갔어요. 마침 인터뷰를 부탁드렸던 신부님이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신부님들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의 신부님이었고, 그런 사실이 무척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쓰면 재밌겠다는 생각에 장편소설까지 쓰게 된 거죠. 노래에서 이야기가 출발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네, 제 글들의 대부분은 노래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이상은 씨의 노래 〈외롭고 웃긴 가게〉라는 노래가 있는데 모티브를 얻어서 같은 제목으로 단편 희곡으로 무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말씀 중에 작사가로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작사는 또 어떤 계기로 하게 되신 건가요? 대학교 때 노래 동아리에 있었고 원래 작곡과 작사를 같이 하고 싶었지만 전문적으로 작곡 수업을 받아보니 음악의 작곡에 대해서 완전 자신감을 상실하게 됐어요. 하지만 글쓰기(작사)만은 계속 하게 되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KBS 레코드실에서 알바를 하던 중에 뮤지션인 정원영 선생님이 라디오 DJ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작사한 글과 작사를 하고 싶다는 편지를 써서 무작정 그분에게 드렸어요. 근데 얼마 후 정원영 선생님이 자신의 앨범작업에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셨죠. 진짜 무모한 행동이었었는데, 그걸 받아주신 정원영 선생님이 참 고마웠죠. 그 앨범작업은 취소가 됐지만 이후에 다시 김건모씨의 5집 앨범작업에 참여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주셨어요. 다행히 첫 미팅 때 김건모 씨가 제 가사를 맘에 들어 하셔서 결국은 한 달간 합숙을 하며 김건모 5집 앨범(97년 〈Myself〉음반)에 참여했습니다. 이후로 다른 작업을 하긴 했지만, 취업으로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와 생각해 보면 작사가의 작업이 노래를 듣고 어떤 이미지나 심상을 떠올려 이야기를 만드는 노래소설 작업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후 작업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의 후속편으로 주인공 신부의 12년 후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주인공이 사제직을 그만둔 후, 조금 색다른 복수를 계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수상했던 작품들도 많은 퇴고를 거쳐야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작품도 계속해서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있어요. 저는 사실 글 쓰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서 퇴고가 필수인 사람이거든요.



인천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부평 혹은 인천의 느낌은 어떤가요? 얼마전까지만 서울에 살다가 인천으로 온지 얼마 안됐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도 부평과 부천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인천과 부평이라는 지역에 잘 몰랐고 아직도 많이 낯설어요. 복잡하고 오래된 도시 같지만 가라앉지 않은 어떤 활력이 있는 도시 같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예전에 친구들과 지방 도시를 하나씩 여행한 적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나름의 정서와 정의내릴 수 있는 특색들을 찾아내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부평은 아직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애매한 거 같아요.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뭔가 뒤죽

박죽되어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부평에서 활동계획이 있으신지요?**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고 재밌으면서도 읽기 쉽다는 말을 자주 해주시는데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좋아요. 사실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은 쉽게 읽혀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더 내공이 쌓이면 제가 저만의 방식으로 글을 쉽고 재밌게 쓰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 노래로부터 출발하는 글쓰기 같은 거요. 부평이란 도시는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글쓰기 수업이 매우 흥미로울 것 같거든요. 글을 쓴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쉬운 접근을 통해 글쓰기가 일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미 글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써야하겠다는 소설가로의 어떤 전환점이 있으셨나요? 직장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도서관을 다니면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감이 많이 있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중,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면 밥은 먹여 줄 테니 일단 써보라고 격려를 해주셨죠. 또 어느 날엔가는 작은 오빠가 너는 앞으로 뭘 하고 싶냐 질문을 불현듯 제게 던졌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겁이 나서 못하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너 하나만 챙기면 되는데 뭐가 무서워?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봐!'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그 말에 이상한 용기를 얻었고,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그 노력의 결실로 2018년도에 세계문학**

상 우수상을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장편소설로 수상하셨는데, 상을 받은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상을 받기 이전에도 단편소설을 쓰고 수상도 했었지만, 웬지 무언가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편소설로 상을 받으니 진짜 작가가 되고 인정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웃음)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세요?** 글을 쓰다가 막히거나 무언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는 쓰던 걸 잠시 덮어두는 편이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문득 좋은 생각이 나거나 실마리를 찾기도 해요. 혹은 샤워할 때 해결점이 나오거나,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 무언가 떠오르기도 하죠. 주로 일정한 코스를 주기적으로 걸으면서 좋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말일 수도 있지만, 소설을 쓴다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유지하는 자기관리가 필요한 일인 거 같아요. **작가님의 일관적인 주제나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지?** 제 소설을 보면 극중 인물들이 가족 간의 갈등을 겪게 되는 상황이 많아요. 제 자신도 살아오면서 가족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단히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거든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대해 생각이 많고, 소설을 쓰다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거죠. **돈금 없지만 어떤 날씨를 좋아하시나요?** 오늘처럼 흐린 날씨를 좋아해요. 이런 날씨는 맑은 날씨와 달리 생각이 들뜨지 않고 차분해 지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싫어하는 영국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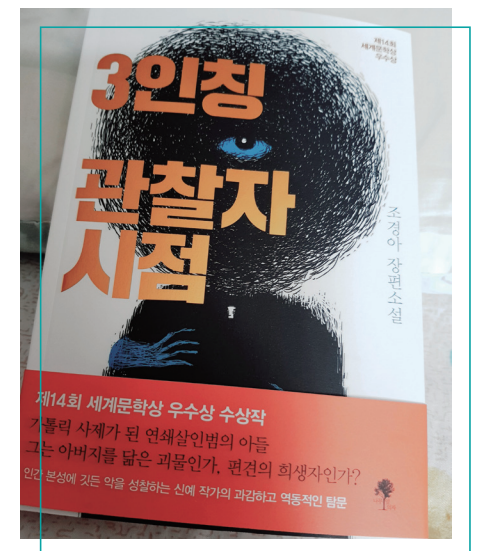
#소설가 조경아#

현재 다음카카오 브런치 연재(노래소설) 작가로 활동 중
2018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장편소설 출간
2016 『외롭고 웃긴 가게』 단편 연극 작

씨를 좋아하는 편이죠. 영국의 소설가 중에 C.S루이스(『나니아 연대기』작가)를 좋아하는데 그 분은 40여 년 동안 집과 대학만 왔다 갔다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영국의 흐린 날씨와 변함없는 산책길이 그 분에게 소설적인 영감을 주었던 것 같아서 저도 그 분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마지막으로 부평에서 추천할 만한 산책길이 혹시 있을까요? 부평에 의외로 공원이나 녹지 공간이 참 많더라고요. 굴포천 일대라던가 부평의 크고 작은 공원들이 참 좋았어요. 특히 굴포천 근처 카페거리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 : 조은성 (2019.8)





마주한 공간에 인사하고 스스럼없이 춤추는 배우 황 선 화

모자를 눌러 쓰고 검정계통의 의상이 인상적이던 황선화 배우. 말이 없음은 배우의 휴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은 지금껏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흡족함 아래 묻어야 했던 어떤! 그것들도 궁금했고 함께 성장하고 있는 아들 '진짜'(12월 출산할 예정인 아기 태명)의 컨디션도 신경이 쓰였다. 인터뷰 당일 자신을 자신 있게 보여줄 요량이었던지 지난 만남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밝은 의상과 환한 기분을 가지고 마주 앉았다. 10여년 넘게 연기 활동만 하다 이제야 자신에게 휴식을 주고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게 되어 기쁘다는 배우의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았다.

아침에 비가 조금 오는 날이었는데,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배우로 활동하는 황선화이고요. 연극무대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지만, 뮤지컬 장르를 제외하곤 가리지 않고 모두 하고 있습니다. 배우에 대한 자질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고등학교까지 시, 소설 같은 습작을 많이 썼고 친구들 대필도 많이 해줬어요. 월요일 조희시간 글짓기 상을 호명할 때 1등, 2등, 3등. 모두 제가 글을 대신 써준 친구의 이름이 불리면 찾아가 상품만 수거해오는 게 일이었죠.(웃음) 친구들 연애편지도 많이 썼어요. 쓰면서는 발현이 되는 인물 창조라는 걸 하잖아요? 습작이지만. 구시렁대면서 썼는데 그게 발현이 된 건가 생각이 들고, 그러다 수능을 보기 싫어서 우연히 연기과에 지원하게 됐어요. 제가 어떤 규율에 맞추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 수능을 본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거든요 그걸 버티면 몸이 아파요. 참는다고 참아도 몸이 아파서 못 버티는 스타일인데 수능이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수능 안 보는 학교가 하나 있다고 해서 간 곳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였어요. 1차, 2차, 3차 시험을 치르는 사이에 글짓기 시험이 있어요. 정원이 몇 명 안 되니깐 붙으면 왜 붙었는지 첫 수업에 설명해주는데, 그때 교수님이 극작과로 전과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대로 4년을 버티고 버티 연기과를 졸업했어요. 누가 시키면 너무 하기 싫거든요. 먼 훗날일 수도 있겠지만 극작 또한 해 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사람과 하는 일이니까 배우 연기라는 것이 자유롭게 보이지만 수동적인 기술이에요. 자기 목소리가 아닌 거죠. 저처럼 운이 좋아서 생각이 맞아서 극단을 꾸리면 연출, 배우 등 선택할 수 있다는 쾌감이 있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어렵죠. 고전작의

경우 더더욱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예술이에요. 소설 쓰기 클래스도 들어봤는데 맞춤법, 띄어쓰기 지적만 하니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조금씩 해볼 것도 같아요.

과거 참여하셨던 작품 중에 기억이 나는 것들은 어떠한 것인가요? 연극이나 드라마 모두 좋습니다. 대부분 연극은 긴 과정을 담보하기 때문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또 현장에서 1초 단위로 수정할 수 있는 게 참 매력적인 거 같아요. 관객들이 오늘은 암전한지, 자기표현을 하는지 즉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허용된 범위 안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와 반대로 드라마의 경우엔 조절이 어렵더라고요. 드라마 현장에선 연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빨리 NG 없이 마치는 걸 좋아해요. 특히 일일 드라마가 NG 없이 가면 박수 받아요.(웃음) 박수 받으셨군요? 네! 처음엔 '내가 드라마도 잘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후에 방송을 보면 너무 이상하고 실망스러웠어요. 아무래도 연극 작업이 더 기억에 남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만 꼽아 주신다면? <로베르토 주코>라는 프랑스 연극인데 두 명의 연출 덕분에 연극자체가 제 영혼에 각인되는 느낌이었어요.

누구에게나 힘든 시절이 있기 마련인데 황 배우님에게도 그러한 시절이 있나요? 제가 원체 타인이나 다른 상황에 관심이 없어요. 특히 타인에게 정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역할을 맡으면 그 인물의 사고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게 참 너무 벅찼거든요. 동시에 3개



의 역할을 맡아본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주변(경계)을 끊고 지내게 되더라고요. 친한 사이의 캐릭터까지 인지하고 사는 게 힘들었던 거죠. 자주 관계를 끊는 습관이 되어서 이젠 관심 있는 것만 해요. 졸업과 동시에 데뷔한 후 2006년부터 계속 운이 좋았어요. 배출되는 배우도 많은데 쉬지 않고 작품을 하며 살아남았으니 운이 좋은 거죠. 배우는 쿨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연기 안 하고 1년을 쉬는 건 지금이 처음이에요. **쉽표가 있는 게 맞는데 배우님은 이제야 만들어서 쉬고 있군요?** 쿨 받는 입장에서 전화 오면 무조건 감사하잖아요. 저는 선택에 있어서 스케줄 오는 순서대로 수락했어요. 먼저 불러준 사람이 고맙잖아요. 그러다가 주변 선생님이 이젠 작품을 좀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잘 몰랐어요. 선생님은 고를 수 있는 입장이지만. ‘이젠 선화 너도 작품 골라.’라는 연출자의 말을 듣고 난 뒤에야 ‘이젠 나도 작품을 골라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읽고 제대로 해야 하는구나 깨달았어요. 배우로서의 철학을 보여줄 수 있게끔 말이죠. 그 뒤로 약속된 두 작품 마치고 쉬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진짜 쉴 수 있는 거예요?** 쉬는 거죠. ‘진짜’(아이태명)랑 쉬고 있으니까. 아기는 저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범하고 남편이 조심스러운 편인데 저는 저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웃음)

—

지금 수많은 배역을 하셨는데 자신과 유사한 캐릭터가 있었다면? 한 예로 <백치>라는 작품에서 캐릭터 팜프는 모자란 캐릭터였어요. 완벽하면 누구의 호감을 사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캐릭터는 우울감, 성격적 결함 같은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모자람을 찾아요. 그걸 찾는 것이 목표고, 표현하면 성공인 거죠. 저는 사실 코미디가 좋아요. 행복하고 재미있어요. 연극도 코미디를 했을 때 좋더라고요. 한국 희곡 중 <국물잇사옵니다>에 다방레지 역할이 있어요. 그게 웃긴 역할은 아닌데 근현대 여성의 성 상품화를 슬프게 표현하고 있어요. 블랙 코미디로 풀었는데 그게 찰떡같이 맞아서 관객들도 좋아해 주시고 희열이 있었죠. **최근에 <15분 연극제>에서 보여 준 젠더 프리 캐스팅은 어떤 특색을 의도하셨는지요?** 특색이라기보다 숨은 본질은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보통 공연에서 성폭행 등 예민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폭력의 본질이 아니라 ‘남자=폭력’이라는 분위기만 오더라고요. 사건의, 고통의 전달 방법상 그 사건이 보이려면 배우가 지워져야 할 것 같았어요. 남자 캐릭터를 여자로 해보니 그 고통이 보였고요. 젠더 프리를 고집할 이유는 아니었지만요. **작품의 주제가 명확한데,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 불평등을 꼬집어 얘기하는 건가요?** 똑같은 대본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쪽이 맞아요. 그리고 공간이 좋았어요. 저희는 공간에서 영감을 받아요.

—

그렇다면 배우님이 소속된 ‘극단 907’에 대

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극단 907’은 저와 동갑인 작가 겸 연출인 설유진과 함께 하는 극단이에요. 지금은 단원도 늘었어요. 전에 극단에 잠깐 있어 봤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10시에 나와 있어라, 맞아야 한다느니 강압적이고 괴리감이 들어 못 버티고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극단은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보고 이야길 나누다 보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작품 하던 차에 두 사람의 유대감이 생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윤택 미투 사건이었죠. 저도 작품 연습하다 불려간 적이 있는데 제가 당한 건 다른 피해자분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불쾌한 정도? 명치나 아랫배를 연기지도라며 만지고 그랬죠. 불쾌하더라고요. 안 좋은 상태였지만 공연을 잘 끝내는 게 중요하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이윤택이 블랙리스트 영웅으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성추행해서 잘린 거였는데!(힘주어) 정권에서 탄압했던 말만 나오고 다 아는 입장에서 영웅으로 대접받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자에게 보낼 문자를 다 썼어요.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명에게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유진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내지 말고 (그럴 애가 아닌데)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지만 어쨌든 의지한 친구니까 참았어요. 이후 사태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면서 유진이가 저를 말린 거에 대해 자책감이 들었나 봐요. 저는 미투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다소 괜찮아졌어요. 단원들에게 사과 문자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진이가 모든 인터뷰를 따라다니면서 직접 황선화에게 사과

#배우 황선화#

2018 연극 <사막속의 흰개미> / 연극 <백치> / 연극 <얼굴도둑>

해라, 언론에 노출되게 싸우며 받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신뢰감이 깊어졌고, 연극계에 목소리를 내려는 방식에도 함께하게 되었어요. 이후 좋은 여배우들을 섭외해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

앞으로 인천에서 많은 활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을까요? 사실 많은 시설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인천은 낯설고 그래요. 처음에 인천에는 문화예술의 터가 닦여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평을 알게 되었던 거죠. <15분 연극제>는 제가 임신중이기도 하고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짧은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예술로’ 사업과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하게 됐어요. 막상 해보니 오히려 지역문화, 인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부평구문화재단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부평아트센터가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와서 보니깐 공간도 좋고 쾌적하고 다양한 시설이 있어요. 이 규모하고 크기에 비하면 이용하는 사람은 한정적으로 보여요.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비영리 단체들이 연습실 없을 때 이곳이 있다는 것도 모를 텐데, 알려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예술인들에게 아트센터 공간이 개방되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 유광식 (2019.8)

그리다



웹툰 작가 심기명



미술작가 이진우



동양화가 맹가영



한국화가 정나래



현대미술 작가 공지선



서양화가 조규창



전시 기획자 이정은



공포 명소를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진 공포 웹툰 작가 심 기 명

공포 만화가 심기명 작가를 만나기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찾았다. ‘공포 만화가’를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어두운 이미지와 달리 그는 해맑은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지금까지 공포 만화 3편을 연재하며, 공포 컨셉의 헤비메탈 뮤직비디오 제작과 같은 다양한 시각작업을 하고 있어 그와의 대화거리는 어느 때보다 풍부할 거라 예상되었다.

‘심쓰리’라는 예명으로 공포만화를 그리시는 심기명 작가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가명 심쓰리로 2016년에 데뷔한 사람입니다. 2016년 레진코믹스에서 〈심귀전〉 그리고 2017년 탑툰에서 〈진심귀전〉, 저스툰에서 2018년 〈흑심귀전〉

을 연재했습니다. 현재 4년차 웹툰 작가입니다. 〈심귀전〉이라는 제목은 제 이름을 비슷하게 따라갈 겸, 한자를 바꿔서 ‘마음 심, 귀신 鬼, 펠展’을 사용했고, ‘당신의 마음속 귀신을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불안감을 만화로 표현

하겠다는 의미죠. 그 후속으로 참 진(眞)을 붙여서 〈진심귀전〉, 검은 흑(黑)을 붙여서 〈흑심귀전〉을 연재했습니다. **필명이 좀 특이한데 왜 심쓰리인가요?** 처음에는 성을 따서 별다른 의미 없이 ‘심심심’라는 필명을 썼었는데 어떤 일러스트 작가님이 심이 세 개니까 ‘심쓰리’가 어떠냐고 하셨어요, ‘심쓰리’를 검색해도 많이 나오지 않고 ‘미쓰리’처럼 부르는 명칭 같아서 심쓰리가 되었습니다.(웃음) 친구들은 종종 이름대신 ‘심쓰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름에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름에 대해서 더 얘기하자면 基明 ‘밝은 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두운 만화를 그리고 있죠. **이름은 밝고, 작품은 어두움을 표현하고, 뭔가 운명적인데요?** 좀 더 운명적인 것을 얘기하자면, 고향이 전라도 곡성이에요. **(놀람)** 영화가 나온 이후로는 제 고향이 곡성이라고 하면 다들 놀라세요. 원래 ‘곡성’ 하면 깨끗한 청정지역인 기차 마을인데, 당시 어두운 내용의 영화를 찍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지역민들이 있었다고 해요. 저도 그 사실을 기사로 접하고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니에요, 웃음)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감독〉이라는 작품을 〈진심귀전〉(2017)에서 11화 동안 연재하기도 했었죠. **웹툰 외에 공포물로 활동하신 분야도 소개해주세요.** 공포 일러스트나 조형작품 전시도 했었어요. 기억에 남는 작품은 나무판에 못을 박아서 빈폴 로고를 만든 작품이에요. 앞에서 보면 로고지만 뒷면은 거칠게 못이 나와 있죠. 최근에는 헤비메탈 밴드 ‘해머링’의 〈사이닝〉 뮤직비디오를 공포 컨셉트로 제작, 감독했어요.

지금 하는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부터 만화가가 되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대학생 때 공포라는 장르로 다 해보자는 목표가 있었어요. 당시에 애니메이션, 영상, 3D, 캐리커처, 만화로 표현해보고 회화와 수업에 들어가서 아크릴이나 유화 작업도 해봤었어요. 졸업할 때가 되서 진로를 정할 때 공포물을 주제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작업적으로 소통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우리나라에서 공포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는 만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바로 웹툰 작업을 하러 올라왔죠. ‘부천만화창작 스튜디오’에서 만화가의 문하생으로 3개월 정도 작업을 했고, 이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작업실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왜 공포였어요? 어쩌다 공포에 꽂히게 되셨는지?** 학창시절에 낙서하는 걸 좋아했어요. 좋아하던 만화는 인물을 괴짜처럼 표현하는 〈괴짜 가족〉이었고요. 뒤늦게 입시 미술학원에 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친구들이 제가 끄적거린 낙서그림을 보고 그림이 무섭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공포만화를 접하게 된 것 같아요. 이상하게 힘들 때 더 무서운 것을 보면서 힘든 것을 이겨냈거든요. 그렇게 20살 때부터 공포 장르에 대한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귀신물을 좋아했는데, 만화연재를 하게 되면서 폭을 넓혀갔어요. 고어물, 괴기물, 좀비물 등. 그 외에 새로운 장르도 만들어갔어요. 〈리틀 포레스트〉라는 작품의 만화와 영화를 보고 공포로 풀어냈던 적도 있어요. **지금까지 활동하며 대표적인 작품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최근에 한 〈흑심귀전〉(2018~2019)이 제일 애착이 가요. 처음 웹툰을 연재할 때는 모든 과정이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연재한 〈흑심귀전〉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작업을 했고, 가장 저의 의지가 잘 담긴 작품이에요. **처음 연재하신 <심귀전>은 한편에 에피소드가 끝났는데 점점 횟수가 길어진 것 같아요.** 한 소재가 한편에 끝나면 작가 입장에서 고갈이 빨라요. 그래서 소재에 따라 10화 정도 되는 중편도 해보고 2화로 끝나는 단편도 해보며 여러 시도를 했던 거죠. **예명을 쓰셔서 일반 독자들은 눈치를 못 챘을지도 모르지만, 만화에 작가님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만화 콘셉트 중에 거의 모든 에피소드의 주인공의 이름은 제 이름이에요. 제 이름을 쓰면 이야기를 만들 때 좀 더 쉽게 감정 이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 인물의 표정을 그리실 때도 책상에 있는 거울을 보며 작가님의 본인의 표정을 관찰해 그린다고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그런 식으로 발현된 작가님만의 글 쓰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캐릭터 일기를 써요. 내가 등장인물 중 하나가 되어서 쓰는 일기예요. 그렇게 쓰면 대사나 제스처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다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소재에 대한 시를 써요. 시는 메타포가 강하니까 연출이 지루할 때 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연출이 꽤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집에서 글을 쓸 때는 노란 스탠드를 켜고 만년필로 글을 써요. 소재에 어울리는 음악을 들어놓으면 더 집중이 잘되거든요. **공포 외에 좋아하는 장르가 있나요?** 멜로요. 사실 ‘공포 멜로’ 좋아해요. **작가님이 좋아하는 공포영화는 뭔가요?** 제임스 완 감독의 <인시디어스> 1편을 가장 잘 봤어요. 영화의 한 장면을 포토샵으로 그리기도 했었고요. <링>과 <주온> 같은 클래식한 공포영화도 좋아해요.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며 좋은 점도 힘든 점도 있었을 텐데, 전환기가 있었나요?** 지금이 전환기이면서 슬



럼프예요. 슬럼프를 인지하고 요즘 놀고 있어요. 세 번째 작품을 끝내고 나니까 인풋(input)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뮤직 페스티벌을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강사 입장이 돼보기도 했는데, 그곳이면 지방이어도 수업을 하면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찾아가요. 새 작품을 준비하는 요즘, 좀 낯설지만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웹툰 작가로써 할 수 있는 것들을 즐겁게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면서 힘든 점이 있나요?** 지금은 연재도 여러 번 했고 자부심도 있지만, 초창기에는 안정적이지 않은 예술가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작아 보여서 힘들었어요. 회의감도 느껴지고 멘탈 관리가 잘 안됐는데,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뭔가 트이게 되었어요. 뮤직 페스티벌에 가서 놀면서 예술인들이 멋지다고 느꼈고, 자연스럽게 나도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다른 문화예술 행사나 공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게 되었어요.

—

부평에 자리 잡은 이유는 뭔가요? 고향은 전라도인데 10살에 청주로 이사해서 20살까지 살았어요. 이후 집이 인천으로 이사를 했고 지금까지 인천에서 지냈어요. 만화를 시작하고 더 이상 움직일 명분이 없었고, 지금은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동네가 좋아요. 굴포천 쪽 신트리로는 주택가라 조용하고 위치적으로도 좋아요. 좀 내려가면 부평 시내고 올라가면 할머니 요양원이 있어요. 지금 작업실과도 가깝고 즐거가는 ‘락캠프’라는 공간도 동네에 있어요. 교통도 편하고요. 무엇보다 할머니와 가까운 곳에서 지내고 싶었어요. **부평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지금 당장 하지는 못하겠지만 두 가지 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만의 공간에 대한 꿈이에요. 공포 컨셉의 옥탑이 있는 2층 건물인데요. 옥탑에선 제가 살고, 2층은 공포만 가르치는 학원 겸 공포 이벤트 회사를 같이하는 곳으로 만드는 거죠. 1층은 공포 카페인데 제 작품을 전시하거나 소품을 놓을 거예요. 제가 술 한 잔 하는 것도 좋아해서 지하는 공포 컨셉트 바 Bar를 운영하고 싶어요. 낮에는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저녁에는 바에 가는 거죠. 다른 하나는 해외에 나가서 경험한 것들을 작업으로 풀어내보는 거예요. 여행하며 공포 소품도 수집하고요. 이렇듯 공포 공간 조성 혹은 기획을 해보고 싶어요. 그 공간이 관광지처럼 될 수도 있고, 부평에 만들면 지역의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부평구에 공간지원 사업이 있다면 받고 싶어요. 그럼 더 빨리 공간을 조성 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만들 자신이 있거든요. 물이 흐

#공포만화가 심기명#

2018~2019 저스툰 <흑심귀전> 연재
2017~2018 탐툰 <진심귀전> 연재
2016 레진코믹스 <심귀전> 연재

르는 곳에 음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굴포천 주변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동네에 있는 아지트도 얘기해 주세요.** 아지트는 ‘락캠프’라고 할게요. 성인이 되고 인천에 왔을 때 동네 친구가 없었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다 궁금해서 처음 락캠프를 찾아가봤는데 라이브 공연을 볼 수 있었고 사장님 사모님, 그리고 정예지 씨를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정예지 대표님이 운영하는 청년모임 ‘청년인력소’ 임원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청년인력소와 락캠프를 통해서 여러 활동도 하게 되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저의 폭을 넓혀준 곳이기도 하죠.

※인터뷰가 끝나고 블로그에 있는 여러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작가님의 블로그에 들어가면 웹툰 외에 여러 작품들과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mngo22>
인스타그램- @sim_three

인터뷰 : 고진이 (2019.9)





일곱 빛깔 고운 무지개처럼 유쾌하게 주변을 빛나게 하는 미술작가 이진우

화가는 멋진 모자를 쓰고 유쾌하게 우리를 맞아 주었다. 자신 있게 본업은 그림이라며 맥이 다르진 않지만, 외부적으로 더 알려진 벽화활동가라는 부분은 일축했다. 변모하는 공간의 상황에 따라 옮겨야 했던 작업실이지만 지금껏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해하는 화가는 오늘도 무지개처럼 빛나는 사람이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부평구 십정동에서 1995년부터 살았고, 도화동에 있던 작업실도 재개발 여파로 2010년부터 열우물(십정1동) 마을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으로 옮겨오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 여기도 산곡1지구 개발구역이에요. 멀쩡한데 빠른 다 개발지구네요. 낡은 주택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항상 타의에 의해 거처를 옮겨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동네가 있다면 어디가요?** 마을에 대한 애착은 십정동 열우물 마을이 큰 것 같아요. 제물포 있을 적에는 도화시장을 흑백으로 담아 놓은 사진이 있었는데 자료집 만들고 났더니 시장이 다 허물어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쓰던 열우물 작업실 자리를 이어서 쓰게 되었죠. 열우물은 십정1동 216번지 일대를 국한해서 말해요. 사실 십정동 전체가 열우물이지만요. 왜 가게 되었냐면 95년도에 서울로 출근을 해야해서 전철역이 가까운 곳에 살아야 했거든요. 십정고개 가장 높은 곳에 살았는데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번은 아이랑 그곳에 있는 해님방(공부방 이름)에 갔더니 책도 빌려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 앞쪽과 뒤쪽이 너무 다른 세계였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해님방에 인사하고 난 후, 그곳에 발을 담그게 된 것 같아요. 공부방 미술 수업도 하게 되고, 제가 기본 습성이 화가잖아요. 이런 마을이 있으니 그림 뭐라도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97년도에는 IMF가 터졌잖아요.** 달동네 산동네 남성들이 주로 하는 일이 공사판 막일이예요. 당시엔 지금에 비하면 인건비가 켜어어요. 6개월 일하면 1년을 먹고 산다고 그랬으니깐. 그런데 IMF 터지고 일을 하나도 못해요. 낮부터 슈퍼에서 술을 마시는 거죠.

마시면 싸우죠. 부인들은 부업을 했었는데 이후 음식점 서빙이나 조리하는 일로 취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싸우고 헤어지고 하는 일이 빈번했어요. IMF가 열우물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놔어요. 내가 화가인데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신소영 선생님과 마을 벽화를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해님 공부방 근처만 하려 했는데, 높은 지대의 끝 집부터 벽화동의서 사인을 받아서 그 사이까지 17곳을 하게 되었어요. 판이 엄청 커진 거죠. 페인트도 사야하고 사람도 구해야 해서 줄지에 추진위원회 만들고 선린교회, 십정동성당, 새마을부녀회 등에 다니면서 모금까지 했어요. 연인원 400명 정도 동원이 되었고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었어요. 판은 커졌지만 거기서 끝냈죠. 그렇게 해서 좋은 일 한 번 했음 끝인데 지역 사업하는 해님방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은 왜 안하는 거냐? 무시하는 거냐? 그러기도 하고 이미 작업을 한 집도 그림이 벗겨졌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항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2004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 16년에 걸쳐서 12회까지 했네요.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다가 점점 높이 되어버린 거죠.

—

화가님의 대표작도 대부분 십정동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그런 셈이죠. 마을이 없어질 적에는 울컥했어요. 지난 5월, 동구 만석동 우리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는데 제목이 <열우물연작-안녕?!>이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는 보낸 거 같아요. (그림을 보여주며)이건 초기에 그린 <열우물 야경3>이예요. 120호, 전지크기 3개를 이어 그렸지요. **부평 지역에 대해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십



정동이죠. 십정동은 저의 40대를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장소에 민감한데 제 그림 속성이 세 종류예요. 고향인 고흥 연작이 있고 이곳 산곡동 그림들이 있고요. 동암역에서 우리집 가는 철도 옆길에 대한 연작이 있어요. 나머지 그림은 스케치 정도죠. 세 군데 정서가 생활과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장소에 대해 애착이 있으신 것 같네요.** 애뜻해요.(웃음) 어두운 동네가 벽화들로 밝아지는 걸 지켜보는 게 참 행복했거든요.

—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부평에서 하고 싶은 다른 예술 활동이 있나요? 여기 산곡동 화실이 있는 동네는 낮에는 사람이 다니지만, 밤 되면 행해요. 행하단 건 무서울 대상조차 없다는 거예요. 서쪽 동원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12시 넘어서 집에 가려는데 짹 짹 놀랐어요. 썰렁하더라고요. 이런 곳인가 했어요. 제작년과 작년에 산곡동 무지개프로젝트를 통해 조금씩 벽화 작업을 했죠. 올해는 청천동 풍해

주택에서 했어요. 이 동네엔 아이들이 없답니다. 바로 옆이 산곡초등학교이긴 한데 아이들은 멀리서 와요. 권역이 커서 좀 더 먼 곳에서 오는 거죠. 가끔 엄마들이 제 작업실에 들어와서는 학원이나고 물어요. 그래서 아이들 파하는 시간까지 간단한 미술 프로그램을 할까 고민 중이에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다리는 중간 시간에. **지금 산곡동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여기 좋아요. 제 화실이 있잖아요! 창고도 여기 있고. 내 근거지, 내 아지트죠. 모든 출발점은 여기예요. **회사 다니시다가 화가를 하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원래 2002년도에 공공미술로 나서겠다고 했다가 집 반대가 심해서 늦추다,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 2009년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애들은 대학생이고 돈도 많이 필요할 때인데 아내가 화를 내면서도 ‘알아서 해!’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그만뒀어요. 그 전에는 관리사무소 전기실에서 계장으로 일했어요. 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미술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밥벌이가 막일 밖에 없었거든요. 막일 중에 전기공사 일을 했었는데 전기일로 취직하기에는 나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고졸이라고 하고 들어갔어요. 대졸이라고 하면 아파트는 위장 취업 아니야 문던 시절이었거든요. 제 본업이 아니었지만 아파트 전기실 한 곳에서 15년이나 있었어요. 15년 동안 아파트를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사 가고, 이사 오는 걸 다 보게 되죠. 나무도 감, 살구, 매실 등 다 보여요. 그래서 일할 때 작은 스케치북을 가지고 현장 스케치를 벤치에 앉아 그리곤 했었죠. 그러다 거리의 미술 활동을 97년도부터 시작했던 거 같아요. 공공근로 벽화사업은 98년도부터 생겼고요. 그때 했던 여수, 전북(부안공원)작업들이 모범사례

가 되면서 99년도에 전국적으로 벽화가 생기게 되었죠. 부평에서는 몇 달밖에 하지 못했어요. 미추홀구에서도 벽화작업을 했었는데, 당시에 미대 휴학생 모아서 공공근로 하루 29,000원, 식비 3,000원 해서 32,000원에 공공근로 작업으로 거리의 미술 작업을 함께 하게 되었죠. 그게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그러다 2002년도에는 벽화사업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벽화작업에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에나멜페인트로 벽화를 그리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벽화강좌를 열게 되었어요. 벽화전시도 하고 벽화제작강의도 하게 된 거죠. **화가님의 산곡동 활동도 기대됩니다.** 청천3지구의 개발이 취소되어서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 작업에 참여하고 싶더라고요. 청천동 ‘맑은 내 주민모임’과 함께 풍해주택 벽화를 올해 했어요. 그 아래쪽도 하고요. 이 동네도 개발이 되기

는 힘든 지역이니 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벽화작업을 하는 거죠.

—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화실 주변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맛집이 있나요? 네, 세 군데 있어요. 일단은 ‘덕화원’(중화요리), ‘정아식당’(닭볶음탕), ‘골목집’(백반)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골목집은 9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이후엔 인적이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꼭 가보세요! 오늘 가 보세요!(웃음)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부평예술인 디렉토리 작업) 참 좋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 유광식 (2019.9)



#미술작가 이진우#

인천민족미술인협회, FEEL 展, 수요사생회 회원, 거미화실 운영
2019 황매미술제 <평화로 날다> / 전시 <고흥 연작> / 전시 <열우물 연작 - 안녕?>
2018 전시 <이진우의 풍경>
2017 전시 <열우물 연가>



그림 그리는 카페를 운영하는 동네문화의 등불, 동양화가 맹가영

에스러운 산곡동 어느 골목에 가면 걸보기에는 평범한 카페 같지만, 지하 공간에서 미술 수업이 열리는 그림 그리는 카페 '65°C'가 있다. 수업이 없을 때도 손님들이 자유롭게 카페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 멋진 공간이다.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동양화가 맹가영 작가를 만나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동양화가로 활동하며 그림 그리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맹가영 작가님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맹가영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초, 중, 고 까지는 고향인 인천에서 공부를 했고, 동덕여대로 진학을 하면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는 인천예고를 나왔는데 전공 선택을 할 때 동양화를 선택했죠. 대학교 1학년 때도 회화과에서 통합으로 미술교육을 받았지만 이후 전공 작업을 해서 졸업전시를 할 때도 동양화로 전시

를 했어요. 동양화가 제일 재미있어서 계속 동양화를 쪽 하게 된 것 같아요. 올해 6월에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 있는 가온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는데, 당시 발표한 작품들은 졸업전시 때부터 이어온 작업이었던 거죠. **학생 때부터 이어 온 작업이라 내용이 궁금하네요.** 그런데 첫 개인전을 고향인 인천에서 하셨네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의 전시 기획 공모를 보고 기획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했고 공모가 당선되어 첫 개인전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카페를 시작하고는 엄두가 안 나서 작업을 하기 힘들었는데 전시가 잡히자 저도 모르게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카페가 끝난 밤 10시 이후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2시간 정도 자고 아침에 카페 문을 열곤 했죠. **저도 작가님 작품을 봤는데 독특한 먹색이 인상 깊었어요.** 제 작업은 먹 수묵 작업이에요. 소금을 이용해 삼첩기법으로 무늬를 만들어서 제가 원하는 부분만 채택해서 사용하는 거죠. 처음에는 시를 보고 영감을 얻었고, 점차 그 의미를 확장시켰어요. 박노해 시인의 〈인다라의 구슬〉이라는 시의 의미가 제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보이지 않고 만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작업이 시작되었고 저는 그 세계관을 관념 산수화로 풀어봤어요. 제 작품의 풍경을 보고 사람들이 어디에서 본 산 같다고 많이 얘기해요. 하지만 제가 사진을 보고 작업한 것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들을 스케치하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작업을 한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관념 산수화이지만 전시기간 중 사람들이 여러 장소를 유추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해석의 여지가 있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죠. 산수화 자체도 관념 적이죠?** 맞아요. 동양화는 서양화와

관점이 다르죠. 산과 산 사이도 가려진 것이 아니라 넘나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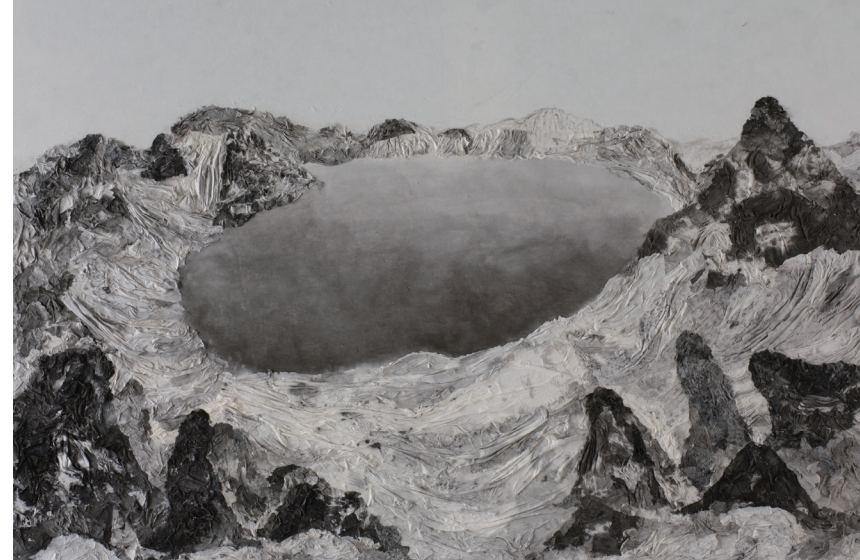
첫 번째 개인전에 대해서는 좀 있다 얘기하기로 하고 카페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그림 수업도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용했던 작업실이 있었어요. 작업실을 옮길 때 사실 카페 생각은 없었는데 2017년 어머니의 권유로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고, 미술 수업도 전에 수업을 했던 분들이 찾아오시면서 지하 공간까지 확장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본격적인 미술 수업공간을 만들게 되었죠. 전에 서울에서 미술 수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커피를 사가지고 오셔서 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그림 그리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모습이 지금의 카페 공간에서 그려지니 좋네요.** 네, 카페가 열려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와서 그림을 그려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재료도 준비해두었어요. 지금은 부평구 평생학습관과 관계를 맺으면서 평생학습관 미술수업을 카페 공간에서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수업을 하다 보니 지하공간에서 물감 냄새가 좀 나기도 하는데 그 냄새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동생분도 미술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같은 전공이니 의지가 되겠네요?** 올해 학교를 졸업해서 앞으로는 일을 함께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집은 미술 쪽 전공자 분들이 많으세요. 삼촌도 사진을 하셨고 엄마는 공예를, 이모는 패션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는 분위기였어요. **그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을 시작하게 되었겠네요?** 네, 아무래도 집에 장난감이 있듯 미술

도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미술을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동생도 미술을 전공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따로 기획해주신 분이 없어서 제가 작품 사진을 촬영하고 엽서도 인쇄해야 했는데 다행히 삼촌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자연스럽게 작가님이 미술을 전공하게 된 동기를 알게 되었고 지난 전시 얘기로 넘어왔네요. 첫 개인전인 <있다>에서 기억에 남는 작품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사람들이 반응을 많이 보인 작품은 백두산과 형태가 유사한 종이가 두겹게 붙여진 작품이었어요. 이번 전시에서 유일했던 컬러 작품도 작지만 좋아하셨죠. 저는 이번 전시에서 어떤 작품을 제일 좋다고 꼽기가 어려워요. 작품 제목들도 전시명과 같은 <있다>였어요. **보통 작품 제목이 다 다른데 독특하네요? 나중에 헛갈리지 않으시겠어요?** 네, 나중에는 부재를 달 생각이예요. 제 작품들이 따로 떨어져있지만 다 이어지는 풍경처럼 보이기도 하죠. 독립된 개체의 작품들이지만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는 의미로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전시 제목이 <있다>인 이유는 작품 제목이기도 했지만, 관객과 작품이 이어진다는 의미기도 해요. 당시에 체험 부스도 운영했어요. 사람들도 종이의 질감을 느끼고 붙여보며 체험할 수 있게 진행했어요. 전시 끝나고 완성된 모습을 보니 나름의 큰 작품이 완성된 것 같았죠. 개인전시가 끝나고 그때 만난 인연이 연결되어 제물포 갤러리에서 작품전시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천지역에 예술가분들과도 교류하고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죠. **작가님께 올해가 전환적인 해인 것 같네요. 맞아요.** 제가 첫 개인전을 한 해이니깐요. 끝나고 나니 아쉬운 점도 있지만 해냈다는데 의의를 두었어요. 이번 개인전을 토대로 계속 예술 활동을 해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올해 하반기 계획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번 개인전을 해보니까 쉬운 것이 아님을 느꼈어요. 많은 체력을 쓴 것 같아서 남은 해는 충전의 시간을 갖고 내년엔 새로운 작품 준비와 전시를 계획하고 있어요. 앞으로 작품을 꾸준히 하면서 전시를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강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최근에는 노인센터에서 어르신 강의를 해봤어요.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다양한 연령대의 수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에 문화예술교육사 공부를 할 때도 미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카페를 찾으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일상에서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방법도 고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함께 전시를 보러가기도 하고,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강의를 함께 듣기도 해요. 사람들과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산곡동에 자리한 그림그리는 카페가 지역분들에게 문화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네요. 부평에 자리 잡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 익숙한 동네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동네가 제가 잘 아는 곳이라서 좋았어요. 다른 지역에 카페 자리를 잡으려면 그 곳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해야 했을 거예요. 또 다른 이유로 전에는 서울에서 미술 강의를 하곤 했는데, 인천에는 그런 공간이 거의 없음을 느꼈어요. 동네에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인천에 예술수업을 활성화 시켜보자 생각했던 거죠. 카페와 수업을 운영하면서 만나게 된 동창들도 있고 수업을 하면서 지역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서 동네에 소속이 된 것 같아요. 소통의 기회가 생기며 골목 축제도 참여하게 되었죠. **올해 처음 골목 축제에 참여하신 건가요?** 원래는 축제가 골목 안까지 진행되지 않았는데 카페가 생긴 것을 알고 이번에는 함께하자고 먼저 제안해주셨어요. 그래서 수강생분들 작품도 축제에서 전시하게 되었어요. **지역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이나 희망 사항이 있으신가요?** 이번 인터뷰를 기회로 부평에 계신 예술인들을 알게 되면 함께 새로운 기획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인연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역과 관련된 작업을 하고 싶어요. 작업을 하며 생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전시를 하거나 예술 활동을 할 때, 조금 수월할 수 있도록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내려주신 커피가 참 맛있는데 원래 바리스타에 특별한 관심이 있으셨나요?** 커피는 원래 좋아했어요. 처음 공간을 시작하면서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 입맛에도 맞고 안정적인 프랜차이즈를 선택했어요. 본사에서 베이킹을 배워 카페에서 직접 디저트를 만들기도 해요. **카페를 아지트로 삼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작가님이 동네에서 아지트로 꼽는 곳이 있나요?** 옆에 있는 부영공원이에요. 전보다 많이 개방이 되어서 산책하기 좋아요. 흔들의자도 생기고 텃밭도 있어요. 여러 시설이 들어오고 있어서 점점 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공원에서 그림 수업도 해볼 생각이예요. **지역에 맹가영 작가님과 같은 분들이 더 생겨나면 동네가 문화로 더 풍성해질 것 같네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 고진이 (2019.9)

#동양화가 맹가영#

2019 맹가영 개인전 <있다>, 인천학생교육 문화회관 '가온 갤러리'
2015 펍크아트페어
2014 홍미연아트페스티벌



여운이 있는 채색화 작업실 ‘그림나래’ 한국화가 정 나 래

나직한 건물이 모여 있는 ‘청리단길’ 카페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면 작고 특색 있는 공방들이 저마다의 빛을 내며 진주처럼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가을을 닮은 색으로 궁금증을 자아내는 채색화 화실 ‘그림나래’ 역시 그 진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채색화 연구소 ‘그림나래’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화가 정 나래라고 합니다. 작업실 이름을 쉽게 부르기 위해 ‘그림나래’라고 지었어요. 나이가 더 들면 ‘정나래 채색화 연구소’라는 이름으

로 바꿀 생각이에요.(웃음) 저는 한국화 중에서도 채색화를 전공했습니다. 석사도 같은 전공을 한 뒤 논문을 쓰고 작가 활동을 하다가 잠시 잡지회사에서 미술 기사와 기획을 같이했었어요. 그러다 다시 작가 활동

을 시작한지는 3년 정도 되었네요.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다시 활동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저를 지도해주시던 교수님께서 잡지사 일을 소개해주셨는데 힘들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직장생활을 했었죠. 그러다 어느 날 그 지도교수님께서 이제 작업을 할 때가 되었다며 모교에 대학 강의를 할 기회를 주셨어요. 때마침 그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작업에 집중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집에서 작업을 하고, 학교나 병원 같은 곳에서 강의를 하며 돌아다녔어요. 외부로 돌아다니며 수업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당연히 한 곳에 자리 잡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제 재료비 정도 벌 수 있는 공간을 열고 싶어졌어요. 이왕에 작업실을 여는 김에 좀 예쁘게 꾸미고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곳에 그림나래를 꾸리게 되었어요. **공간이 정말 아기자기하고 예쁘네요. 벽에 전시되어있는 그림은 수강생 작품인가요?** 네, 사실 채색화가 과정이 좀 까다로워요. 그 카테고리 안의 민화는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민화 위주로 수업하고 있어요. **한지에 색을 칠하면 색이 번질 것 같은데 번지지 않고 정교하네요?** 채색 전에 한지에 번지지 않도록 ‘아교반수’라는 밀 작업을 미리 해요. 채색화는 색을 쌓아서 올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밑에는 한지여도 아교와 안료가 섞이면서 평평해져 세밀한 작업이 가능해요. 그 외에 광목이나 비단에도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못 그리셔도 민화는 본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채색을 할 수 있어요.

—

채색화는 차분한 성격의 작업인 것 같네요. 얼마 전에 전시를 끝내셨죠? 근황 소식도

알려주세요. 8월쯤에는 그림나래 1주년 전시를 했어요. 삼청동 일호 갤러리에서 단체전을 해서 토요일에는 간단한 다과도 나누고 친지, 가족들과 그림을 보고 대화 나누는 자리를 가졌어요. 그 전시가 끝나고 바로 마니프와 아트서울이 함께 주관하는 아트페어에서 부스 개인전을 했어요. 인물화 위주의 작은 작품들 13점 정도 전시했어요. **제가 작가님 블로그를 찾아보니 건물작업이 있던데요?** 네, 대학원을 다닐 때는 건물 위주의 큰 작업을 했었죠. 다시 작업을 시작하면서 공부를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싶었어요. 논문을 쓰면서 조선시대 초상화에 관심이 생겼고 그걸 현대적으로 좀 바꿔서 저만의 기법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학생 때는 자화상 위주의 작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주변 사람들을 그리며 공부하는 심정으로 작업을 했어요. 제가 아직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서 작품 색이 뚜렷한 것 보다는 다양하게 작업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세밀한 인물화와 오래된 건물작업 두 가지로 나눠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진보다 실제 작품 색이 훨씬 예쁘네요. 동양화의 색이 사진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동양화의 색은 사진에 잘 안 담겨요. 제 나름대로 동양화의 색은 여운이 있는 색이라고 생각해요. 황토색을 넣는다고 하면 황토색을 먼저 칠하고 녹색을 칠해서 묘한 여운이 있는 색을 만드는데 카메라에는 잘 안 담겨서 아쉬워요. **미술에 여러 전공이 있는데 어떻게 동양화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입시를 할 때는 성적이 맞춰서 대학에 보내는 편이어서 동양화과를 가게 되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다양한 미술 작업을 해봤는데 다행히 동양화가 잘 맞았어요. 성적에 맞춰 대학에 간 것이 신의 한 수였던 거죠. 2학년 때부터는 전공과목을 즐겁게 들

었어요.

—

그림나라 동양화 화실을 부평에 열게 된 동기가 있나요? 인천 안에서 다니기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부천이나 구월동 쪽도 알아봤었어요. 그러다 청리단길에 여러 카페와 공방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넓지 않아도 이 공간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택배 회사였던 곳을 셀프 인테리어로 공간을 꾸리게 되었어요. **덕분에 이 골목이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맞아요. 작업실 열고 1년 사이에 캘리그래피 공방과 도자기 공방이 들어오고 카페도 더 들어왔죠. 운이 좋았어요. **이웃 공방들과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세요.** 맞은편 도예 공방 ‘Huddling’은 도예 작가 전소망 선생님 공간이에요. 귀여운 캐릭터 위주의 작업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이 만든 고양이나 펭귄 캐릭터로 작업도 하시고, 공방에서 도자기 수업도 하세요. 지금 그림나라에서 쓰는 울퉁불퉁한 팔레트도 ‘Huddling’에서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네요!** 좀 이따 인근에 있는 유리공방 ‘온리’



도 방문할 계획인데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곳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니 유리창에 있는 스테인드글라스도 ‘온리’에서 만든 거네요. 그 외에 ‘유어 데일리’라는 디자인 문구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책도 디자인하시고 문구류를 만드는 1인 기업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쇼룸을 예쁘고 담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림나라 앞 블록에 위치한 ‘새날캘리그래피’라는 멋진 공방이 있어요, 마음으로 글씨를 쓴다는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글로 형상화 하는 ‘마음의 소리’를 쓰는 캘리그래피 공방이죠. 여러 곳에 외부 강의도 많이 나가신다고 들었어요. 그 외에 가죽 공방도 있고 손수 쿠키를 만드는 카페도 많아요. **바로 앞에 도자기 공방이 있으니 의지가 되겠네요?** 네, 의지가 많이 되요. 밤늦게 작업할 때는 서로 인사도 나누곤 해요. **주로 예술 활동을 하는 곳은 어디신가요? 지역에서의 활동도 있으셨나요?** 전시는 주로 서울에서 했어요. 아직 인천에서는 한 번도 전시를 안 해봤어요. 조금 문화적으로 더딘 것 같아요. 학교가 수원이어서 수원과의 왕래가 좀 있었어요. **지금까지 활동이 없었는데 부평에서 희망하는 활동이 있으실까요?** 오래 공방을 다닌 수강생 분들의 작품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어요. 가을이나 봄에 청리단길 화단에서 각 공방의 플리마켓을 열어서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도 하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수강생 분들에게도 동기가 생기고 동네에 예술 활동을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공방 선생님과 얘기를 나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이라 실천이 쉽지 않아 무산되고는 했어요.



—

정말 많은 예술인들이 동네에 모이니만큼 그런 축제를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가활동도 하고 공간을 운영하시느라 무척 바쁘실 것 같은데요.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이 있을까요? 작업에 대한 열망이 항상 컸었어요. 상황이 맞지 않아서 더했는데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결혼하면서 남편의 지지도 컸죠. 제가 그림 그릴 때 눈빛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작업을 할 수 있게 배려해줬어요. 학교 선배들, 교수님도 ‘작업 해야지’ 응원을 해주셨고 가족들의 응원도 있었죠. 주변 분들의 많은 응원으로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많은 응원으로 시작했지만 작가로서 혹은 작업실 운영의 고충은 없으세요?** 어릴 때부터 화가가 꿈이었고 그림을 그리는 일이 싫증나거나 싫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직업이 되면서 좋아하는 일이 스트레

스가 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림을 그리며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그림으로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이러니했죠. 남들 보기에 예쁜 공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모르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 분들이 동네에 있는 것이 더 힘이 되겠네요?** 네, 이 장소에서 위로를 많이 받고 서로 상처받고 힘든 점을 토로하기도 해요. 정기적으로 모여 과일을 나눠 먹기도 하죠. **그 외에 공방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신가요?** 서양화를 하셨거나 디자인 하셨던 분들도 종종 수강생으로 오세요. 취미로 오셔서 스트레스를 풀고 가시고는 해요. 특별히 기억 나는 분은, 암으로 몸이 안 좋으셨는데도 그림을 그리는 동안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 고맙다고 하셨던 분이 계세요. 제가 외부강의로 암센터에서 수업을 하며 만난 분인데 지금의 그림나라를 만들게끔 많은 응원을 주셨어요. 그림나라가 부평에 있다 보니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기억에 남아요. **작업실이 아지트겠지만 작가님의 동네 아지트가 있다면 어디인가요?** 이 공방 자체가 아지트라서 주로 공방에서 만나지만 ‘모니모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고양이 발걸음’에 가고는 해요. 원래 카페 ‘5월 19일’이었는데 길고양이 컨셉으로 바꿨어요. 거기 조리봉 미숫가루가 맛있죠. 그렇게 두 곳을 많이 가요.

인터뷰 : 고진이 (2019.10)

#한국화가 정나라#

개인전 5회, 해외 및 국내 아트페어 3회, 단체전 30여회
경기대학교 한국화전공 강사 역임, 한국미술사가감정협회 감정팀 역임
경기대학교 한국화학과, 동대학원 졸업



삶과 사람에 대한 작업을 하는 현대미술 작가 공 지 선

가을이 다가오는 9월 초, 굴포천 주변 카페에서 공지선 작가를 만났다. 화사한 이미지와 반전되는 삶과 저항이 담긴 작품들에 대한 얘기를 차분히 그리고 힘 있게 해준 덕분에 인터뷰를 진행하며 현대미술 작품들의 이야기 속에 몰입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현대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공지선 작가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천에서 태어나서 계속 자란 작가입니다. 초본을 떼어보면 인천을 벗어나지 않아요. 부평과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가좌동에서 살

고 있고 작업과 작가 활동도 인천에서 하고 있어요. 처음에 작가님 이름이 ‘허공을 가로지르는 선’이란 뜻인가 추측했었는데 알고 보니 역시 ‘공지선’이 작가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작가명을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있

으신가요? 원래 이름은 박지선이에요. 작가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게 된 이름이 공지선입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성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빠보다는 엄마를 닮았다고 생각하고, 공지선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사용하게 되었어요. 성으로 쓴 ‘곡부공’은 한문으로 쓰면 ‘구멍 공(孔)’이에요. 그 뜻도 좋았고요. **작가님과 잘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지난 전시에서 그림이나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발표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작가가 되기로 마음먹으셨나요?** 원래 전공도 실내건축이었고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꿈은 화가였어요.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 했지만 ‘장녀 콤플렉스’가 있어서 스스로 포기하고 실내건축과로 진학을 한 거죠. 하지만 학교를 다닐 상황이 아니어서 휴학계를 내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사회에서 도구로 쓰이다 보니 돈은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만들면서 하고 싶은 말들은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자연히 어릴 때 위축 되서 포기했던 것을 다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명확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복학했던 학교를 이틀 만에 자퇴를 하고 홍대미술교육원에서 공부를 시작하며 일을 병행했어요.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단체전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인천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첫 개인전을 열게 되었어요.

—

그렇게 열게 된 전시가 지난해 ‘플레이스 맥’에서 열렸던 〈YouYouYou!〉전시군요! 전시 때 발표하셨던 작품들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제가 당시에 발표했던 유화 작품인 〈You〉 시리즈는 사람들이 모두 캔버스 바닥

부분에 무기력하게 누워있어요. 인물이 실물 사이즈로 그려진 〈You〉 작품들은 2층 전시실에 공간을 둘러싸는 형식으로 전시되었죠. 우리가 집에 가만히 누워있을 때도 머릿속으로는 살아가기 위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무기력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눈빛으로 저항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빈 공간이 잔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면 위쪽은 밝은 색으로 칠해두었어요. 1층에는 〈남겨진 문제들〉이라는 작품을 설치했는데 종교단체에서 버려지는 폐양초들을 녹여 알갱이로 만들어 108 염주를 만들었어요. 종교 단체에서 가장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가 양초예요. 다행히 저는 삼촌이 스님이셔서 폐 양초를 수집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염원들은 초가 타는 것처럼 사라지잖아요. 그런 지속적인 허망함을 블랙 코미디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108배를 하며 염주가 제작되는 과정을 원테이크로 촬영하기도 했어요. 종교에서 하는 행위들이 육체노동적인 행위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영상의 제목도 〈재활용〉이라고 지었어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염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데, 대부분의 염원이 이뤄지진 않다 보니 지속적인 허망함이 있잖아요. 그 허망함이 절에서 쓰고 남은 찻농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의 시각적인 이야기 혹은 삶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한 작업이 ‘스킨 작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새겨지는 흔적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야기가 피부에 새겨진다고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에 남은 흉터에 관심을 갖고, 보통 거기에 대한 기억을 선명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자서전을 쓰지 못하는데, 피부에 자서를 새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거기서 나온 작

업이 피부 스탠드와 스티커 작업이에요. 사람들이 이 스티커를 구매할 수 있는데 QR 코드를 찍으면 그 스티커와 관련된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시각적인 스티커를 보고 구매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소유할 수 있는 작업이죠. 그 외에도 젠더에 대한 얘기를 한 인형 작업과 혈육에 대한 초상 작업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개인전에서 많은 이야기와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네요. 앞으로의 전시가 궁금해지는데 다음 전시 소식이 있나요?** 11월에 서구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가좌동에 있는 ‘코스모40’에서 개인전을 해요. <몸은 생에 쓰이고 우리는 삶을 몸에 쓴다. -The body is used for life, and the life is engraved on the body.>라는 전시명인데,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해요. 아직은 준비 중이지만 예전의 이야기들을 확장해보려고 해요. 스티커 작업과 스탠드 작업, 그리고 염주 알은 좀 더 만들어보려 해요.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염주를 꿰 수 있게 할 계획이에요. 그 외에 회화작품인 <YOU> 시리즈와 신작인 하품하는 얼굴을 그린 <배부른 소리> 시리즈도 함께 전시가 돼요. 하품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잡아 봤는데, 잘 보면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보통 우리가 하품 할 때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산소가 모자랄 때잖아요. 저는 그 행위가 순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저항적인 행위로 생각했어요. 하품 자체를 표현했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배부른 소리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는 것 자체가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작품이 의미가 있겠지만 작가님이 대표작이라고 꼽을 수 있는 작업이 있나요?** 스티커 작품이요. 판매가 되면서 완성이 되는 작품이에요. 스티커라는 소재 자체가 어딘가를 가릴 수 있잖아요.



—

작가님이란 대화를 하다 보니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네, 어릴 때부터 책 사는 것을 좋아해서, 책은 많이 읽는 편이에요.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요. 저는 문학을 많이 읽어요. 우리나라 문학상 묶음을 좋아해서 중장 소설들을 다양하게 읽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만난 좋은 분들 중에 말투에 깊이가 있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 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며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그럼에도 계속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학교를 자퇴했던 것이죠. 제가 만약에 그대로 학교를 졸업했다면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취업해서 ‘어릴 적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를 회상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학교를 쉬고 일을 하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처럼 작업을 하고 싶다는 확고함이 생겼어요. **문득 드는 질문으로, 작가님이 어릴 때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것을 그리셨나요?** 생각해보니 그때도 사람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머릿속에 있는 사람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표정이나 제가 어디서 본 듯한 이미지들을 그렸죠.

—

작가님은 계속 인천에서 사셨고 작품 활동도 지역에서 하고 계시는데, 부평과의 인연이 어떻게 되나요? 학창시절 친구들과 주로 버스를 타고 부평에 놀러 갔어요. 서울까지 가기는 멀었으니까요. 그리고 삼촌네 절이 부평아트센터 옆에 있는 ‘불정사’였죠. 요즘은 절에 일주일에 한번 씩 일하러 가요. 절에서 진행되는 행사 진행을 도와드리고 사진 촬영 등을 해요. **그리고 보니 절을 오가면서 받은 영향이 작품에서 보이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 부평과 왕래가 많으신데 혹시 지역에서 희망하는 일이 있나요?** 부평에 청년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작업을 하고 싶어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예술인들과 교류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있다 해도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예술가들 사이에 연계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각 예술가들이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있거나, 작업하며 필요한 것들을 지역의 공방들과도 연계해 만들면 상부상조라고 생각해요. **작가님처럼 부평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왕래하시는 예술가 분들 중에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청년예술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대추자매’팀이요. 도시 재개발에 대한 작업을 하시는 예술인 팀이에요. ‘사사로운 대중의 추억’에 대한 작업을 하는데 줄여서 ‘대추자매’라고 하셨어요. 일러스트 작업과 사진 작업을 하는 김차경

작가님과 서울에 사는 시티가이드 작가님으로 구성되어있어요. 최근에 저희 집 주변에 철거되는 ‘라이프빌라’라는 곳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는 작업을 하셨어요. 이후 가좌동 코스모 40에서 <앓고, 잊고, 읽다.>라는 전시를 진행하셨죠. **지역에 사라져가는 장소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죠. 작가님이 부평에 자주 가시는 아지트나 좋아하는 길이 있으신가요?** 걷는 것을 좋아해서 송내역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철길이 있어요. 그 옆 작은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해요.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 않고 꽃도 심어놨는데 어릴 때는 그 철길에 기차가 다니는 것을 본 기억이 나요.

인터뷰 : 고진이 (2019.10)



#현대미술작가 공지선#

2019 개인전 <The body is used for life, and the life is engraved on the body.> 코스모40
개인전 <YAWN> CICA미술관
2018 개인전 <YouYouYou!> 플레이스막 인천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색으로 그려내는 서양화가 조규창

인터뷰 전 조규창 작가의 그림을 먼저 찾아봤다. 추상화 같지만 자세히 보면 따뜻한 풍경이 보이는 작가의 그림을 보고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림을 그리는지 궁금해졌다. 미로 찾기 같았던 부평작업실로 찾아가 화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인제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로 재직하며 중견 서양화가로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조규창 선생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25년째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제고등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35세

에 미술 교사를 하러 인천에 왔어요. 이전에는 강남에서 입시 미술학원을 하면서 대학교 강의도 나가고, 학원에서 후배들 지도하곤 했었죠. 개인전을 23회나 하셨던데 아이들을 가르치며 틈틈이 전시도 하신 건가요?

어릴 때부터 화가가 꿈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입시 미술을 하면서도 개인전을 했어요. 미술교사는 수업시간 외에 자투리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학교생활은 학교생활 대로할 수 있었죠.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네요. 저도 일하며 작업을 해봤지만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탄력이 붙죠. 개인전을 23번이나 하면서 느낀 것은 예술작업에는 정답이 없기에 그 이상을 찾아 질주하는 과정이 아름답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하는 거죠. **서양화가로써 미술 선생님이로써 두 가지 역할을 하며 미술에 몸을 담고 계신데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학교에 몸을 담는다는 것은, 작품활동만 해서는 생존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중앙대학교에 입학할 때 40명이 입학했지만 지금도 작업하는 사람은 저랑 한두 명 밖에 없어요. 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죠.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도 생기다 보니 안정적인 것이 필요했어요. 그러다보니 미술 교사를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언제 일을 관두고 그림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올해 59세인데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게 쪼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 해보는 거죠.

미술을 하는 후배 입장에서 존경심이 드네요. 작가님의 작품소개 부탁드립니다. 추상과 구상 사이의 관계에 대해 대학교 때부터 고민했어요. 대학교 때 여러 작업을 했지만 하

나에 초점을 잡아야 했어요. 고민하다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잡은 거죠.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형태 혹은 이미지의 느낌을 색으로 표현하고, 형태는 사실적인 않지만 흔적이 보이도록 표현을 했어요. 누구를 만나는지도 중요한데 제가 대학교 때 만났던 황유역 교수님에게 그림을 대하는 자세와 같은 정신교육을 받았죠. 그림은 말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작을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뭔가를 해야 한다. 감동을 주기 위한 창의적인 생각, 꾸준한 재료연구 같은 것을 많이 교육하셨어요. 은사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직도 개인전 할 때마다 교수님들께 감사를 표현하죠. **선생님 작품이 언뜻 보면 추상화 같지만 비행기가 날아가는 구상적인 요소가 보여서 풍경처럼도 느껴지고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어린 시절 기억의 풍경이에요. 고향의 과수원 나무, 동네, 집, 언덕들이 그림 속에 추상적으로 녹아있어요. 어린 시절 하늘에 지나가는 비행기를 볼 때 느꼈던 신기함 같은 것이죠. 그런 동심의 세계를 함께 표현한 거예요. 어릴 때 아침에 기와집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까만 연기가 나요. 그런 순수했던 흔적도 그려놓은 그림도 있어요. 화면 속에서 구성 부분도 신경을 써요. 화면의 면 구성을 어떻게 독특하게 할 것인가 생각하며 화면을 나누기도 하고 콜라주 기법을 쓰기도 하죠.

선생님이 경험하셨던 시골의 골목, 풍경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인천의 풍경도 그리셨나요? 인천에 온지 25년이나 되다 보니 인천



의 풍경들도 그림으로 그렸죠. 소래포구의 새벽 바다도 그렸고, 포구에 정박된 배나 수인선도 풍경에 넣어봤어요. 서해는 해 질 무렵에 신비로운 색이 하늘에 드리죠,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도 그림으로 그렸어요. 처음가본 피아노 연주회에선 전혀 새로운 놀람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런 경험들도 모두 그림으로 표현했죠. **선생님이 사는 지역이 작품이 되네요. 또 다른 지역 그림도 있나요?** 제주도에 한 달 정도 가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 때 제주도의 바람, 나무, 바다가 함께하는 자연을 그림에 표현했어요. 지역의 돌담의 이미지나 등대도 살짝 그려 놓고요. **그림 속에서 글자나 숫자도 보이네요?** 시간의 흐름을 숫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넣었어요. 혹은 나만의 알 수 있는 기호로도 등장하기도 하죠. 어릴 적 낙서와 같은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림들을 보다 보니 비행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비행기를 보면 신기하면서 무궁무진한 상상을 일으키죠. 자유스럽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는 존재가 비행기였어요. **시골풍경에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좋네요. 소재를 주로 일상에서 가져오는 건가요?** 그림의 소재는 주로 만남에서 가져와요. 오늘 의 만남도 기다렸어요. 관계로 인해 인생의 많은 것이 바뀌잖아요. 제가 교수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은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들의 이야기>작품을 보면서 누구나 공감과 마음속에 따뜻함을 느끼길 바라요. 제 생각에

작품은 한두 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미술 선생님에게 그림을 배우는 아이들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에 남는 제자들도 있겠네요? 제자 중에 미대로 진학한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 강의를 이어 준 제자도 있어요. 지금도 개인전 할 때 디스플레이를 도와주거나 결혼식 주례를 부탁 했던 제자들이 기억에 남아요. **전시를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황 소식이나 예정된 전시 소식이 있으신가요?** 작년에 큰 개인전을 했고 올해는 중국에서 작품 12점으로 부스전시를 했어요. 최근에 3인 단체전으로 <3인3색전>을 로쉬갤러리에서 열었죠. 내년에는 제대로 전시를 준비해서 도록도 만들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

선생님은 활동지역이 광범위한 것 같네요, 주된 활동지역은 어디인가요? 서울이죠. 사람도 전시공간도 많으니까요. **오랜 시간 작가로서 활동하시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전환점과 원동력은 어머니예요. 1회 개인전부터 23회까지 오프닝 때 제일 먼저 어머니를 모시고 소개를 해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그림 그릴 수 있는 동기도 주시거든요. 정말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늘 초대해요. 덕분에 우리들의 삶의 언저리에 사랑이 담겨져 있죠. **선생님 그림의 색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있었네요.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근무**

하시면서 인천에 오셨는데 부평에 자리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살고 있는 곳이 산곡동이에요. 작업실도 같은 동네인 부평이구요. 물론 더 넓으면 좋겠지만 지금의 자리가 조용하고 작업하기가 좋아요. **부평에서의 작품 활동도 있으셨는지요?** 작년에 부평구문화재단의 부평옥션 화이트 세일에 참여했어요. 그 외에도 오래전에 부평구문화재단 전시에도 참여했었죠. 학교가 남동구에 있어서 지역에서 회원전을 꾸준히 해왔어요. **혹시 앞으로 부평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이나 작업이 있으신가요?** 부평도 엄청나게 뭔가가 바뀌는 동네잖아요. 예전 공간들이 사라지는 모습에서 오는 향수나 사라지고 있는 동네의 삶의 모습에 마음이 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남겨야하지 않나 싶어요. **부평을 색으로 표현하신다면 주된 메인 색은 어떻게 될까요?** 부평의 야경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군 부대 바로 옆에 살아서 부영공원을 매일 도는데 그곳이 너무 좋아요. 부평공원보다는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공원이지요. 그 공간을 생각하면 봄, 연두 빛이 생각이 나요. 좋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 지역에서 살 텐데, 내 마당이 없어도 아파트 바로 앞에 공원이 다 내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부자잖아요. **부평구문화재단에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지역에 있는 많은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전시 기획이 되고, 활성화 되어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 좋겠어요. 전시를 할 때 작가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소량의 활동비라도 있으면 더욱 좋겠죠.

#서양화가 조규창#

현 한국미협회원, 구상전 부이사장, 환경미술협회 부이사장
개인전 23회, 단체전 다수,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역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혹시 부평에서 추천하고 싶은 예술인이나 단체가 있으신가요? 같이 작업실을 쓰는 정문희 선생님은 개인전시도 여러 번하시고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예요. **부평에 오래 사셨으니까 동네에 아지트처럼 자주 가는 곳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주로 부영공원에 가서 운동을 해요. 그리고 ‘개코 막걸리’나 부평공원 앞에 ‘할매 추어탕집’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누가 봐도 좋은 작품을 하나 해낸다면 작가로서 인생을 잘 산 거라고 생각해요. 100년이 지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이요. 진짜 작가는 에너지를 모두 쏟아서 작품에 해내는 것이죠.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하나를 할까 말까 하니까요. 앞으로 사회의 구조는 점점 복잡해질 텐데 예술인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인터뷰 : 고진이 (2019.10)





도심의 일상을 구하는 전시 기획자 이정은

부평구문화재단의 ‘부평영크리에이티브 2기’에 선정되어 <아워피크닉-레퍼런스> 전시를 열고 있는 이정은 전시 기획자를 만났다. 공원이란 주제를 통해 도시의 여러 다양한 면들을 면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전시였다. 도심과 여가, 공원과 획일화의 개념을 탐구하고 어떻게 시각예술로 전개하는지 들여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학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하고 갤러리에서 잠시 근무를 했었고, 2013년에 경기문화재단 펍택사업추진단에서 시행한 마을 재생 프로젝트에서 미술파트를 담당했었어요. 최근에는 프리랜서로 프로젝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기획을 하게 된 본격적인 계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처음에는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시장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에 공공미술을 접하게 됐는데 바깥공간의 여러 가지 변화하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들, 거기에 맞춰서 작가들이 작업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맥락을 연결시키고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재미있더라고요. 2013년도에 펍택역 광장에서 전시를 했었거든요. 펍택역이 여러 가지 욕망과 목소리가 부딪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맨스가 필요해>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그러고 보니 ‘로맨스’라는 말이 그 공간에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작가 분들에게 로맨스라는 제시어를 주고 나름대로 전시를 해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펍택역 광장하고, 옆에 작은 건물하고 이렇게 6명의 작가가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공공미술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가요?** 2017년에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하게 된 것이 어떤 연결점이 되기는 했죠.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여가를 보내는지에 주목해서 보고, 그걸 시각예술과 접목해서 프로젝트를 전개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콘크리트가 아닌 자연, 식물이나 생물들, 공원이나 녹지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도시에서 생존해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도시의 중요한 한 측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래서 2017년도에 예술가들하고 여행하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여행도 대표적인 여가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가나 여행들도 획일화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전시를 통해서 가져보자는 의미로 여행을 갔어요. 예술가들과 2박3일간 인천의 굴업도 여행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을, 인천문화재단 칠통마당에서 전시를 했어요. **어떤 형태의 전시였는지 궁금합니다.** 제목은 <우리들의 빛나는 여행, 달빛 심포지엄>이었죠. 예를 들면 어떤 작가 분은 거기서 관광객하고 주민 분들하고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보통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색으로만 표현을 해달라 그래서 굴업도의 색을 가지고 나중에 변형해서 작가님이 전시를 하기도 했었어요. 여행을 다녀오면 보통 포토 스팟에서 사진 찍고 맛집 들리고 비슷하잖아요. 예술가들은 어떻게 여행을 하는지 비슷한 지점도 있고, 색다른 지점도 있는데 같이 그렇게 2박3일 보내고, 전시를 했었죠.

—

최근에는 어떤 전시를 기획하셨나요? 도시 연구의 일환으로 공원이란 부분을 좀 다양한 맥락으로 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공원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작가들과 전시와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됐어요. **어떤 전시와 프로젝트인가요?** <아워피크닉-레퍼런스>라는 제목의 전시이구요. 부평구문화재단의 ‘부평영크리에이티브2기’에 선정되서 부평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른 프로젝트는 ‘부천 둘레길 생태 드로잉 프로젝트’라는 건데,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역의 주민들



과 같이 부천의 둘레길을 산책하면서 미술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시를 할 때 작가 분들을 어떻게 섭외를 하시나요?** 작가들의 이전에 했던 작업들을 보고, 그분이 바라보는 시각이랑 이런 것들이 기획의도와 맞으면 섭외를 하죠. 기존에 있는 작업을 전시해달라고 할 때도 있고, 이러이러한 주제로 새롭게 해달라고 요청 드릴 때도 있어요. **자신이 어떤 기획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제 주제 중심이에요. 그런데 전략적이라고 해야 하나, 나의 색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는 있죠. 지금 이 전시도 제 주제긴 하지만 작가들의 시각예술작업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의도이기도 하고요. **이 전시를 부평아트센터에서 하게 된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평영크리에이티브’ 공모가 났어요. 막연하게 공원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주제를 좀 구체화 시킨 것은 공모를 보고 나서죠. 7월에 공모를 보고 짧은 시간에 나름의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웃음) 마감이 7월 말이었고 결정이 8월 중반? 그런데 9월 말에 전시를 오픈했으니 짧은 시간에 쉽지가 않았죠. 9월 27일에 시작해서 10월 24일

까지인데 이번 주면 전시가 끝나요. 한 달이 금방 갔네요. **전시를 한 달 동안 진행 하면서 느낌은 어떠셨어요?** 여기서 전시할 때는 미술관계자들보다는 지역주민이 많이 찾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더 크기는 했어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데 별로 안온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전시를 더 확장해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주제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 생각은 있어요. 이번 전시가 작가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정도였으면, 좀 더 깊게 조사를 하고 확장해서 해 볼 생각은 있어요.

—

전시를 하기 이전에 부평에서 활동을 하신 적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인천에 전반적으로 끈은 두고 있긴 했는데 부평과 특별한 연은 없었죠. 그런데 이번 전시를 계기로 부평 주변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아무래도 제 전시가 공원을 주제로 하다 보니, 주변에 부평공원이 있더라고요. 부평공원이 군부대였던 자리잖아요. 부천에서 했던 생태 드로잉을 연관 지어서 발전시켜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트리로도 좋더라고요. **작업하시는데 전환점이 된 일이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전후 인 것 같아요. 인천아트플랫폼에 있으면 자기 작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내 관심은 뭘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 때 ‘공원이나 여가생활을 프로젝트로 풀어보자’하는 구체적인 지점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나요?** 아니요. 2014년 프로젝트를 하나 참여했는데 그때 했던 게 분당 신도시에서 하는 거였어요. 신도시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회학적 연구글을 써서 제출해야 했어요. 신도시성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근처에 있는 중앙공원이라는 곳이 재밌게 느껴졌어요. 뭔가 텍스트적인 요소들, 시각적인 요소들, 이런 것도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도 있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정자도 있고, 바르게 살자 뭐 이런 걸 써놓은 돌도 있고. 자연의 품에 온 거 같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분당 신도시 개발사』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공원조성계획이 딱 있는 거예요. 저는 공원의 생태가 자연발생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어요. 분당 신도시부터 우리나라가 도시 대규모화가 됐잖아요. 그 때부터 우리나라 공원 정책이나 공원 녹지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본격화 됐더라고요.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의 여가정책도 필요하게 됐고, 뭔가 이렇게 모종의 연결된 지점들이 보였어요. 자연도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관리되고, 그 안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여가도 만들어지고 관리되고, 그러다보니 여가 문화자체도 획일화되고 있고, 이런 뭔가의 흐름들에 대해 글을 썼었죠. 이런 연구나 탐구를 지속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하면서 좀 더 구체화 된 것 같아요. **아트플랫폼에 계시면서 느낀 인천의 인상은 어떠세요?** 부평에 대한 인상도 같이 말씀해주세요. 인천은 넓잖아요. 중구 개항장이 익숙하고요. 제가 인천에 오는 건 일과 관련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주 다니다보니 인천이 참 정겨

워졌어요.(웃음)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었다고 해야 하나, 전혀 모르던 지역이었거든요. 관심 있는 주제와 연계해서 인천의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평은 부평구청과 굴포천역 사이의 맛집들이 있잖아요. 신트리공원 맞은편 쪽에 거기에 몇 군데 가본 데가 있는데 좋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맛집들을 보면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부평에 알고 계신 예술인이나 단체가 있으신가요?** 부평에는 거의 없어요. 아, 미술비평가인 김흥기 씨.(웃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예전 일들도 생각나고 저를 뒤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 조은성 (2019.10)



#전시 기획자 이정은#

미술이론 전공. 전시 및 프로젝트 기획과 비평
2019 '부평영크리에이티브2기' 당선 <아워피닉스-레퍼런스> 부평아트센터
2017 <달빛 심포지엄> 인천
2013 <로맨스가 필요해> 경기 평택

짓다



시인 김민경



미술 비평가 김홍기



작가 김미혜



시인 이경림



작가 양진재



쭈쭈는달팽이도서관



부평 해물탕 골목에서 시를 쓰다. 꿈꾸는 시인 김민경

시인의 <앞치마>란 시를 읽고 해물탕 골목으로 들어서던 길, 정신없는 해물탕 간판들 사이 어딘가 시인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잔잔한 미소가 퍼졌다. 문득 멀게만 느껴졌던 시가 내 일상에 살아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며 해물탕 가게 주인이자 시인과 조금은 특별한 인터뷰를 시작했다.

저희가 만난 예술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뵙고 인터뷰를 부탁드렸던 분이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를 직접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예술인이라고 하니까 왠지 쑥스럽네요. 저는 사실 생활인에 가까운 사람이라. 음, 저는 이렇게 부평 해물탕 골목에서 30년간 장사하면서 틈틈이 시를 쓰고 있는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

아무래도 저희가 연락드린 예술인분들 중에서 가장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바쁘게 사시면서 어떻게 시를 쓰고 시집까지 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어렸을 때는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제학과를 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현실에 급급하게 살게 되고 글을 쓴다는 일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가게도 차려서 일하다가 힘들었던 일이나 속상했던 일들을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제 일기를 보고 서운해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 속 얘기를 가감 없이 쓰다 보니 그럴 수밖에요. 그래서 일기 대신 소설을 써 볼까 했는데, 소설은 아무래도 너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글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낙서처럼 끄적거리며 시를 쓰게 된 거예요.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쓰셨다고 들었는데 시 쓰는 것을 따로 배우신 건가요? 문화센터에서 유승우 시인님과 유윤식 교수님에게 강의를 들었는데, 두 분 모두 인천대학교 문학 교수님들이셨어요. 그 분들이 제 스승

님이신 거죠. 두 분 덕분에 『사상과 문학』 문예지로 등단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유윤식 교수님은 제 시집에 평설까지 써 주셨죠. 몇 년 전부터는 영글문학회에서 이재준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어요. 중간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중단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시를 쓰고 시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다가 작년에 첫 시집을 내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가요? 작년에 제가 환갑이었어요. 계속 시를 쓰고 문예지에 기고를 하기도 했는데, 뭔가 제 시집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집을 내게 된 거고, 앞으로도 십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시집을 낼 계획이에요. 이미 많은 시를 써 놓기도 했으니 한 권당 100편 정도는 담을 수 있을 거 같아요.

—

앞으로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시를 쓰기가 그리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혹시 시를 쓰면서 영향을 받은 시인이나 작품들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는 청록파 시인들을 좋아했어요. 시를 공부할 때도 참고가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인이나 작품에서 영감을 받는다고보다는 저의 일상생활에서 문득문득 느껴지는 생각이나 느낌들이 저에게 영감을 주고 시어를 만들어 내는 거 같아요. 그게 참고단하지만 뿌듯하고 기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힘들고 외로울 때 제 자신도 그 시어들을 통해 제 안에 상처를 치유받기도 하죠.



—

시 쓰는 일 자체가 위안이 되신다니 다행이네요. 이번에는 부평지역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예술인으로서 부평지역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사상과 문학』에 계속 기고를 하고 있고, 현재는 글벗문학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문인협회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싶고, 인천지역에서도 기회가 닿는다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시간 상 자유롭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

시를 쓰다가 중간에 생활 때문에 포기했던 적도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다시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가족들을

온전히 제가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업에 쫓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게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왔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웬지 모르게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우연히 〈부평사람들〉이라는 지역신문(부평구청에서 발행하는)에 영글문학회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순간, 아 나는 글을 써야 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했고, 망설임 없이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

이번 시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치마〉라는 시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마치 시인님의 일상을 보는 것도 같고, 일상 속에서 살짝 웃을 수 있는 재치를 표현하신 거 같아서 참 좋았는데요. 반면에 시인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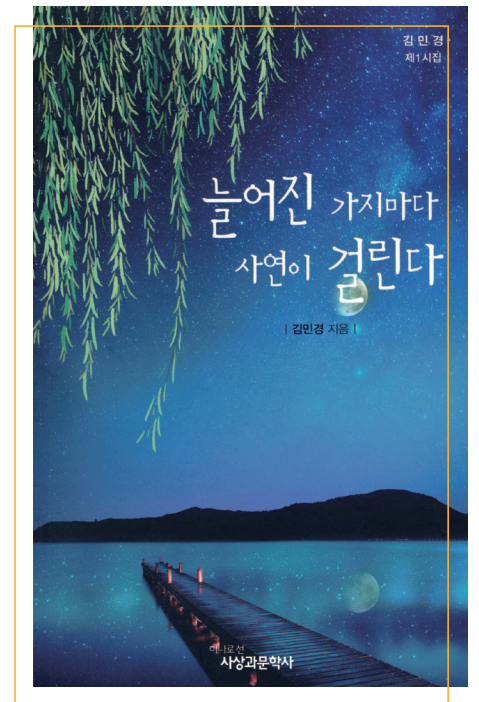
가장 힘든 순간 아프게 쓴 시들도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시인지 예상되기도 하지만, 작가님이 직접 그때 상황과 심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혼자라는 것〉, 〈불드소서!〉 이런 시들을 쓸 때 제가 참 많이 힘들었던 순간들이었죠. 아마도 제게 시와 신앙이 없었으면 극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신앙심 덕분에 고통에 대해 절제된 시어를 선택할 수 있었고, 그렇게 시를 통해 희망을 얘기하며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 글을 쓰는 일은 내 영혼의 쉼터에 머무는 일과도 같네요.

—

마지막으로 부평지역에 숨어 있는 자신만의 공간, 혹은 아지트 같은 곳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원 아트’라고 가구 판매점 겸 카페가 있었어요. 원목 냄새가 나는 그 카페 창가에 앉아 있으면 뭔가 힐링이 되는 거 같은 기분이 들었죠. 사실 저는 그런 공간에 대한 욕구가 꽤 있어서 나중에 여건이 되면 그렇게 휴식할 수 있는 아지트 공간을 제가 직접 만들고도 싶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 계획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근데 부평은 아날 거예요. 아무래도 도심은 공간 비용도 비싸니까. 나중에 여유가 되면 제 고

향 정읍에 그런 공간을 꼭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인터뷰 : 조경아 (2019.9)



#시인 김민경#

현재 부평 해물탕 골목에서 '남도 해물탕' 운영 중
2018 시집 『늘어진 가지마다 사연이 걸린다』
2016 『사상과 문학』 신인상 당선으로 등단



언어와 텍스트를 통해 동시대 예술을 기록하고 기억되길 바라는 미술 비평가 김 홍 기

가을의 냄새가 물씬 풍기기 시작하는 금요일의 평리단길. 분주하고 들뜬 사람들 속에서 동요되지 않는 차분한 분위기의 김홍기 미술 비평가를 만났다. 특유의 시크함과 위트 속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동시대의 예술을 고민하고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홍기라고 하고요. 미술평론과 번역활동과(영어와 불어) 미술관련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연을 주로 하시나요? 현대미술일반에 대해서 하기도 하고요. 90년대 한국미술에 대해서도 했었고, 작가들이 전시를 할 경우 패널로 참가해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비평 활동을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나요? 프랑스에서 미술사학을 전공을 했고 대학원에서는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은 예술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미술사와 철학을 공부하다보니 여러 가지 갈래 중 하나로 컨템포러리 아트계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게 어떤 건가요? 현대미술? 동시대 미술? 살아있는 예술가들이 하고 있는 미술? 동시대에 현장에서 하고 있는 예술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 이후에 2012년인지 2013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인천문화재단 문화비평상 공모에 미술평론부분으로 수상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최근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8년까지 나름 부지런히 활동을 하다가 지친 것 같아서 현재는 잠시 쉬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쓴 것은 한국 예술종합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주 작가와 비평가를 매칭 시켜서 작가론을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정희민이라는 작가의 작가론이 출판이 되었고요. 두산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임영주라는 영상작가의 비평문을 썼었어요. 그 외로는 한국 예술종합학교에서 조형예술 전문사과정을 대상으로 한 현대미학 관련 강연을 했습니다. 요즘은 번역작업도 하고 있는데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 작가의 『반딧불의 잔존』을 번역했고, 독일작가인 히토 슈타이얼의 『듀티 프리아트』란 책을 공역하고 있어요. 그동안

써왔던 제 평론들을 모아서 비평집을 낼 계획입니다. 미술비평을 하시면서 좀 더 선호하는 매체나 힘든 매체가 있으신지요. 음, 있죠. 공부하는 분야가 비디오 아트분야라 아무래도 영상작업 하시는 작가분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회화나 조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평도 쓰긴 쓰거든요. 개인적으로 그쪽 분들 쓰기가 좀 어렵긴 해요. 평론하는 분들을 크게 두 분야로 나눠 보자면, 미대를 나와서 실기보다는 이론이나 평론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처럼 처음부터 미술사라던가, 미학이나 문화이론? 이런 걸 전공해서 평론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화 만해도 캔버스나 종이의 성질, 재료의 특질에 따라 그런 것들을 분석해 나갈 수 있는 시선을 장착하고 계신 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잘 못 보는 사람일거 같아요. 조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유로 영상이나 그래픽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평 의뢰가 들어오면 다 쓰긴 써요.(웃음) 재료이해가 풍부하신 분들이 캐치하는 것만큼, 또 제가 그분들이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면서 쓰는 거죠. 개인적인 질문인데 비평글 쓰는 게 재미있으세요?(웃음) 괴로운 일이긴 한데, 하고나면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요.

—

얼마 전에 부평에서 이사를 가셨다고 하셨는데 이사 가기 전에 인천이나 부평에서 활동이 있으셨는지요? 부평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인천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플랫폼』이라는 문화관련 격월간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에 원고를 써 달라는 청탁이 오기도 했



있고, 작가들이 전시를 할 경우 인천문화재단에 지원금 신청을 할 경우가 많거든요. 지원금을 받으면 전시를 한 결과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평가위원들을 보내요. 그럴 때 저를 보내기도 하죠. 인천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다른 프로그램인 ‘바로 그 지원’ 심사위원도 했었고, 신기시장 쪽에 위치한 ‘대안 공간 듬’이란 곳에서 2018년에 퍼실리테이터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평 지역에서는 없으셨나요?** 부평이라....., 부평에 사는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예술인들이 없어서요. **그러면 부평지역에서 하고 싶은 활동이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부평지역에서도 미술활동을 하는 작가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체적인 기획을 하거나 낮은 문턱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전시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부평아트센터에 있는 전시장이 주민과 소통 위주의 느낌이 강한데, 작은 규모라도 실험적이거나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기획도 해보고 전시를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요즘 보면 동인천 쪽에 ‘플레이스막’ 같은 전시장도 생기고, 조그만 공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주안에 있는 ‘대안 공간 듬’도 마찬가지고요. 부평아트센터에 갖춰놓은 갤러리가 공연 보러 오신 분들이 잠깐 들러 구경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센터 내부의 분들이 그것을 좀 더 확장 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공간은 주민을 위한 공간이니까. 그렇지만 규모는 작더라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만이 아닌 지역 예술인들도 숨을 좀 틀 수 있는 그런 투 트랩 적인 것들이 병행이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만나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 되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봐주었으면 싶네요. 저도 같은 지역에 이런 작가들, 저 이외에 이런 평론가들도 있었구나 하는걸 알게 되려면 공간적인 거점이 있어야 좋은 관계의 매듭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 중에 유학 다녀온 이후 거주지를 부평으로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분위기나 느낌은 어떠셨나요?** 15년 만에 돌아왔는데 부평은 똑같던데요?(웃음) 똑같이 제가 그 나이 때 돌아 다녔던 것처럼 아이들이 죽치고 앉아있고, 밤이 되면 불야성이고. 있는 거라곤 술집, 밥집, 나이트. 부평의 평리단길인가? 요즘 유명해져서 궁금하긴 한데 가보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인천이 서울이랑 아예 멀거나 하면 더 잘 알 수도 있었을 텐데 잘 몰라서 반응을 하게 되네요. **부평 말고 비평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평가로 활동하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건**

가요? 전시 같은 것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한 60년 후에 어떤 사람이 2010년도의 미술에 대해 연구를 하려고 한다면, 찾아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비평문들과 인터뷰들, 사진정보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시각적인 기록장치가 있는 것만큼, 언어나 텍스트를 통해서 기록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시대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작업들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가 인터뷰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언어도 기록이 많이 되면 좋겠고요. 비평가는 관객들 중에서 나름 선택받은 관객인 거잖아요. 비평가들이 그런 작가들의 언어를 기록을 하면 할수록, 인식의 폭이나 깊이가 넓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평가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하셨던 적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별로 없는데, 남들이 읽고 참 잘 읽었다고 말해주면 기분이 좋겠죠.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자주 듣지는 못해요. 아예 나랑 동떨어진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길 하면 그때 기분이 좋기도 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쓴 이런 글을 보고 부탁드리려고 연락했다 하는 그런 경우 정도 인 것 같아요. **작가와 비평가와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어떤 걸까요?** 평론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작가에게 관심이 많아요. 자기에게 글을 청탁하지

않은 작가의 전시도 가서 보잖아요. 그건 작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작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전시에 관한 관심이 많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작가들도 미술계 내에서 글 쓰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들도 시간을 내서 요즘 글 쓰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다면, 그럴 때 서로 소통이 잘될 수가 있는 환경이 시작 된다고 봐요. 제가 작가들의 입장을 잘 모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안타까운데, 평론가 입장에서 보면 평론도 일종의 창작일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작가 분들은 글쓴이들의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해석의 여지인데 충분한 대화를 거쳤다면 각자가 하고 싶은 걸 각자 하게끔 해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도록 충분한 소통에 기반을 두고 모두가 다 창작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부평에 추천할만한 공간이나 장소가 있을까요?** 글썄요. 아, 있다! 청천동 CGV추천합니다.(일동 웃음)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극장이라서. 산곡동에 살았거든요.(웃음)

인터뷰 : 조은성 (2019.9)

#미술 비평가 김홍기#

미학연구자, 번역가, 미술평론가
제5회 플랫폼 문화비평상 미술평론분야 수상
번역 저서 조르주 디디-위베르만『반딧불의 잔존(이미지의 정치학)』



동심(童心)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 어린이 책 글 작가 김 미 혜

동심이 가득한 5월처럼 청량하던 9월의 어느 날 김미혜 작가를 부평아트센터에서 만났다. 동심이라는 단어를 의인화 하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작가는 아이처럼 맑고 깊고 투명한 사람이었다. 덕분에 이야기 나누는 내내 나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작가님을 만나기 위해 그동안 작가님이 하셨던 일들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동시로 등단을 해서 수많은 동시와 그림책, 그리고 동화작업을 하고, 어린이들과 직접 만나 수많은 강의도 하셔서 제가 무어라 불러드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작가님은 이 많은 직함 중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으신가요? 글썄요. 듣고 보니 제가 보기에도 참 많은 일들을 했네요. 음, 그냥 어린이 책 글 작가라고 불러 주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 동심을 가지고 하는 일에 장르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저 동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글로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어린이 책 글 작가라는 표현이 제일 좋겠네요. 어린이 책 글 작가님! 작가님의 처음 시작은 어떠셨나요? 대학에서 국어교육 전공을 하셨다가 동시로 등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어교육과를 나와서 사람들은 제가 당연히 선생님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시를 쓰고 싶었고, 시에 대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 생각하다가 발견한 것이 동시였어요. 보통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는 자신의 상처나 어두운 면을 글로 표현하기 마련인데 동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동시를 쓰고 읽는 게 어린 아이처럼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방안에 틀어 박혀 온갖 상상을 하며 글에 매달렸죠.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동시가 너무 좋아서 하다보니까 작가가 되어 있었던 거 같아요. 어떤 면으로 참 운이 좋은 작가기도 하죠.

— 작가님의 포털 사이트 인물정보에 올라와 있는 작품 수 만해도 거의 50권에 가까운 걸로 봤는데요. 그렇게 많은 책들 가운데 작가님이 특별히 아끼는 책이 있을까요? 제가 짐작되는 책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하, 그래요? 어떤 책으로 짐작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앗, 저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맞는지 여쭙 본건데.....혹시 『아기 까치의 우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네요. 아무래도 제가 동시를 쓰는 사람으로 제일 처음 낸 책이고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애를 썼던 책이라 그런 거 같아요. 요즘은 아무래도 출판사에서 먼저 의뢰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쓰기가 힘든 것도 있고요. 작가님 책 중에 또 많이 알려진 책은 『신나는 동시 따먹기』라는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은 작가님 대학 때 전공에 영향을 받으신 건가요? 교과서로 채택해도 좋을 만큼 교육적으로도 훌륭한 책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교육적인 인간이라기보다 권유형 인간이라서 그런 책을 만들게 된 거 같아요. 제가 동시 쓰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서 제 동생들에게까지 권유를 한 사람이에요. 저는 좋은 걸 보면 남들에게 꼭 추천을 해줘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신나는 동시 따먹기』도 어쨌면 그런 제 성향 때문에 만들어진 책이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동시를 하나의 놀이처럼 생각하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책이니까요. 이젠 정말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동시와 일반시와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구분이 없다

고 말하고 싶지만, 글을 쓰는 사람들의 필요로 인해서 그런 구분을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린이가 시를 썼는데 어른이 감동 받았다면 그건 동시일까요? 그냥 시일까요? 구분하기 어렵죠? 시는 그냥 시일뿐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독자가 선택하는 거고, 동심이 얼마나 묻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부평에서 30년 넘게 사셨다고 들었는데, 부평 내에서도 작가로서 활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활동 범위가 워낙 넓어서 근래에는 거의 한 적이 없지만, 예전 초창기에는 부평문화원 소식지 편집위원 일을 했었고, 부평구청에서 <부평사람들> 기자 편집위원 활동을 했었죠. 제가 살고 있는 부평 동아아파트에 있는 기적의도서관에서 프로그램 활동도 했던 것 같네요. 워낙에 하는 일이 많아서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건 부평지역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혹은 직접적으로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세요. 저는 워낙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온 터라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어요. 바로 글 쓰는 작가들을 위한 공간이 부평지역 내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부평에는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있고, 여기 부평아트센터, 그리고 맞은편에 부평생활문화센터가 있지만, 정작 문학인을 위한 공간은 하나도 없는 거 같거든요. 여기 인터뷰를 하는 이 장소도 얼마나 쾌적하고 좋아요? 이런 곳에서 글을 쓰면 정말 글들이 술술 잘 나올

거 같잖아요. 많은 작가들이 집필실이 없어서 카페를 전전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부평구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이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으니 부디 문학인을 위한 공간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가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아는 작가 동생이 군포에 살았었는데, 군포의 경우 도서관에 작가들 집필실을 만들어 주고 그 작가들이 그곳에서 글도 쓰고 도서관 여러 강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말만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건가요? 하하. 만약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저는 부평지역 내에 어린이 도서관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부평지역 내에 활동하는 예술인들 중에 혹시 저희에게 추천해주실 분은 없나요? 꼭 문학 분야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음, 사실 지역 내에서는 교류를 한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가끔 심사를 할 때 만나는 분이 있어요. 안선도 작가님이요. 교사로 재직중하시면서 주로 동화를 많이 쓰시는 분인데 추천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부평 내에 자신만의 아지트가 될 만한 장소가 있으신가요? 카페도 좋고 맛집도 좋습니다. 상업적인 장소를 추천 드리기는 좀 그렇고, 음.....생각해

보니 문득 떠오르는 곳이 하나 있네요. 그곳에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색다른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바로 열우물 마을이에요. 지금은 십정동이라고 부르는데, 저기 부평도서관 뒷편에 산으로 둘러싸여서 움푹 파인 곳에 마을이 있는 거죠. 실제로 열우물 발원지라고 해야 하나요? 암튼, 그 동네는 가끔 지나가다 보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마을 주변에 새로운 빌라들과 식당들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아직 밭도 있고 7~80년대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잠시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인터뷰 : 조경아 (2019.9)

#어린이 책 글 작가 김미혜#

2011 『신나는 동시 따먹기』
2010 『둘로 지은 절 석굴암』 라가치상 픽션부문 우수상
2006 제5회 오늘의 동시문학상
2005 『아기 까치의 우산』



무병처럼 다가온 문학에 대한 열정 글을 써야 사는 시인 이경립

오래된 정원에서만 나는 푸릇하고 신선한 내음을 맡으며 정원수가 가득한 아파트 복도를 따라 시인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던 길, 시인을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감과도 비슷한 설렘 같은 것이 느껴졌다. 누군가의 글을 먼저 읽고 실제로 그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항상 그랬던 것 같다. 마침 시인의 집 아파트 현관문은 시인의 마음처럼 활짝 열려있었고, 덕분에 우리는 시인과 함께 열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인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음, 저는 89년에 『문학과 비평』 신인상으로 등단해 지금까지 6권의 시집을 내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늦은 나이에 등단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마흔 셋에 등단을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박완서 소설가와 많이 비교를 하곤 했었죠. **그럼 시를 쓰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원래 제가 의대에 진학을 했었어요. **의대요?** 네, 한 학기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었지만. 아버지가 성서 번역을 하셨는데 좌익 문인 출신이셔서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문학에 소질이 있었지만 문학을 하면 아버지처럼 될 것 같았죠. 의대에 가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해서 갔던 건데 학비가 너무 비싸서 결국은 그만두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만두고 나니 제 상황에 좌절을 하게 되면서 도피처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덜컥 결혼을 해버렸죠. 아이 셋을 낳고 가정을 꾸렸지만, 늘 아팠어요. 폐결핵을 심하게 앓고 나서는 우울증에 신경증까지 겹쳐서 7년 동안 집안에 갇혀 있거나 신경정신과를 전전했었죠. 지금은 아마 그런 증상을 공황장애라고 할 텐데 그때는 딱히 병명도 없어서 더 답답했어요. 병원에 자주 입원하면서 그때마다 일기 같은 걸 쓰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간간히 문예지 같은 걸 넣어주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오규원 시인의 강연이 듣고 싶어서 사람의 물결이 아닌 형상으로 강연장을 무작정 찾아갔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서 쓰러졌어요. 강연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의실 밖

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오규원 시인이 나오시다가 저를 보곤 말을 걸어주셨어요. 저를 안타깝게 보셨는지 대뜸 몸이 나으면 한번 찾아오라고 하셨죠. 얼마 있다가 감사하게도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날 제 눈빛이 잊히질 않는다고. 결국 찾아가서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병원에서 썼던 글들을 보여드렸더니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이미 제가 시인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형편이 어려웠던 터라 30만원 상금을 주는 말에 『문학과 비평』에 시를 보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상을 받게 되었다고. 그 후로 30년 동안 청탁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문득 돌아보면 내가 문학을 하려고 이렇게 아팠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무병처럼 문학이 찾아온 건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무당들이 무병을 앓듯이 문학에서 도망쳐 다니다가 결국 문학을 하게 되니 정말 말짱하게 건강해 졌거든요. 몸이 아프다가도 청탁이 와서 글을 쓰게 되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몸이 나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를 쓰다가 힘들어서 병에 걸리겠다고 하는데, 저는 시를 쓰면 병이 나았죠. 시를 쓰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

지금까지 시집들 중에 시인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집을 꼽아 주신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작인 『급! 고독』이라는 시집이 가장 애정이 가

기도 하고, 시를 발표하고 나서도 반응이 좋았어요. 이번에 만해 문학상 후보작으로 심사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저도 이 시집을 읽어 봤었는데요, 시집을 읽으면서 놀란 점은 한 사람이 쓴 시인데 어떤 시는 소설 같고, 어떤 시는 에세이 같고, 어떤 시는 또 전형적인 시 같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장르를 넘나들면서 쓰셨는지 참 궁금했어요. 제가 원래 그 전에는 소설을 쓰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시를 쓰고 있지만. 몇 년 전에 『나만 아는 정원이 있다.』라는 ‘엽편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엽편소설이 뭔가요?** 나뭇잎 한 장에 들어갈 만한 짧은 소설이란 뜻인데 MBC가 선정한 소설 10편에도 선정이 되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장르가 자리를 잡지 못해서 아깝게 되었지만, 나중에 다시 시집으로 내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문학이 장르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답답했거든요. 저는 시와 소설과 에세이가 그냥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시와 소설은 구분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짧게 쓰면 시고, 길게 쓰면 소설이 되는 거니까. 저는 소설도 한 문장 한 문장이 시처럼 읽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설을 쓰고 싶다고



다 긴 시를 쓰고 싶은 건지도 모르죠.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작가들은 대부분 자기만의 어투가 있는데 시인님 시는 마치 여러 사람이 쓴 것처럼 다양한 어투가 있어서 한 사람이 쓴 시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시집을 낼 때마다 좀 다르게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형식에 갇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를 쓸 때마다 다르게 변하는 거죠.

—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혹시 부평지역 활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딱히 부평에 한정해서 활동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시인님 이번 시집을 보면 <십정동>이라는 시가 있던데요. 그 시는 어떻게 쓰게 되신 건가요?** 제가 십정동에 오래 살았었거든요. 현대아파트 3차에서. **유독 부평 예술가 분들이 십정동이라는 동네를 많이 언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열우물 마을’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오는 신비로움 때문이겠죠. 함봉산 안쪽에 실제로 열 개의 우물이 있어서 그런 이름이 지어진 거니까요.

—

지금까지는 부평지역 활동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앞으로 부평지역에서 하고 싶은 활동이나 부평구문화재단에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여쭙 봐도 될까요? 제가 고향이 문경이긴 하지만, 인천에 와서 40년 넘게 살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인천에서는 저를 아무도 불러주지 않더군요. 시 창작 강의 같은 경우도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을 하거나 더 멀리 있는 대구지역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집 앞에 있는 부평에서는 한 번도 강의를 한 적이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작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걸 여담이지만 사실 제 동생이 구로구청장인데, 그 친구는 구청장이 되자마자 어느 허름한 집을 개조해서 작가들의 집으로 만들어 집필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고 해요. 부평구문화재단 같은 곳에서 도서관이나 아트센터 등에 남는 공간들을 상주작가 집필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글을 쓰는 작가로서 무척 공감합니다. 도서관마다 상주작가를 두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작가들에게도 도서관 측에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군포 도서관처럼.** 될 수만 있다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죠.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작가들에겐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인터뷰 : 조경아 (2019.9)



#시인 이경림#

2019 『급! 고독』 출간 / 만해문학상 최종 후보
2018 제16회 애지 문학상
2016 제1회 윤동주 서시 문학상
2011 제6회 지리산 문학상
1989 시 <굴욕의 땅에서>로 『문학과 비평』 신인상으로 등단



인생의 고비를 굽이굽이 넘기며 어느새 삶이 문학으로 번진 작가 양진채

바쁘게 살아간다. 마흔을 넘으며 소설을 쓰기 시작해 애뜻한 두 번째 소설집을 내고 세상 모든 일중에 소설 쓰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는 작가에겐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작가와 이야기 하던 중 세상 모든 것이 상호 연관적이라는 이야기가 아직도 귀에 여운처럼 남아 있다. 인터뷰 내내 작가의 손가락에 붙어있던 귀여운 노란 밴드가 눈에 선하듯이.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설 쓰는 양진채입니다. **소설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주 어려서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고, 친구들은 일기 쓰기를 싫어하는데 전 좋아서 열심히 썼고, 도서관에서 책 보는 것도 좋아했어요. 지금까지 한번도 글을 쓰는 게 어렵다고 부담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게 계기라면 계기 일까요? 사실 스무 살 때는 시를 쓰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신춘문예에 시를 내볼까 엉뚱한 생각을 해보고 그랬죠. 시를 써 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데 사회운동을 하면서 문학을 완전히 접었던 적도 있어요. 결혼을 하고 잠시 잊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금 국회의원인 남인순 씨가 지나가다가 불쑥 찾아왔어요.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수선했는데 차 한잔 하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데? 뭘 하고 싶니?”라고 물어 왔는데,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독서 토론모임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책을 읽고 A4 한 장 정도 독후감을 쓰는데, 그때에도 어렵다 생각을 안 했고 창의적인 일이라 좋다는 생각만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 있네요.

부평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집 가까이 인천여성회관이 있었어요. 처음엔 애 키우면서 자격증을 따려고 했죠. 없는 살림이지만 나한테 쓰자며 2만원 마련해서 제과제빵 배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원했던 프로그램이 마감되었고 문예 창작반이 남아있더라고요. 자격증 받은 애초에 마감이 되고 취미반이 조금 남아서 등록

을 한 거예요. (*그곳에서 글쓰기를 배우면서 독서모임과 병행) 그 모임에서 읽은 <바리케이드>라는 단편 소설이 있었는데, 나의 스무 살 적 아버지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아버지가 항상 술 마시고, 늘 인상 쓰고, 어려워서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이라 저도 비슷한 구성으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서너 장 써 내려갔더니 재밌는 소설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 뒤로 시는 접자! 소설만 쓰자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게 아마 95년도 말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딸을 임신했는데 뱃속에 다른 자아가 있어서 그런지 글쓰기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성회관에서 초급반 중급반 올라가며 문학동아리가 된 것이 ‘굴포 문학회’였어요. 소설 쓰는 몇 사람 모아서 따로 공부한 것이 ‘소주 한 병’이었고요. 7명이 소주 한 잔씩. 그런 굴포문학회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정식으로 소설을 배운 것은 ‘새얼 문학강좌’를 통해서인데 이원규 선생님의 소설 창작이론 과정이 있었어요. **기존 인터뷰 내용을 보았더니 삶 안에 애환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군대를 제대한 후에 가업인 자전거포를 했는데, 인천 5·3민주항쟁 때 일꾼들이 다 나가버려서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방 송통신대 문학동아리를 하면서 열심히 동인집 만든다고 후배들이 우리 집에서 회의는 안 하고 하루 이틀 밤새워 먹곤 했는데 다행히 남편이랑도 잘 어울렸어요. 남편도 후배들을 좋아하고 그랬지요. 남편은 부평 토박이고 대로변 자전거 가게니까 하루 일 끝나면 어떤 사람이 지나



다가 자전거 들여와 주고 같이 술 한잔하러 가고 그래요. 찾아온 친구에게 오늘 술 못 마셔 그런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죠.

—

대표 작품이 『변사기담』이죠? 네, 맞아요. 이번에 『검은 설탕의 시간』이 나왔어요. 이번에 발간된 소설집에 애정, 애착이 커요. 단편 10편이 묶인 소설집. 처음 문학을 할 땐 좋은 작품을 쓰려고 구성이나 문체 등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다는 아니란걸 깨달았어요. 아무래도 자기 마음과 생활이 많이 투여된 게 좋더라고요. 들춰보면 내 짝한 마음이 많이 들어간 게 오래 남는다고나 할까? 두 번째 소설집을 보며 다행스럽게도 ‘성장’하고 있구나, ‘작가’구나, ‘나’구나 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고비를 넘는다**는 말씀인가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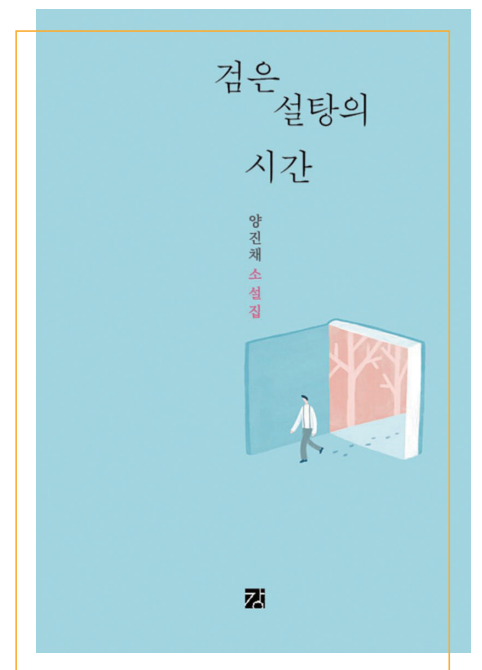
번 소설집을 쓸 때는 상처를 치유하려고 썼는데 소설집을 엮으려 작가의 말을 쓰려고 하니, 작품에 투영된 내 상처를 바로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작가의 말을 몇자 쓰는데 서너 편의 작품이 남편 잃고 난 후의 소설이라, 버텨왔는데 다시 보니 가슴이 그래도 아팠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묵혀두다가 이번에 소설이 나왔고, 내게는 생애 큰 고비를 넘기며 극복하기 위해 쓴 소설이라 어쩔 수 없이 내 소설 쓰기도 전환점이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

부평에서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부평에 산지는 25년 이상 됐죠! 부평은 사실은 소설 공간으로 삼기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다들만한 것이 눈에 안 보였다고나 할까. 다루고 싶은 건 있어요. 애스컴시티와 관련 지어서 굴리고는 있는데 토굴과 애스컴을 엮어서 이야기를 담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음악 관련해서는 부평을 다룬 문학이 드물어요. 지금은 부평은 제 소설쓰기에는 큰 특색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역과 연고를 갖는다면 매력 있는 부분인데 고민이 많죠. 토굴탐방은 가보려고 해요. 부평에 뭐가 있을까 들여다보고 있어요. **앞으로의 소설이 기대되는군요.** 지금은 1970년대 인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는 인천에 대대적으로 공장들이 들어서서 공단이 들어서기 시작한 시기죠. 인천의 197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노동을 같이 쓰려고 해요. 노동으로 바라 본 인천에 대한 장편소설을 쓸 생각입니다. **이 지**

역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면 좋을까요? 부평 곳곳에 좋은 곳이 있어요. 원도심도 있고 특별한 공간도 많고 뚜렷하다고나 할까요? 아예 지방의 경주, 강릉처럼 지역 특색을 갖는다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부평은 재단, 문화원, 박물관이 있어서 많은 일을 해내고 있으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부평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 추천하고픈 사람이 있나요?** 복합문화공간 ‘지금’을 운영하며 극단을 이끌고 있는 이은선! 잘 아는 사이는 아닌데 지역과 학교 등에서 다양한 연극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어요. **부평에서 아지트 같은 공간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굴포천역 6번 출구 앞 ‘TEA:달빛’을 추천해요. 중국차 전문점이면서 커피를 판매하는 곳인데 사장님이 직접 만든 밀크티가 정말 진하고 맛있더라고요, 끝내 줍니다.

인터뷰 : 유광식 (2019.9)



#소설가 양진채#

2019 소설집 『검은 설탕의 시간』
2017 스마트소설 『달로 간 자전거』
2016 장편소설 『변사기담』
2012 첫 소설집 『푸른 유리 심장』
2008 <나스카 라인>으로 등단. 스마트소설박인성문학상, 인천문학상, 문학비단길작가상



신나고 즐거운 노년을 꿈꾸게 하는 춤추는달팽이도서관

동네 작은 도서관을 표방하는 '춤추는달팽이도서관'은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에 6,000여 개 이상, 인천에만 230여 개 이상이 있는 작은 도서관 중 유일하게 노년을 위한 도서관이다. 나름의 역사 안에 작은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춤추는 달팽이 도서관을 방문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최선미 관장이고요. 춤추는달팽이도서관을 맡아서 운영한지는 2011년부터였고요. 원래는 마을 도서관으로 산곡동, 청천동 그 쪽에 있었는데, 감당 못할 정도의 건물 임대료 때문에 2017년 6월에 지금 이 자리로(부평구 십정동) 이사를 왔어요. **도서관에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1인 체계라고 보시면 되요. 혼자 기획하고 추진하고 정산하고 조직하면서 일합니다. 저희 같은 작은 도서관은 후원금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필요할 때 요청하면 도와주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그냥 끝나지 않아요.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후원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하는 시스템만 만들어놓고, 전적인 운영은 혼자 한다고 보시면 되요. **원래는 어린이 도서관이었다가 노년 도서관으로 변경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여기로 이사 오면서 '나눔과 함께'라는 노인 복지 법인의 공간을 나눠 쓰게 됐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방향 전환을 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작은 도서관 6천개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는 노인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편한 거죠. 그리고 나서 '노년'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해봤어요. 노년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근데 다 부정적인 것들이었어요. 고독사, 가난, 폐지 줍는 할머니. 그런데 왜 노년이 그래야하지? 이렇게 역질문을 해가면서 하다보니까 내가 즐겁고 신나는 노년 도서관을 운영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도 '춤추는달팽이도서관'이 예요. 즐겁고 신나게! 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요. **작은 도서관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옛날에는 '마을문고'라고 했고

요. 2002년도에 도서관법이 만들어지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 했을 때는 마을공동체, 마을 활동가들의 역할이 컸죠. 평생교육과 문화 센터로 지역에 자리하고, 아이들이 뛰어 노는 곳으로 인식을 바꾸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용하시나요?** 현재 노년, 아픈 노년. 예비 노년. 이렇게 세 가지로 대상 콘셉트를 잡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예비 노년'에게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슬기로운 노년생활', '아픈 노년'은, 편찮으신 어르신들에게는 그들을 케어해주는 요양보호사가 있잖아요. 아픈 노년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들도 튼튼하고 마음에 근육이 키워져야 케어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림책으로 요양보호사를 격려하고 토닥토닥 위로하는 그림책 테라피 '토닥토닥 그림책 여행'을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노년' 어르신들에게는 '재밌는 그림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이 있죠. 옛이야기 중심으로 읽어드리면 많이 공감하세요. 처음에는 읽어만 주다가 그 다음에는 아이들과 하는 것처럼 그림책 읽고 책 놀이하기, 만들기, 그리기,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활동도 같이하고.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이어지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르신들만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다만, 노년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특색이 있는거죠. 단순한 '노년'이 아니라 거기에서 확장되는 개념의 예비 노년과 요양보호사 프로그램이 있고,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돋보기안경 이라든지 확대경 이라든지 큰 글씨 그림책, 큰 글씨 책 이런 것들이 있는 곳. 그리고 어르신들과 그림책으로 재밌게 소통하는 인적자원이 있는 공간이에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에 파급되는 효과는 어떤가요? 파급효과는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죠. 어쨌든 계속 운영하면 되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계속 요란스럽게 ‘노년특화 도서관이래’, ‘전국에 별로 없대, 벤치마킹해보자.’ 이러면서 입소문이 난 거예요. 뭔가 도서관을 잘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로부터 입소문이 나면서 사실은 더 많이 알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취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요. 방송국에서 취재도 왔고,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 많이 해왔어요. 저희가 아주 잘 해서라기보다는 그런 특이한 운영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파급 아닐까요? 작년에도 ‘슬기로운 노년생활’하고 작업이 끝날 때 쯤 한국GM에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자살한 퇴직자가 생기는 일이 있었어요. 한국GM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퇴직자들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그들의 경험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나눠보는 것을 만들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무모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GM하고 노동조합에서 협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런 강좌를 듣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효과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협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한국GM 희망퇴직자들이 가는 교육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일일이 발품 팔아 전단 돌리고 참석자들을 모아서 결국 30명 정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됐어요. 한국GM 희망퇴직자와 함께하는 ‘고맙습니다. 내 인생’이란 제목으로 방송통신대 유범선 교수님 모시고 강좌를 했죠. 그게 지역사회에서

도 놀라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기획하고, 기획만 한 게 아니라 몇 명이 들었던 간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추천이 되어서 인천시에서 상도 받고, 이런 과정도 작년 한 해에 있었죠. **지금 2년 정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하시고 싶은 계획은?** 제가 굉장히 많은 양의 일을 해요. 세 명에서 네 명이 일을 해야 할 만큼 많은 사람의 몫을 혼자 하는 거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거나 지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즐겁지 않은 일은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단 제가 즐겁게 기획하고 이거 했을 때 이게 재밌겠는지 안 재밌겠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제가 즐거운 거, 제가 즐겁다 보니까 그 즐거움을 같이 도모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고, 그 후에 성과 이런 것들이 새로운 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미리 계획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강의를 듣다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떠오르는 즉시 추진을 해요. 아니면 메모를 해서 내년에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을 하던가. 사람들이 보면 신기해하죠.

작은 도서관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 할까요? 작은 도서관이 많이 생겼잖아요.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의 길을 가는 게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작은 도서관의 길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마을 도서관을 지향하는지,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지, 특정 대상 혹은 특정한 매체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흐르는 것은 공공성일 거고요. 100개의 도서관이 있다면 그 도서관들이 가는 길은 100가지라고 생각해요. 저



회도 물론 운영이 잘되고 있는 도서관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잘 운영하고자 하는 도서관들 간에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교육을 받고 서로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고받으며 나아가고 있죠.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많이 운영하잖아요. 물론 ‘왜 굳이 도서관이어야 하지? 도서관과 문화센터는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질문은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간과하는 생각 같아요. 도서관이라고 하면 따라오는 것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새 책이 오면 이 과정 저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꽂히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관리가 필요하죠. 도서관이라는 형태는 유지하면서 시민단체의 목적

에 맞는 활동만 한다면? 그러면 왜 그 곳은 꼭 도서관이어야 할까요? 이곳도 마찬가지로요. 그냥 책이 있는 ‘나눔과 함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굳이 가져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검열하고, 질문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 조은성 (2019.10)

#춤추는달팽이도서관 프로그램#

‘미리미리 준비하는 슬기로운 노년생활’, ‘그림책 가나다 학교’, ‘황진의 작가님과 떠나는 어른을 위한 그림책 테라피 학교’, 한국GM 퇴직자와 함께하는 ‘고맙습니다. 내 인생’ 등

능다



극단 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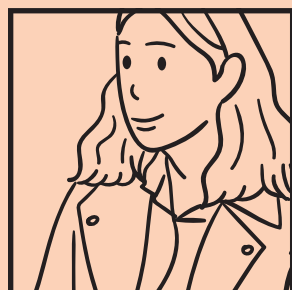
개그맨 송필근



창작 플랫폼 예술숲



연희단 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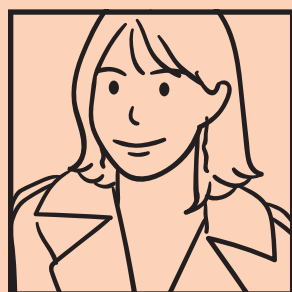
공연창작소 지금



구보댄스컴퍼니 장구보



배우 석보배



뮤지컬 배우 서지아



희곡의 서사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조가 아닌 이야기의 본질을 전달하고 싶은 젊은 극단 907

낮가림이 심한 인터뷰어는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인터뷰자리에 앉았다. 본인이 속한 극단을 인터뷰한다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부평에 거주하며 일개미라는 별칭 뒤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극단의 기획자를 잘 알기에 가능한 선택이었다. 개인 사무실에서 만난 단원과 기획자는 이제 인터뷰어와 기획자로 여러분께 극단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수줍은 마음에 글은 점점 간단해지고 있지만, 연극을 향한 열정이 전달되길 조심스럽게 기대하며.....

극단 907의 설립 계기 및 목적은 무엇인가요? 극단 907은 대표 설유진 씨가 <씨름>이라는 희곡으로 등단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서 시작한 이름이지만, 마음이 맞는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색깔을 가진 극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극단 907의 활동 연혁과 함께 주된 활동 영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극단 907은 보통 지원 사업을 받아 공연을 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표 설유진 씨가 창작한 희곡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공연을 올려 왔던 거죠. 저희 극단의 대표작으로는 <초인종>, <9월>, <너에게>, <벽> 등이 있습니다. 여러 편의 공연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극단의 정체성이 생겨났고, 지금은 희곡 속 여성 캐릭터를 보편적이지 않게 표현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극단의 주된 활동 영역은 연극이지만, 앞으로 영상물로 활동영역을 넓혀 가고 싶은 계획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연극에서 저희 극단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극단 907 출신의 개인 예술인들은 이 단체에서만 활동을 하나요? 활발하게 개인 활동을 하는 다른 예술인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저희 극단 907은 개인 활동을 적극 권장 합니다. 특히 배우들에게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모두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배우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캐스팅 콜도 많고, 오히려 저희 극단에서 우리 배우를 매번 쓰기 힘들 정

도입니다. 그럼에도 외부 활동을 권장 하는 이유는 배우들의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함이고, 스스로 극단 내 커리큘럼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대표자가 외부의 자극을 간접체험하고 극단의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극단의 박지아, 황순미, 류경인, 황선화, 강서희 모두가 유망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입니다.

극단 907이 부평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극단 907은 기획인 권영 씨의 거주지가 부평이라는 이유로 부평을 극단의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금 사업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서울활동이 극단 활동의 대부분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극단은 지방자치의 소규모 공연과 지원 사업기획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3년 전부터는 인천에서 개최되는 15분 연극제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계속 초청받는 극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평구문화재단과의 협업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평에서 활동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15분 연극제가 인천 활동의 전부이지만, 재단의 상주극단이 되어 재단과 함께 성장하는 극단이 되는 것도 저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극단 대표자로 인터뷰에 응해주신 기획자님께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자 권영님에게 극단 907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극단의 일이 저의 주업은 아닙니다. 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친분이 있던 대표(설유진)에게 제의를 받았고 기획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올해로 저희 극단은 6년차에 접어들니다. 그 기간 동안 올린 수많은 작품과 함께한 배우들

스텝들과의 인연은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으로 이 극단에서 극단의 정체성을 함께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은 이제 저의 주업을 침범하는 중요한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 황선화 (2019.10)

907
구 공 칠

초인종

10.22 첫공연 7시
10.22 월-금 8시
토-일 4시
10.30 휴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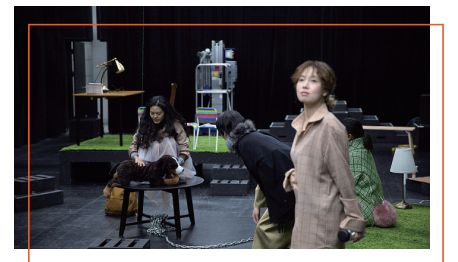
11.05
CKL스태이지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동각역 5번 출구

공연시간
10.22 첫공연 7시
월-금 8시
토-일 4시
10.30 휴무

입장권
일반 (자유석) 30,000원
할인 50% 15,000원
학생 (대학생포함)
예술인, 단체(3인이상)

소요시간
90분 (약시간없음)

문의
010-9259-8702
young-1020@naver.com



#극단 907#

2019 인천 15분 연극제 <보고 싶어>
2014 창단. <초인종>, <벽>, <너에게>, <9월> 공연



무대 코미디의 순수함을 지키고픈 요즘 개그맨 송 필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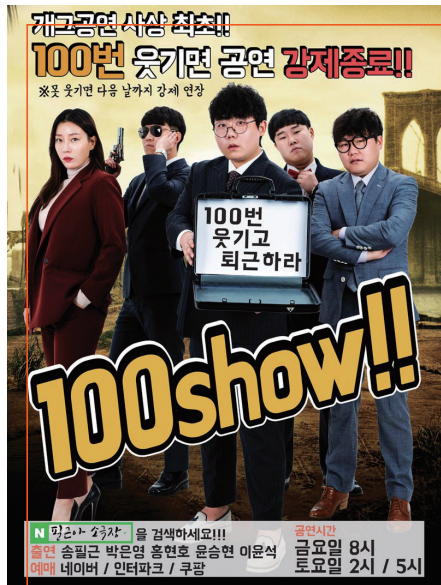
바쁜 일정에 어렵게 시간을 내준 그를 만나기 위해 늦은 오후 그의 이름이 걸린 소극장으로 향했다. 지하의 캄캄한 소극장일 것 이라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부평 문화의거리 한복판 지상 3층에 자리 잡은 소극장은 그의 첫 인상 만큼이나 자신감 넘쳐 보였다. 이토록 쾌적한 소극장 이라니, 그리고 그 안에서 무대 보수를 하고 있던 자신감 있는 눈빛의 청년을 만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우선 송필근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공채 27기 송필근이고요. 코미디를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사람입니다. 지금은 ‘필근아 소극장’이라는 극장을 만들어서 후배들과 고향인 인천에서 즐겁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생활은 2011년에 시작했고요. 방송은 2005년 <개그사냥>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데뷔했습니다. 당시 최연소 합격이라 주변에서 많이들 놀라셨는데 사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개그맨을 꿈꿨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으로써는 굉장히 긴 시간을 준비하신 거군요. 저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소극장 자체가 송필근님의 대표작이라고 보이는데 스스로는 자신의 대표작을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기억해주는 것은 <개그콘서트>의 ‘렛잇비’입니다. 아, 그 코너에 그 분 이시구나! 기억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 전에 ‘눔눔눔’이라는 코너에서 ‘필근아’라고 불리며 이름을 알렸고, ‘렛잇비’로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렛잇비’ 덕분에 돈도 많이 벌었고,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고마운 코너이자, 대표작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이 극장은 저의 평생의 꿈이에요. 사실 돈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위험부담이 크거든요. 저는 모든 예술계가 유튜브 때문에 퇴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예술들을 파괴하는 형식으로 성장하는 걸로 보여서요. 공개코미디가 죽고 유튜브로 개그맨들이 다 옮겨 가는 것만 봐도 씁쓸하죠. 제대로 갖추어진 코미디를 하고, 일반인

들은 할 수 없는 코미디를 하는 개그맨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지만 소극장을 운영하며 무대 코미디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코미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멋있네요.

—

그럼 이 공간이 이 지역구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럼 온전히 혼자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저 혼자 끌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원이라는 게 까다로울 뿐더러 받으면 이 극장을 공공재처럼 언제든지 비워줘야 하는 방식이라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점이 인천과 이 지역구를 고향으로 두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써 많이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인천이라는 이 도시가 문화 쪽으로는 이렇게 발전이 더딘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기도 했죠. 저희야 인지도를 가진 연예인들이어서 이렇게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하고 있어도 찾아와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예술인들은 이렇게 지원이 안 되어서야 어떻게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면 이 공연장에서는 공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처음에는 일주일 다 공연을 돌렸는데 지금은 금요일 1회, 토요일 2회로 주3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일주일에 3회 공연이지만 적자는 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쪽 들어보니 이 소극장



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개그맨으로써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왔던 것 같은데 전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방송을 한참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코너를 4개씩 했거든요. 일주일에 코너를 4개를 짜야 한다는 건 정말 사람이 할 일이 아녜요. 주말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지쳤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을 때 마침 군대 영장이 나왔어요. 미뤄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군대로 도망을 간 거죠. 안타깝게도 제가 군 생활 하는 동안 제가 몸담고 있던 개그프로의 시청률이 반 토막이 났고, 저도 다른 발전적인 생각이 필요했어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들여다보며 무대코미디라는 답을 찾은 거죠. 지금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개그맨은 윤형빈, 정태우, 김대범 등이고 제가 아마 다섯 번째 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선배들께도 조언을 구했고, 고생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도전하고 싶었어요. 이 소극장을 만들면서 그 선배들

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필근님의 무대코미디를 향한 프라이드와 열정이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그 장소가 왜 이 곳 부평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인천이 고향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겠지만. 부평은 제가 어릴 때부터 놀러 나오던 곳이에요. 저한테는 추억의 거리죠. 하지만, ‘문화의거리’에 문화가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 했어요 그냥 웃가게 거리랄까? 어쩌면 저희가 이곳 문화의 거리에 처음 자리 잡은 문화 아날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공연을 해보면 관객 분들은 너무 즐거워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접할 기회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문화라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들자!’라는 목표도 생기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역과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해둔 콘텐츠가 있으신가요?** 일단 최근에는 소방관 분들이 단체관람을 오셔서 재밌게 보셨는지 소방의 날 행사에 저희 공연을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천의 소방관들 위한 행사이니 무료로 오프닝 공연을 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지역 행사나 축제에서 함께 협업을 하며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저희 직원이 부평구문화재단에 가서 ‘저희 여기서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찾아 뵈는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페이지를 높게 부를 것 이라 생각하시는지 안불러 주시더라고요.(웃음)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도 다 후배들 이신건가요?** 네, 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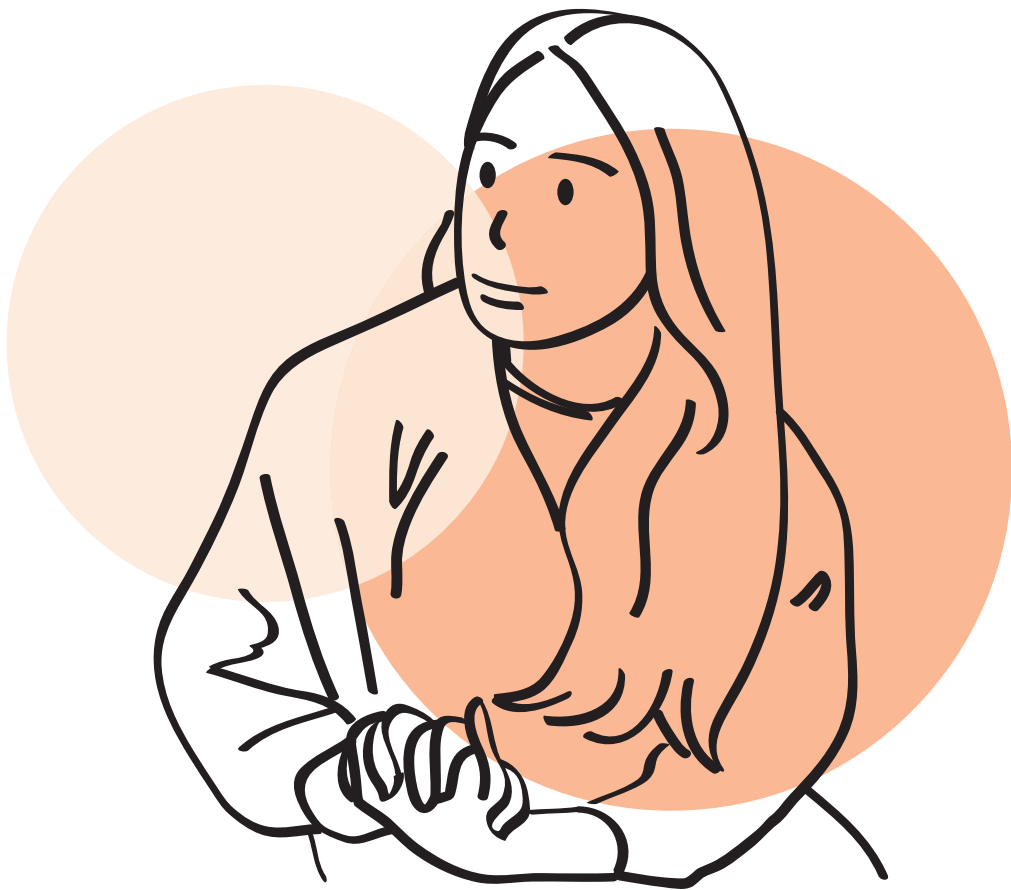
부터 저를 믿고 따라준 후배들입니다. 예전부터 언젠가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항상 이야기 했었는데 그때마다 함께 하겠다고 했던 후배들이고 진짜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네요. 고마운 친구들이죠. 아직 저도 어리지만 후배 양성 역시 제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자주 가시는 부평 아지트를 알려주세요.** 문화의거리 안 쪽에 ‘시골집’이라는 김치찌개 파는 식당인데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소개받고 며칠 뒤 찾아가 보았는데 매콤 짭짤한 것이 소주가 생각나는 맛이었습니다.)

인터뷰 : 황선화 (2019.10)

#개그맨 송필근#

2019 ‘필근아 소극장’ 개관
2014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남자 신인상 수상
2012 KBS 공채개그맨



행복한 동행을 위한 아티스트 플랫폼 예술로 숲을 이루다. 예술 숲

부평구청 주변의 신트리로는 작은 카페와 다양한 문화공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 예술숲의 사무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인천의 문화 중심지에서 다양한 전통예술 콘텐츠를 통해 예술로 숲을 이루어가는 예술숲의 김면지 대표와 박탄 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안녕하세요. '예술숲'의 설립 계기와 목적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김면지) 저희는 처음에 전통예술분야 전통음악 작곡가들의 에이전시로 출발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예술가들의 창작 플랫폼을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예술숲'이에요. 2015년에 처음 예술단체로 출발해서 지금은 법인화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했습니다. 전문기획사의 역할도 하고 있고, 다양한 창작자들과 아티스트가 모인 창작 플랫폼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지금 구성원이나 같이 협력해서 하시는 아티스트는 몇 분이나 되세요?** 작곡가부터 아티스트까지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솔로아티스트, 그룹 아티스트, 작곡가, 작가들이 있죠. 인천출신도 있지만 전국에 걸쳐 소속 아티스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요. 대표적으로 '양상블 더 류', '제나탱고' 그리고 김대성 선생님을 비롯한 박한규, 김백찬, 송정, 이정호 등 국악계에선 유명한 젊은 작곡가들. 박경훈을 비롯한 국악계의 유명 창작자들이 함께 하고 있죠. 협업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이봉근, 송소희도 함께 하고 있고요. **예술숲의 활동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티스트들의 창작기반을 만들어주는 창작 플랫폼, 에이전시, 공연기획, 음반제작 및 유통까지 하고 있어요. 축제기획과 운영에 관한 일들도 하고 있고, 전통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걸 실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죠. 저작권 관련된 일도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저작권 관련 대행 일을 하고 있어서, 국립국악관현악단, 경기도립국악단 이런 곳에서 예술숲을 저작권관련 대행을 하는 회사로 알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요. 악보 요청이라든지 관련 대행업에 관한 일들을 부탁하죠.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창작자들

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양하네요. 전문적이고.** 전국에 저희 밖에 없거든요.

—

그동안 하셨던 많은 일들 중 기억에 남으실 만한 행사나, 아티스트가 있을까요?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한 전통 상설 공연인 <우리가 락 우리마당 열쑈>를 저희가 주관해서 진행했어요. 9년 동안 국악협회에서 주관해오던 공연인데 공모를 통해 저희가 선정됐고, 그 동안의 공연과 내용을 많이 바꿔서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건, 저희 단체 중에 '양상블 더 류'라는 팀이 있는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상주단체거든요. 인천에 관한 이야기들을 10년째 음악으로 창작해오고 있는 팀이에요. 근대 개항기를 담을 수 있는 보석같은 콘텐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새로운 창작음악으로 표현한 <미드나잇 인 인천>이라는 공연이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시리즈까지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올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미드나잇 인 인천>은 개항기 때부터 광복기까지 인천에 있었던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인천이 개항 때부터 30년대까지 굉장히 문화 부흥기였잖아요. 그 때의 인천에 있었던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었어요.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박탄) 인천에서 예술단체는 지원금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커요. 지원금도 워낙 경기문화재단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다보니 실제로 버티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김면지) 이런 지원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도 공모에

많이 의존을 해요. 자생능력이 100%는 아니
예요. 공모에 많이 의존을 하고, 그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새
롭게 유통하고, 그게 저희들의 장점이거든
요. 그러면서 살아 남아있는 거죠.

—

**부평에서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있으신
지요.** 사무실을 십정동에서 굴포천으로 옮
겼어요. 굴포천이 어떻게 보면 카페거리가 생
기고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
뒷골목 스테이지>라는 것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제목을 정한 건데, 전문예술단체가 행
하는 게 아니고, 음악도시 <뮤직위크> 같은
걸 연결 지어서 여기 있는 예술인들과 예술
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작은 무대를 기획해
서 만들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극장을 만들고 싶어요. 저기 등기소 비어
있잖아요. **경찰서 앞에?** 네, 전화를 해봤어
요. 거기 리모델링해서 극장 만들면 안 되냐



고, 안된대요.(웃음) 공공극장은 이제 포화
라고 보고, 공공극장의 역할은 예술 경영하
는 사람들이 하겠죠. 공공극장의 역할은 공
공극장의 역할대로 하면 되고, 주민들이 함
께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 편하게 발표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콘텐츠를 언제든지 보여
줄 수 있는 극장과 녹음실을 만들어보고 싶
어요. 그것도 여기 굴포천처럼 사람들이 왕
래도 많고, 커피도 마시러 오고. 이런 여유
있는 공간에 만들고 싶어요. 그게 꿈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부평의 이미지? 기대하는 이
미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부평은 경서
지역의 가장 넓은 들을 안고 있었던 부평평
야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일제의 수탈과
수탈의 아픔을 가장 몸소 체험했던 공간이
고, 전통예술의 맥이 끊겼던 공간이기도 하
고요. 그러다가 미군기지가 들어오면서 대
중음악이 성행했었던 공간이기도 하죠.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복합되어 있는, 너무 재
미있고 특이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서 이런 것들이 모두 한데 어우러질 수 있
는 콘텐츠가 나와야한다고 봐요. **그걸 기회
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걸 저희는 만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재단에서 그런 역
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단체들과 저희 같은 기획자가 같이
나선다면 분명히 뭔가가 나올 것 같거든요.
부평은 가장 어두운 이야기부터 가장 밝은
이야기까지 다 있는 공간이에요. 조병창에
관한 이야기, 열우물에 관한 이야기,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할 게 아니
라 예술인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
게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각자
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합 시키는 역할을 재
단에서 해줘야하고, 재단에서 그런 통합적
인 기획들을 짧게 보지말고 긴 호흡으로 갔
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미군기지 ‘캠프

마켓’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평
이 문화예술의 메카가 되어야한다고 생각
해요. 그리고 어떠한 아티스트가 참여하느
냐가 관심을 끌 수 있거든요. 인천출신이 아
니라도 이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고 이 스토
리를 함께해줄 수 있는, 잘 표현해줄 수 있
는 좋은 아티스트들이 함께 해줘야하는 거
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하고 싶어요. 길게
보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부평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단
절됐었던 전통의 음악들까지 다 아울러서.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전국에 문호를 열고
멋진 아티스트들이 인천에서 활동할 수 있
게 해줘야 인천의 예술이 발전하죠. 예술숲
은 인천에서 출발했어요. 부평에서 뻗어나
가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이 있냐면, 서울에 가면 ‘너네
인천단체야’, 인천에서는 ‘너희 서울에서 하
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
는 건데, 그런 좁은 생각들이 더 넓어져야하
지 않나 싶어요. 기획자들이나, 지원을 해주
는 사람들이나, 예술가들도 마찬가지로 그
런 편견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해요.

—

마지막으로 대표님에게 예술숲의 의미는?
예술숲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숲에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개미도
있고, 짐승들도 살고, 돌맹이도 있고, 바위
도 있고, 바람도 있고, 햇빛도 있고, 다 있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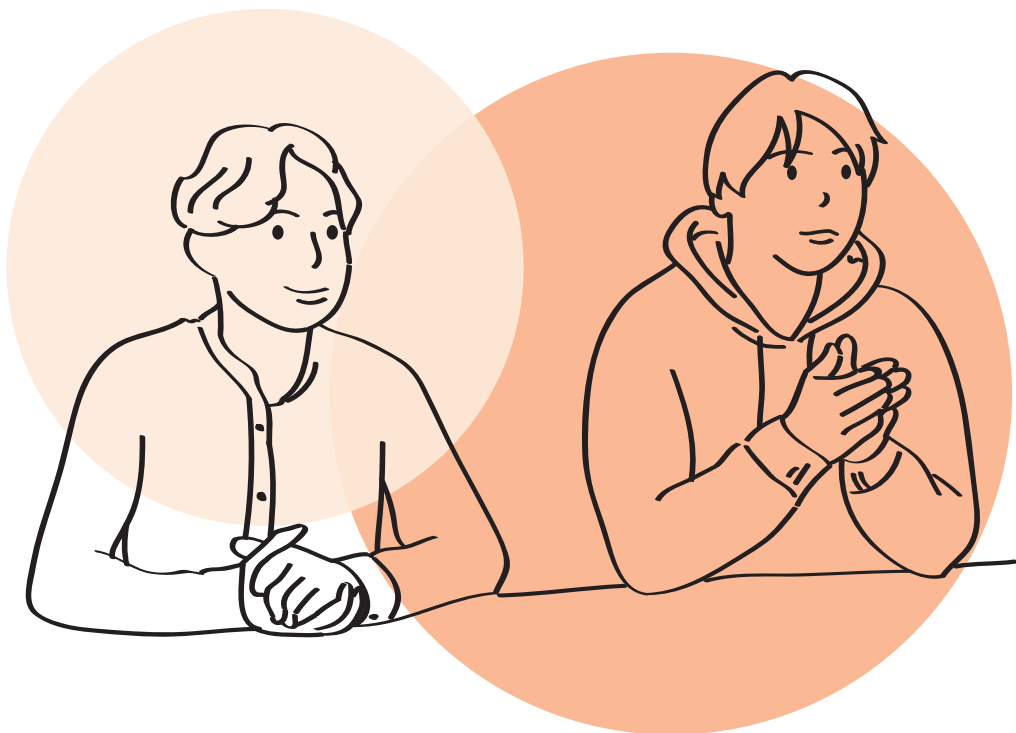
#예술숲 대표 콘텐츠#

<미드나잇 인 인천>, <피아노 풍류>
한중 현 프로젝트 <이심전심>, <옥비의 노래>
전영랑의 <춘흥, 너고나고>



아요. 그런 다양한 창작자들과 아티스트들
이 함께 숲을 이룬다, 예술로 숲을 이룬다는
뜻으로 예술숲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누
구를 위한 공간이나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고, 아티스트들과 계속 같이 동행하겠다
는 취지로 만든 회사예요. 정말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잘 버텨서 10년 있다가 극장도
만들고 녹음실도 만들고 다 하고 싶어요. 좋
은 일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인터뷰 응해주
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 조은성 (2019.10)



함께 했던 지난날을 소중히 생각하며 함께 나아갈 미래를 창작하는 연희단 비류

비류는 연희의 몸짓이었다. 재담과 기예가 뛰어나 어찌면 거친 사나이 일 것 같았지만, 자신들이 엮어갈 작품에 대해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진지했다. 도전은 어렵기 때문에 도전이듯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들은 비켜서지 않고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었다.
(비류 전 대표 백승철씨와 현 대표 이연호씨와 함께 인터뷰)

‘연희단 비류’(이하 비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백승철) 단원은 저랑, 이연호, 고범철, 김태훈 정단원 4명이 함께 소리, 기악에서 협력하는 친구들이 6명 정도 있습니다. 비류의 기획을 도와주는 친구가 한 명이 있고요.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2015년 8월에 3일 정도 합숙을 하고 돌아오는 날, 창립총회 하고 바로 결성이 되었어요. 당시엔 정단원 6명이었는데 지금은 2명이 줄었죠.(웃음) 그 친구가 생각하는 음악이 저희가 하는 연희 음악과 다소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비류는 어떤 장르를 추구하나요? 연희 위주로 버나놀이, 사자놀이 등이 있어요. ‘연희’라는 것은 대본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예술이에요. 재담을 해야 하니까 대본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버나’나 ‘살판’을 하고 재주를 부리는 건데 통틀어 연희라 하거든요. 저희는 재해석하여 풀어가는 창작 연희극, 좀 긴 작품을 만드는 것에 주력합니다. 첫 작품은 2017년 12월에 <염라대왕이 사자를 만난 날 I>이었고, 다음 해에 학산소극장의 상주단체가 되어서 두 번째 작품 <염라대왕이 사자를 만난 날 II>를 올렸어요. 올해는 <춤추는 사자, 추격하는 광대>를 11월 9일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비류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연희는 예전부터 해오던 거지만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팀이 인천에서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재담을 바꾼다거나 춤이나 동선을 현대에 맞게 만지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시기마다 큰 뉴스를 다루거든요. 이번 작품에선 비중 있게 들어가진 않지만, 보통 작품마다 항상 담으려고 해요. 대사 하나를

넣더라도 꼭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팀이라고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결성 후 첫 작품 올리기까지 공백이 보여요. 공연 같은 건 많이 했는데, 저희 공연이 아니기도 하고 조금 밖에 보여줄 수 없어서 인천문화재단 등 지원해서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웃음)

부평 지역하고는 어떤 관계인지요? (이연호) 일단 저도 그렇고 전 대표님도 그렇고 부평지역에서 처음 풍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부평을 택한 거 같아요. 그런데 부평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싶어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저희 능력으로 찾아봤을 적엔 많지가 않더라고요. 2015년 부평풍물축제 프린지 무대공연, 2016년 창작연희극 무대공연, 2017년 난장축하 개·폐막 공연 밖에는 없어요. 결국엔 풍물축제 내에서 끝이 나요. 잔인하지만 풍물 쪽에서 활동할 기회가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생활은 어떻게 꾸려지고 있나요? 인천문화재단 사업지원을 주 사업으로 삼으며 개인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문화재단에도 풍물 연희자들이 재량을 펼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부평에 공연장은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아트센터도 있고, 문화사랑방도 있고, 문화의거리 야외무대도 있지만 조금 더 발굴하면 좋겠어요. 부평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거겠죠? 많이 있죠! (강조) 기회만 된다면. 저희는 연희를 하는 팀이에요. 요새 작품 중

하나가 <보부상놀이>라고 있어요. 공감능력이 크지요. 이건 무대가 크지 않아도 돼요. 문화의거리 야외무대나 지하상가 무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작품 제목들이 한결 같이 재밌어요.** (이연호)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하고 있어요. 부평지역에 애정은 많아요. 제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9살부터 지내왔고요. 풍물 처음 시작한 곳이 부평문화원이었거든요.

—

몰래 추진하고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부평은 풍물의 도시이고 예전엔 인천풍물경연대회가 따로 있었어요. 전국풍물경연대회랑 인천풍물경연대회. 저희가 고3 때 있다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이유가 인천에서 풍물을 하는 학교가 없으니 대회 나오는 팀이 줄게 됐고, 인천풍물경연대회는 사라지고 전국대회만 남게 된 거죠. 제가 지금은 부평의 한 학교에서 풍물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애들도 재밌어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대회를 나가기도 하고요. 부평문화원에서 지원도 받고 하니깐 학교도 관심이 있어요. 2명 정도가 전공을 피력하기도 해요. 이게 다 타율이 아닌 자율이에요. 그런데 딱 한 학교만 그렇다는 거지요. 많은 학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5년이 되어 가지만 어려움이 있었을텐데요?** (백승철) 초창기에는 진짜 뭐 하나 없었어요. 공간도 없고, 돈도 없었고, 일도 없고, 사람만 있었어요.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느 날 일이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방식을 몰랐어요. 돈을 어떻게 처리하고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해봐라, 전화해라. 처음에는 재정 문제를 진행하는 일머리가 없다 보니까 해맸죠. 기획서를 어떻게 쓰고,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게 도움인데 당시엔.(웃음) 당시 원했던 건, 정산 진행하는 워크숍 강좌 같은 거예요. 그러다 사업선정이 안 되면 타격이 많이 와요. 외부공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원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힘들죠. 그럼 단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으니 각자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일하고 공연하고 그래요. 힘들죠. **개인 일정과 팀 일정 조율이 힘들겠어요.** (이연호) 최대한 팀으로 맞추고 있어요. 연습 장소는 부평생활문화센터 지하 연습실이나 풍물패 '더늴'이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렇다고 해도 저희 생각에 연습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처럼 젊은 팀들은 연습공간을 가질 수 있는 팀이 거의 없어요. 자금도 그렇고 빌리려면 돈이고, 빌리고 싶어도 스케줄이 차 있고 그렇죠.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이 되면 좋지만, 항상 공간은 문젠입니다.(웃음)

—

비류 소식은 어딜 가면 찾을 수 있나요? 지금은 인스타그램(@_biryu), 페이스북 페이지(yeonheedanbiryu)도 있고요. 최근 유튜브에도 홍보를(고범철 담당) 하고 있습니다. **부평 지역에 추천할 아지트가 있나요?** (이연호) 저는 요즘 문화의거리 밑에 평리단길이 좋아져요. 제가 카페를 좋아해서요. 거기 식당 같지 않은 이름을 가진 '오캄'이라는 파스타집이 있는데 분



위기가 너무 좋아요. 사실 그 거리가 보통 다 좋아요. 데이트하기 좋은 거리에요. 여자친구도 서울보다 예쁘다,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비류는? 비류는 00이다.** (이연호) 비류는 도전이다. 끊임없이 생각하며 연습하고 실패도 많이 하는, 저에게 도전인 거 같습니다. (백승철) 저는 2행시로. 비-류가, 류-명해졌으면 좋겠다.(웃음)

인터뷰 : 유광식 (2019.10)



#연희단 비류#

2019 <춤추는 사자, 추격하는 광대>, <보부상 놀이>
2018 <염라대왕이 사자를 만난 날 II>
2017 <염라대왕이 사자를 만난 날 I>



언제 내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문화예술복합공간을 꿈꾸는 공연창작소 지금

부평시장역 주변은 사람들이 복잡거리는 복잡한 동네지만 문화를 즐길만한 공간은 없을 것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부평시장역 1번 출구에서 조금만 걷다보면 마치 진흙에 가려진 진주를 품은 조개처럼 반짝이는 곳을 찾을 수 있다. 부평의 문화예술복합공간을 꿈꾸는 '공연창작소 지금'. 그곳에서 지칠 줄 모르는 이은선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공연창작소 '지금'의 설립 계기 및 목적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008년 3월에 창단을 했어요. 저희는 '2008년 인천의 문화예술 교육 진흥을 위해 전문 예술인들이 모여 설립한 전문 예술 단체입니다.' (자료를 보고 읽으며 감회가 새롭다는 듯)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만들었네요.(웃음) **대표님께서 만드신 거 맞으시죠?** 네.(웃음) 근데 창단공연은 2009년 6월에 했기 때문에 올해가 창단공연 10주년이에요. 그래서 창단 10주년 공연을 지원받아서 올해 7월에 올렸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작년에 허겁지겁 지원서를 쓰면서 제목이 있어야 지원서를 쓰기 때문에 10주년 공연이라는 제목을 쓰게 된 것인데 지금 보니 10년이나 되었네요. 그동안에 공연도 해마다 했고, 국제 교류도 했고, 제가 문화예술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학교예술 강사로 활동 하다가 단체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하는 상상학교 라든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참여연극 등 교육공연을 위주로 하는 편이죠. 그래서 저희 극단에 소속되어 계신 일곱 분 정도의 배우님들은 강사까지 겸업하고 계세요.

예술 강사로 활동하셨으니 이렇게 교육 연극을 주로 하는 극단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보이네요. 지금까지 극단의 대표작이나 우리극단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작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해 여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이 아마 가장 많이 발

표된 공연인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연출한 작품인데, 이중 언어 연극을 하면서 의미가 더 깊어 졌죠. **이중 언어 연극이요?** 네, 처음 시작은 베트남의 한글날이었어요. 베트남에서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한글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해요. 그래서 베트남의 한글날 축제에 저희가 한글로 공연을 하겠다는 기획안을 인천문화재단에 보냈고 선정이 되어 베트남으로 공연을 가게 됐어요. 그 때가 2015년이었는데, 그해에 공연을 계기로 베트남의 극단 '청춘'과 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중 언어 연극을 시작하게 되었죠. 또, 그쪽에서 저희 작품 〈그해 여름〉으로 공연을 해보고 싶다 하셔서 대본을 베트남어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베트남에 한국 창작회곡을 판 첫 작품이 된 거죠. 처음에는 한국연극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건데 이중 언어 연극이 되면서 베트남 시민들도 다 볼 수 있는 관객의 확장 일어난 게 됐어요. **이 교류 작업이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중 언어라는 연극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전체 공연을 두 번하는 방식이에요. 한국어로 한번, 베트남어로 한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한 작품의 러닝타임을 한 시간 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죠. 또 저희 작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17년에는 베트남의 작품 〈강 건너 먼 곳〉을 저희가 받아 한국어 공연으로 진행하기도 했어요. 베트남 극단 '청춘'은 국립극단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요. 그래서 〈강 건너 먼 곳〉이라는 작품 역시 큰 관심 속에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저희 음악감독님이 계신데 '경인고속도로'라고 그 밴드와 음악극

작업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는 그 음악극으로 연극제를 나갔고요. 국제교류를 하다 보니 한국어에 대한 애착이 생겨 한국어 사업에 가장 큰 힘을 쓰고 있어요.

—

특별히 부평에 자리 잡은 이유와 부평에서 하시는 활동이 따로 있으신지? 저희 극단은. 제가 부평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됐어요. 부평구에서는 지원 사업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천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저도 웬만하면 부평구에서 받아서 하고 싶죠. 고향이고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그래서 아트센터에서 한 2년 같이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저희 극단 음악극도 부평에서 공연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부평이 음악의 도시잖아요? 어쨌든 지역에서 한 단체로 10년을 활동 하다 보니 지역에 대한 관심도 더 생겨요. 지역에서는 ‘이 지역 예술가들에게 관심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더라고요. 무수히 많은 극단과 예술단체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반복하는 가운데 10년을 끌어왔으면, 또 10년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주면 좋겠어요. 대사에 그런 게 있는데 ‘버스를 탔는데 언제 내려야 할지 몰라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만들어 놓긴 했고 일단 굴러 가긴 하는데 언제 내가 여기서 내려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가야하는건지 항상 이맘때 되면(연말) 생각이 많아져요. 지원이 다 정리 되고 새로운 지원을 해야 할 시즌이 되니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어떻게든 또 10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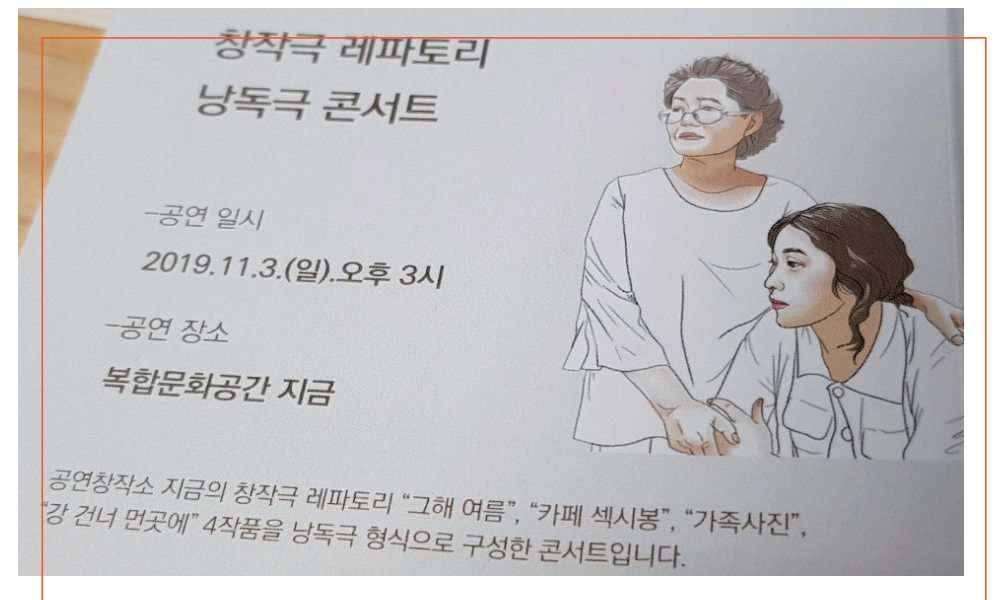
가겠죠. 하지만 이제는 버틸 수 있는 명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지역에서 알아준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앞으로 부평의 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저희는 공연을 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니 일단 부평구랑 협력을 해서 공연을 하면 가장 좋은 거죠. 저희가 얼마 전에 <애스컴 블루스 페스티벌>에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했어요. 음악극으로, 근데 이런 협업은 기획자님과 기획서 단계부터 함께해서 된 거지 초청을 받은 건 아니죠.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들여다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재단에서도 다른 입장이 있을 것 이라 생각되고요. 그러면서도 부평지역단체 자원을 왜 활용하지 않는지 아쉬운 마음이 크죠. 개인적으로는 재단에서 지역예술인들에게 프리포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표님에게 공연창작소 ‘지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냥 저는 처음에 창단할 때 ‘일상생활의 연극’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요즘에는 ‘전문예술단체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저 제가 쓰고 연출하고 기획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 제가 사는 모습, 일상생활 같은 느낌이죠. 지금은. ‘지금’이라는 곳이 대표님의 모습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혼자 다 쓰고 만들고, 이렇게 혼자 다 하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아, 그래서 작년부터 이난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 극단 출신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따로 있는지? 자연스럽게 단원이 2년 주기로 바뀌고 있어요. 배우가 간다고 할 때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 제 방식이에요. 연극제 때문에 정단원 다섯 분은 있죠. 다 스텝이긴 하지만.(웃음) 배우님들은 자유롭게 다녀가는 분위기의 극단이에요.

인터뷰 : 황선화 (2019.10)



#공연창작소 지금#

2013~2019 베트남 극단 '정촌'과 이중 언어 연극 교류 활동
2009 창단 공연 지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그해 여름>



예술 창작활동은 라이프 커뮤니케이션 구보댄스컴퍼니 대표 장 구 보

예술 활동 가운데 가장 원초적이고 솔직한 표현방식은 어쩌면 몸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언어나 다른 도구를 거쳐 표현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몸짓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의지가 그 어떤 장르보다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 때문인지 이번 인터뷰는 그 어떤 인터뷰보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고 직설적이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보댄스컴퍼니라는 예술단체를 2000년부터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활동은 창작활동, 예술교육활동, 지역문화예술생태계 선순환 조성을 위한 브릿지사업 등이 있습니다. 학부 때는 현대무용을 전공하였고 대학원에서는 대체의학과 예술경영을 전공하였으며 현재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및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와 컨설팅 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 **무용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 무용을 접한 시기는 초등학교시절이며 추후 주변 선생님의 권유로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평에는 언제까지 거주하셨나요? 기억하고 있는 부평은? 태어나기를 인천 부평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거주지도 부평입니다. 어렸을 적에 동네 또래 친구들과 놀던 놀이터 같은 곳이었고 현재 부평아트센터가 있는 공터에서 열음을 지치고 놀거나 숨바꼭질, 팔방놀이, 고무줄 등을 하던 유년시절의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최근 2년간 별다른 창작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 19주년 창작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나마 간헐적으로 했던 사업으로는 지역 내 고등학교 교양 교과목으로 공연과 인문학을 결합하여 지역의 예술단

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하였으며 중등교과목 <예술과 소통>, <도시공동체> 교과목을 집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창작활동을 제외하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공연활동 이야기 하나 들려주세요.**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나는야 실버스타>라는 공연을 무대에 올릴 때였습니다. 늘 삶의 뒀안길에서 희생만을 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어머니가 무대의 주인공으로 가족들에게 비취지자 손자 손녀가 할머니를 외치며 응원하는 모습, 공연 후 로비에서 가족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대 간에 격차를 줄이고 예술로 화합을 도모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술 활동하면서 느끼게 되는, 마주치게 되는 좋은 점과 힘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술 활동은 창작 정신을 기초로 하고 삶의 철학과 사상을 작품으로 잉태하여 나와 우리를 이어주는 라이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고민하고 창작을 하는 그 모든 행위가 공감대를 형성할 때 가장 좋은 가치가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고민하지 않는 ‘스낵 컬처(출퇴근 시간, 휴식 시간 등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의 시대에 무용이라는 예술이 주는 문화적 배제성 혹은 대중화의 역 차별성 등의 이분화로 인한 시대적 문화정책의 약은 흐름은 현재를 살아가는 기초예술가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면서 전환점이 있으셨다면요? 19년간 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조직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였습니다. 즉, 창작활동을 주로 하는 예술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이 주는 무거운 사회적 의무감 등은 활동의 방향성의 변화를 주었고 동시에 조직이 성장하게 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부평에선 무엇을 하시나요? 부평에서 들리는 공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집에서 일체의 컴퓨터 작업이나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주 들리는 곳은 2001아울렛, 주변 카페 등을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어떠하신가요?** 현재는 다음 달에 있을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아들이 유학하고 있는 하와이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를 계획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달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 황선화 (2019.11)



#구보댄스컴퍼니#

2019 미추홀구청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음악회>
2018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백댄스 양성소>
2000 구보댄스컴퍼니 설립 (홈페이지: www.kdc21.com)

19TH 구보댄스컴퍼니

이
상
한
사
회





날짜 2019. 12. 11
시간 저녁 8시 [수]
장소 송도트라이볼
티켓 전석 3만원
문의 032.513.7802



진솔한 아름다움이 빛나는 배우 석보배

날씨가 조금은 쌀쌀해진 10월의 끝 무렵, 석보배 배우를 만났다. 완연한 가을의 날씨에 어울리는 표정과 미소를 가진 그녀는 배우로써 자신의 자리를 차근차근 잡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름만큼 어울리는 한국영화의 보배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터널>, 독립장편 영화 <꽃손>,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단편영화 <백, 마리아 물들다>에 출연한 석보배입니다. **인천이 고향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부평구청 근처에서 살았어요. 학교도 여기서 나왔고요. 지금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든요. 친구들도 여기 다 있고요. 이 동네에 익숙해져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연기는 언제부터 하시고 싶었던 건가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연기자의 꿈이 계속 있었죠. 어릴 때는 다 조금씩 그런 꿈이 있지 않나요? **저희는 없었어요.**(웃음) 학교 다닐 때는 학업에만 치중을 했고요. 연기전공이 아니라 무용학과를 나왔어요. 현대무용을 전공했고 졸업하자마자 연기를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활동은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무용에서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 다닐 때도 연기학원을 계속 다녔었어요. 알바를 하면서 알바비로 학원을 다녔죠. 그러면서 계속 무용전공을 해서 졸업을 무사히 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할까 고민이 좀 됐었어요. 배우라는 게 힘든 직업이잖아요. 주변에서 지망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만둘까도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잠시 쉬면서 연극공연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나도 저 무대에 서서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심장이 막 뛰었어요. 물론 내가 무용도 좋아하지만 연기도 놓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다시 시작하게 됐죠. **그게 4년 전이군요?** 네. 그런데 막상 시작은 했지만 오디션 기회가 쉽지 않더라고요. 연기전공도 아닌데다 경력도 하나도 없이 백지였거든요. 학원 다니면서도 프로필 내고 그랬는데 정말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프로필 돌리며 다닌 시간이 2-3년 정도 됐었어요. 안 가본 곳이 없죠. 영화사란 영화사는 다 돌아다녔어요. 자신감이 좀

떨어지려고 했었는데 드라마 오디션에 합격하면서 잘해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SBS의 <너를 사랑한 시간>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고정이었는데 대사는 정말 많지 않았어요. **출연할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촬영장 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TV에 나오는 저를, 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내가 저기쯤에 있다!' 이런 거. 16부작이었는데 한 회 빼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 엄마는 우셨어요. 제가 조그맣게 보여도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반대를 하시더니.(웃음)

드라마가 끝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활동을 하셨나요? 이제 프로필에 경력이 한줄 딱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제는 이걸 믿고 본격적으로 프로필을 돌려보자 해서 다시 열심히 여기저기 돌렸죠. 아마 연기하는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오디션 볼 기회를 갖는 것도 힘들었고, 오디션을 봐도 합격을 하는 것은 더 힘들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정말 작은 역할을 단기적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출연하게 된 게 2017년도에 방영한 드라마 <터널>이었어요. 얼마 역할이었는데 아직 젊은 여배우로서 이 역할을 선택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과감하게 선택하고 나니 폭이 좀 더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3회 정도 출연했는데 거의 매회 방송에 제가 나오는 장면을 내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때부터 약간 알려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출연했던 장면이 임팩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후에 2018년도에 독립영화 <꽃손>에 주연으로 출연을 하게 됐어요. **어떤 역할이었나요.** 도



시에 살고 있는 ‘수진’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마음에 상처도 있고 사랑에 대한 아픔이 있는 캐릭터죠. 그 힘든 마음을 남해의 어떤 시골마을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치유를 받는다는 따뜻한 영화예요. 같이 출연하신 배우들이 손숙, 이주실, 전무송 선생님이셨는데 확실히 저런 분들처럼 되고 싶다는 자극도 많이 받았고, 옆에서 연기지도도 많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긴 장편의 큰 역할은 처음이다 보니 실수를 많이 했었어요. 작은 역할은 연기호흡이 짧게 가는데 비중이 커지니까 연기호흡이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죠. 오디션 경쟁률이 굉장히 셧어요. 대형기획사에서 다 왔었죠. 남자 주인공은 SM소속이었는데 저는 소속사도 없이 혼자 오디션을 봤고, 오로지 제 능력만으로 역할을 맡게 됐어요. **여자 주인공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말이 없는 친구여서 눈빛이나 손짓으로 연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좀 힘들었어요. 혼자하기도 버겁고 이러니까 그래서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찍으면서 점점 살이 빠지는 거예요.(웃음) 아, 그

런데 이 영화가 작년에 춘사영화제에서 예술영화부분 특별상을 받았어요. 너무 뿌듯했죠. 이젠 드라마 <터널>도 있고 영화 <꽃손>도 있으니까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최근에 활동하신 작품은 어떤 게 있나요?** tvN의 <키마이라>라는 작품과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단편 <백, 마리아 세상에 물들다>라는 작품에 출연했어요. <키마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내년 방영예정이고요. 여기에서도 엄마 역할로 출연했어요. 감독님이 엄마 역할은 좀 청순하고 긴 머리였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조건이 맞았어요. 그때는 긴 머리였거든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그 전 작품인 드라마 <터널> 스텝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석보배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 미팅한번 해봐라’라고 추천을 했는데 ‘좋다!’ 이렇게 해서 성사가 된 거죠. 터널에서 엄마를 맡았던 게 저에게는 큰 플러스로 작용을 했어요. 안 그랬으면 영화 <꽃손>도 안됐을 거고 <키마이라>도 안 됐을 거예요.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단편인 <백, 마리아 세상에 물들다>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하여 100명의 영화감독이 작품 당 100초의 러닝타임으로 단편영화 100편을 만드는 프로젝트)** 양지은 감독님이 어떤 내용으로 찍을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용전공이니까 ‘여기서 무용을 해보면 어떨까요?’하고 제안을 했는데 좋아하셨어요. 원래는 저를 출연시킬 생각이 없으셨는데 결국 제가 주연으로 발탁이 됐고 <백, 마리아 세상에 물들다>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했죠. **연기를 하면서 전환점이 있나요?** 전환점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활동하고 연기하고, 끊임없이 가야하는 시기. 전에는 오디션 보러 가면 풀 메이크업하고 갔었는데, 지금

은 오디션 때 거의 민낯으로 가요. 여자들은 예뻐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 나이라는 특이나 자기가 제일 예쁜 줄 알기 때문에, 모든 여자 배우들이 화장을 하고 최대한 멋지게 꾸미고 와요. 저도 열심히 꾸미고 갔지만, 그러면서도 얼굴로는 안 되겠다, 이길 수 없다, 계속 느껴왔었죠. 그래도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웃음) 그런데 어느 오디션장이었는데 진짜 화장 안한 여배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배우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가 배우면 나 자체로 보여줘야 되는데 뭘 꾸민다고 해서 내가 더 예뻐질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엄마 역할도 받아 들였고, 그쪽으로 가면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성공할 수 있겠더라고요.(웃음) **연기에 대한 접근도 그 이후로 달라진**



#배우 석보배#

2018 독립영화 <꽃손> -수진역 (춘사영화제 예술영화부문 특별상 수상)
2017 OCN 드라마 <터널> - 서희수역
2015 SBS 드라마 <너를 사랑한 시간>으로 데뷔

건가요? 보통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보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캐릭터로서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낼까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제일 자연스러운 나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인천으로 넘어가서(웃음), 부평에서 활동을 하신 게 있으신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평풍물축제에서 무용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감정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무대 체질 인가 봐요.(웃음) 떨리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부평에서 활동하신 게 있나요?** 없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부평에서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있죠, 풍물축제 행사 때 MC를 보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공연을 했던 무대에서 MC를 하면 되게 뜻깊을 것 같아요. 이말 꼭 해야지 하고 생각 하고 왔어요.(웃음) **부평을 사랑하시나요?** 서울에서 늦은 시간에 촬영이 끝나면 교통이 불편할 때도 있고, 도시에 대한 이미지도 다른 곳에서 볼 때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평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요. 여기서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럼 부평의 공간 중 추천할만한 곳이 있을까요?** 굴포천 부근에 있는 ‘아로마 카페’라는 곳을 주로 가는 편이에요. 사람이 많지 않고 오디션 대본 보기도 좋고, 편한 분위기여서 자주 가는 편이에요.

인터뷰 : 조은성 (2019.10)



차분하게 욕심내고 겸손하게 성장하는 뮤지컬 배우 서지아

조금 멀리 길을 돌아왔지만 그 길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금 늦게 마음을 먹었지만 오롯이 혼자서 내린 결정이라 제 길을 찾았다 믿는다고 했다. 늦은 만큼, 돌아온 만큼 그 시간과 길을 차곡차곡 음으로 담아 부른다. 그녀가 더 많은 길을 걷고 더 오랜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더 깊은 노래가 나올지 기대가 생기게 만든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배우 서지아라고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로스트 가든>, <비커밍 맘> 시즌 1,2 등에 출연했었고 최근에는 성남문화재단의 <상대원 연가>라는 작품에 출연

했습니다. 뮤지컬을 이용한 예술교육에도 참여하고 있고, 소소하게 음원 발표도 하고 있어요.

—

부평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저는 그냥 부평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부평에서 다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족들과 헝가리로 이민을 갔었는데 저만 고등학교 3학년 무렵 다시 돌아왔어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헝가리로 가서 대학진학을 할 예정이었는데 한국에 남게 됐죠. 한국에 남게 된 이유는, 한국에 뮤지컬 학과가 있다는 걸 알고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사실 이 때가 제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 가장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한국에 남았고, 24살까지 부평에 살았어요. **지금도 가끔 부평에 오시나요?** 가끔 살았던 동네 앞을 지나가게 될 때가 있어요. 청천동이었는데 제가 살던 집만 그대로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길이 그대로여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시장도 그때랑 똑같고요. 아! 중학생 시절, 교회에 갈 때 지나던 원적산길은 엄청 큰 공원으로 변했던데요. 거긴 많이 새로웠어요. **어렸을 때 부평에 대한 기억을 좀 더 얘기해주세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평은 ‘변화가’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수학여행 간다고 옷 맞춰 입을 때 지하상가에 많이 갔었어요. 사실 엄마가 부평 지하상가에서 가방 가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그 지하 던전을 속속들이 알았어요. 가끔 화장실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었지만.(웃음) 그래도 참 친숙한 곳이에요. 그렇게 화려한 변화가이다가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갑자기 주택단지가 나오고, 초등학교도 나오고. 그러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나직한 골목길들이 늘어선 낯선 동네의 얼굴이 되고. 그렇게 화려하면서도 신비한 길이었어요.

—

기억이 생생하시네요. 역시 배우의 관찰력이었던 걸까요? 뮤지컬 배우가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 좋아하고, 춤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인천주부극회’에서 연극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따라 인천에서 제작하는 뮤지컬들도 많이 보러 다녔고, 가끔 어린이 뮤지컬 대본 같은 것도 가져다 주셨어요. 그럼 저는 또 그걸 혼자 읽고 녹음해보고 그러는 게 놀이였거든요. 부모님이 예술은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닌 취미와 교양으로 평생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하셨고,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런 가족 문화가 제게도 깊게 뿌리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공은 영문학을 하셨다고요?** 맞아요. 너무 당연하게 예술은 취미로 평생 하는 거지 직업으로 가질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제가 진로를 결정할 때가 됐을 때 ‘뮤지컬 학과’라는 전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예술’이라고 하면 막 다섯 살 때부터 무용을 배우고, 여섯 살 때부터 노래를 부르고 그런 사람들만 배우가 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주변을 보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니,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때가 한국에 들어와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던 때라서 그런 결단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점이 이미 수능이 끝난 뒤였어요. 저는 수능을 치르지도 않았고요. 헝가리에 갈 계획이었으니까. 혼자 학원도 찾아가보고 나름 고군분투 하며 삼수까지 해서 겨우 뮤지컬 학과에 들어갔는데 저랑 너무 맞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

는 ‘얼차려문화’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무너져서 그만두고 다른 학교 뮤지컬 학과를 가볼까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너 지금 그것도 힘들면 다른 곳 가셔도 마찬가지야. 배우생활 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말로 뼈를 맞은 거죠. 사실 전 엄마가 절 좀 위로하고 보듬어 주시길 바랐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건 할 수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일어나긴 해야 했으니까 그나마 좋아했었던 어학공부라도 시작을 하자 싶어서 영문과에 진학을 했어요. 대학생살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첫 작품도 만나게 됐어요. **역시 해냈네요! 그 첫 작품은 무엇이었나요?**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어요. 줄리엣의 엄마, 캐플릿 부인 역할이었죠. 어느 정도 팀이 꾸려진 다음에 합류하게 되어서 줄리엣에 도전해볼 기회는 없었지만 첫 작품이니만큼 정말 많이 배웠어요. 물론, 두려움도 컸고 불안함도 컸죠. 맨 처음에 진로를 정할 때는 늦었지만 열심히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하니 녹록치 않은 것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멀리 돌아온 길까지 모든 것이 쌓여 제 삶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길만 생각하려고 하죠. 그런데 가끔은 그 때 다른 결정을 내렸어도 괜찮았겠다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하! 농담이구요. 어쨌든 그렇게 뮤지컬 배우가 되었습니다.



—

긴 이야기의 끝이 ‘뮤지컬 배우가 되었습니다.’여서 안도감이 들어요. 그럼 참여하셨던 공연들 중에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로스트 가든>이라는 작품이 생각나는데요. 배역의 비중도, 오프닝넘버를 부르는 역이었으니까 나름 컸어요. ‘엘리자’라는 이름이 역할이었죠. 이 작품으로 중국에도 공연을 갔었는데 주인공 ‘거인’역은 가수 김태우 씨와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에 트럼피터역으로 출연했던 최형석 배우가, ‘소녀’역은 가수 윤하 씨가 참여했어요. 중국에서 3회 공연을 했는데 엘리자역의 트리플 캐스팅 배우 세 명이 모두 함께 갔었어요. 그 중 제가 첫 회 공연에 오르게 됐고 덕분에 나머지 2회의 공연은 편한 마음으로 흥가분하게 즐길 수 있었어요. 그 작품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정말 특별한 공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커밍 맘>이라는 공연도 기억에 남는데 시즌 1,2에 다 참여했거든요. 시즌1에는 주인공 수연의 친구와 수연의 엄마까지 1인

2역을 맡았고, 시즌2에서는 주인공 수연 역할을 맡았어요. 엄마가 되어간다는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은 동일하지만 주인공 수연의 직업이 바뀌고 작품의 넘버들이 다 바뀌었죠. 같은 작품 안에서 배역을 바꿔서 연속으로 참여하니 그 또한 특별한 느낌이었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한 작품은 무엇인가요?** 성남의 이야기를 담은 <상대원 연가>라는 작품이에요.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성남93’이라는 극단에서 제작한 공연이었어요. 그 공연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제가 결혼하고 남편의 가족이 있는 성남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남편과 시아버지께 상대원, 하대원, 은행동 같은 성남의 옛날이야기를 들곤 했어요. 그러던 차에 성남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뮤지컬을 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내 가족의 이야기, 가족의 역사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여했어요. 새로운 집(성남)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남편의 가족들은 다 성남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남편에게 성남은 저에게 부평과 같은 존재일거예요. 그 이야기를 알고 싶었어요. **부평을 주제로 한 뮤지컬에도 지아배우님이 참여하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상대원 연가>를 하면서도 사실, 내가 아직 우리 친정인 부평에 관한 작품도 못해봤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이 더 생각나고, 그리워지고, 웬지 서운해 할 것 같고.(웃음) 그동안 부평에서 하는 작품들의 오디션 소식이 있을 때마다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다음에는 꼭 기회가 생기길 기다리고 있어요.

#뮤지컬 배우 서지아#

뮤지컬 <비커밍 맘> 주연 / <상대원 연가>, <바보사랑>, <로스트가든>, <로미오와 줄리엣>

—

앞으로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꿈으로 달려왔고, 데뷔를 했어요. 그 다음으로 가져야 할 목표설정이 중요한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게 힘들었어요. 사실 지금도 그 목표설정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부에서 연기를 전공하지 않아, 거기에서 오는 갈급함이나 콤플렉스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배우는 누군가에게 선택이 되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배우가 적극적일 수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어필할 때 밖에 없고 다른 예술 활동을 할 때는 소극적인 위치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도 소극적이 되고 시야도 좁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걸 깨닫고 주변을 보니 극예술을 가지고 전시와 공연을 접목하는 기획을 한다던지, 연기술을 교육 분야로 활용한 다던지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좀 더 적극적인 예술인이 되고 싶어서 레슨도 받고 워크숍에도 참여하고 공부를 더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생각하는 자세부터 ‘선택되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일을 도모하는 배우가 되자’라는 것이 최근에 들었던 생각이예요. 예전에는 몇 살까지 연기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일을 해야지 생각했는데 점점 더 해야 할 것이 많고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 예술분야인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맞게, 성장하는 과정에 맞게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 성채은 (2019.10)

악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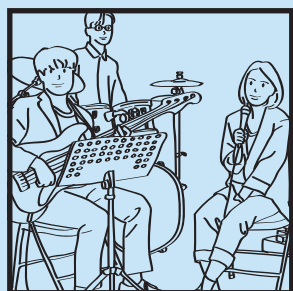
기타리스트 백선희



뮤지션 고진현



뮤지션 정유천



찬란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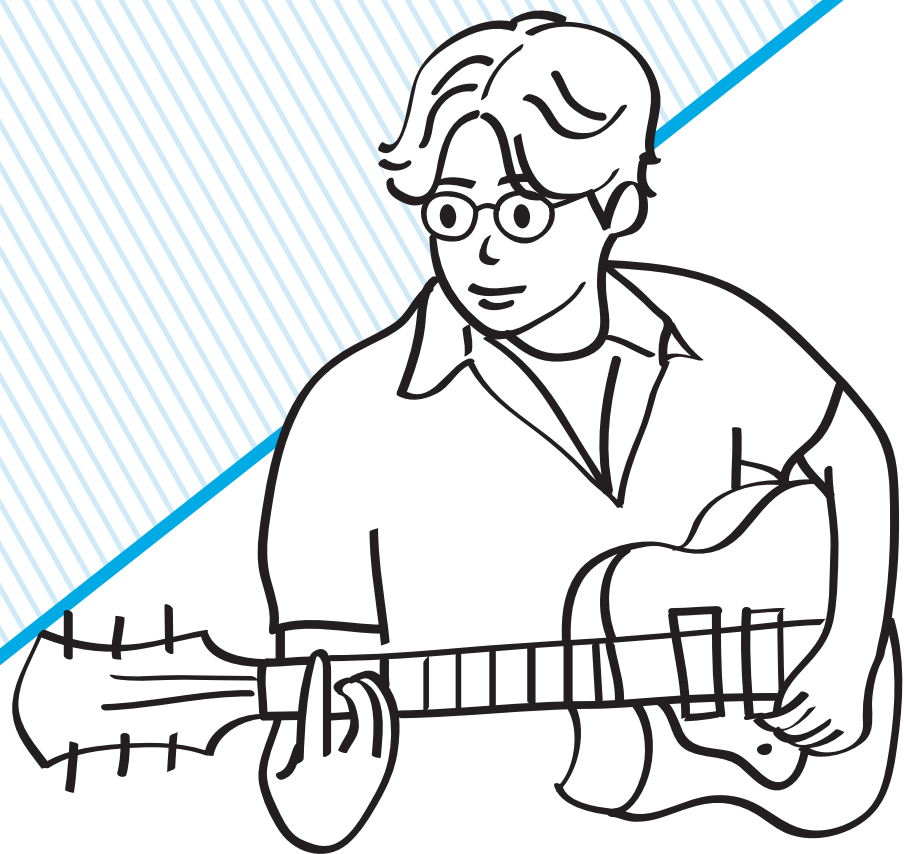
피아니스트 안종도



바리톤 설현철



드러머 허진혁



단단하고 견고한 음악을 추구하는 기타리스트 백 선 혁

날이 좋은 주말 오후, 푸근한 미소의 백선혁 기타리스트를 만났다. 부평구청 근처에 위치한 작업실 내부는 그의 애장품인 기타들과 각종 공연, 음반 포스터, 최근에 출연했다는 다큐멘터리 포스터 등으로 가득했다. 나름 질서정연한 배치들이 그의 세심함과 꼼꼼함을 대변하는 듯 했다. 자신의 인장이 오롯이 새겨진 기타앨범을 언젠가는 꼭 내보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다.

자신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Wasted Johnnys(웨이스티드 자니스)라는 밴드에서 기타리스트로 4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세션 연주(기타)로 앨범작업에 참여한 곡이 180곡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도 기타레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나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17년 정도 됐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기타 연주가 너무 좋아서 이걸로 평생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후로 전공자의 길을 자연스럽게 잘 이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프로 전향은 대학 졸업 후인 2014년도부터입니다. CCM앨범이었어요, ‘홀리원’이라는 팀이었는데 앨범의 전곡에 기타로 참여했습니다. **작업실이 아담하고 좋습니다.** 집이 이사 가기 전에는 걸어서 3분 거리였습니다. 집과 가깝고 서울에 비해 가격도 싸고, 넓어서 좋습니다. 2015년부터 작업실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백선혁 씨의 작업실은 북구도서관 앞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 지하를 여러 개의 음악 작업실로 만들어 대여를 해주는 곳이다. 이 근방에 이런 음악작업실 대여 공간이 많다고 한다.)**

최근 활동에 대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속해있는 밴드 Wasted Johnnys(웨이스티드 자니스)의 1집 앨범 작업과정을 다룬 〈불빛아래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다른 밴드 3팀과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영화가 극장에 개봉이 되어서 관객인사를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

드의 2집 앨범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얼마 전에 공연이 끝난 뮤지컬 〈더 캐슬〉의 기타 세션과 슈퍼주니어 멤버인 규현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애월리〉의 편곡과 연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 정지훈이 출연한 〈웰컴 투 라이프〉라는 드라마 OST 〈여기에서〉라는 곡의 기타 세션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인디 뮤지션 앨범에 기타리스트나 편곡자로 녹음을 해주고 소정의 수고료(웃음)를 받고 있습니다.

활동이 굉장히 많으신데, 부평지역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부평에서는 기타연주보다는 관련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부원여중, 부평서여중, 공향중학교 밴드부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산동에서 ‘다락엔 롤’이란 밴드대회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공향중학교가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천 주안에 있는 ‘GS 인스텍’이란 곳에 파견예술인들과 함께 퍼실리테이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에서도 연주나 공연 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흥대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지역의 뮤지션들이나 예술인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인천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부평에서 하는 음악행사가 많은 걸로 아는데 저희 밴드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부평에서 음악도시 관련 사업이나 행사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부



평이란 곳을 거주지의 기능 이외로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서울의 홍대나 이런 곳에서 인정을 받고 공연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인천 산다고 하면 멀리서 왔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인천이 생각보다 가까운데, 어릴 때부터 부평풍물축제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풍물축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풍물축제처럼 지속성이 있는 그런 음악 행사가 계속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도시라는 콘셉트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부평에서 하고 싶은 예술 활동이 있나요?** 콘셉트가 분명한 음악공연이나 장르별 공연 등 재밌는 기획이 있다면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어요?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세션 연주를 하다보면 남의 곡을 연주 해준다는 것에 지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작곡을 많이 해서 제 앨범을 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앨범에서는 제가 기타를 연주하지 않고 다른 뮤지션들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해석이 다르고 느낌이 달라서 오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연도 계속 꾸준히 할 예정이고요. 주체적인 활동을 하려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밴드로서의 앞으로의 계획은 2집 작업과 인천에서 열리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메인 무대에 서 보는 게 꿈입니다. **세션 연주자로서 지치는 경우가 많**

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떨 때 그런 감정을

느껴지나요? 사실 그런 점은 요즘도 겪고 있습니다. 녹음 할 때마다 실력적인 부분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들이 항상 있습니다. 기타 세션 일이 순간순간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데, 나는 이전에 이런 작업을 해왔어 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경력보다는 그 순간에 실력으로 못 보여주면 경력과 커리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됐거든요. 기타 세션 제안을 받으면 항상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를 악물고 만들어야만 하나 생각하다보면, 그래서 지치는 것도 있어요. 물론 다른 유명한 뮤지션들도 거쳐 왔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조금 더 힘들어 보이는 거. 그들은 금방 작업을 끝내고 성과도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저들보다 몇 배 더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는 것 같고, 그런 점이 굉장히 힘들습니다. 뒤쳐졌다는 느낌보다는 나도 잘하긴 하는데, 결과물을 내기까지의 과정상의 고난과 노력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평 지역에 다른 예술인을 추천하신다면? 연기하시는 조연희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부평여고 쪽에 살면서, 대학로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인천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인천 부평에 아는 분 중에 유일한 예술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평에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제 작업실 주위가 요즘 ‘청리단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연꽃빌라’라는 카페가 있는데 분위기가 편안하고 책도 있고 해서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만식 우육탕면 집도 있고, ‘히든키친’이란 곳도 있고, 생각해보니 이 주위에 갈 곳이 너무 많은데요. 청리단길 자체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인터뷰 : 조은성 (2019.9)



#기타리스트 백선혁#

2018 Liverpool Sound City 공연/ 규현 <애월리>등 200여곡 레코딩 세션
양희은, 민애경, 김진호, 조수미 등 라이브 세션. 뮤지컬 다수 세션



자연과 여행을 사랑하는 싱어송라이터 뮤지션 고진현

해질녘 풍경을 좋아해서 어디에 머물든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의 가장 가까운 석양을 보러 간다는 젊은 뮤지션을 만났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을이 지는 서쪽 바다 앞에 걸터앉아 노래를 부르는 그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 중인 고진현님 먼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평이 고향이고, 현재 부평에서 거주하며 음악 작업을 하는 고진현입니다. 싱어송라이터로 제 노래를 만들며 작사, 작곡, 노래, 프로듀싱을 합니다. 그 외에 폭을 넓혀서 뮤지컬 음악편곡과 같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얘기하자면 싱어송라이터인데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 뮤지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뮤지컬 영화의 곡을 연출하기도 했고 생각해 보니 시각예술 작가님들과 전시도 두 번이나 했네요. 하나는 가좌동 예술반점 길림성에서 한 <욕>이라는 전시였어요. 스트레스

를 푸는 전시였는데 관련된 곡을 영상과 함께 묶어 낸 작품이었어요. 또 하나는 퍼포먼스 팀 '부두의 아이들' 프로젝트로 정예지 씨가 기획한 콘셉트에 맞는 음악을 작곡했었어요. **전시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하셨네요? 주요 활동은 앨범 제작일 것 같은데 어떤 앨범을 발표하셨나요?** 아무래도 싱어송라이터로서 가장 뿌듯한 일은 역시 앨범 제작이죠. 제 경험에서 비롯해서 곡을 쓰고 음반으로 만드는 과정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는 창작물이니깐요. 첫 번째 디지털 앨범인 <세화리 운슬>은 제주도 구좌읍 세화리에 머물 때 쓴 노래예요. 밤바다에 달이 비치면 반짝반짝 바다가 빛나는데 그 운슬을 보며 곡을 썼어요. 그리고 컴필레이션 앨범 <시:선>에 담긴 <원망하지 않으려 해>라는 곡이 제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어요. 이 노래도 역시 제주와의 인연이 있는데 앨범 커버 그림을 제주에 살고 있는 '전이수'라는 아이(11살)가 그려줬어요. SBS영재발굴단에도 나온 어린이 동화작가였는데 <시:선> 앨범에 수록된 음악 6곡을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려 준 컬래버레이션 작업이었어요. **공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주도에서도 공연이 있었고 전이수 군이 전시 오픈을 할 때도 공연을 했었어요. 부평에서 한 활동으로는 작년에는 부평풍물축제 버스킹 무대와 부평 뮤직위크 공연을 했어요. 락캠프에서 개인 공연도 2회 정도 했고요.

—
아직 나이는 젊지만 폭넓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 음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궁금해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게 좋아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

3 때부터 전문적으로 노래를 배우게 되었어요. 노래를 부르다 보니 내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고3 때부터는 곡을 쓰면서 보컬에서 싱어송라이터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죠. 지금은 그래서 '노래는 하나의 언어'라는 생각으로 곡을 쓰고 노래해요. 힘겨움을 털어놓을 곳이 마땅치 않을 때는 음악이 출구가 되었거든요. 나아가 다른 분들이 내 노래로 공감하면 힘이 되었죠. **어떤 식으로 곡을 만드시나요?** 처음에는 건반으로만 곡을 쓰다가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백제예술대학교 '컴퓨터미디어작곡편곡과'에 진학했어요. 사운드를 컴퓨터로 직접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웠죠.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었지만 혼자 장비를 터득한 부분이 컸어요. 지금은 멜론, 지니뮤직, 네이버뮤직 등에서 '고진현'을 검색하면 제가 만든 곡을 만날 수 있습니다.(웃음) **아까 뮤지컬 음악 편곡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나요?** 원곡 멜로디 코드를 각본에 맞게 개사하기도 하고 다른 장르로 편곡하기도 해요. 원곡이 발라드인데 스윙느낌으로 바꿔야 하면 스윙으로 재편곡하고 대사랑 타이밍을 맞춰보죠. 엄밀히 말하면 같이 하는 사람과의 호흡이 중요한 작업이에요. 당시 제주도에서 작업을 했는데 연출하는 친구랑 잘 맞아서 더 재밌었죠. **뮤지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제주에서 <제주가 땀긴다>라는 창작 뮤지컬에 편곡연출을 맡았어요. 제주도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이었죠. 전체적인 프로듀싱 작업을 거쳐 CD로 제작한 이후에 굿즈로도 만들어 판매했었죠. 뮤지컬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 더 열정이 생겼어요. 편곡은 어려운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만의 벽을 깬 경험이었죠. 그 이후 음악과 다른 장르를 접목하

는 일에도 흥미를 느꼈어요. 그 인연이 이어져 올해는 영화 쪽 일도 했었어요. 제목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고 단편 음악영화인데 정식개봉은 미정입니다. 〈서른 즈음에〉를 작곡하신 강승원 씨의 곡들을 편곡해서 만들었어요. **이야기 속에서 제주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고진현님과 어떤 인연이 있나요?** 미디를 배우면서 혼자 녹음과 편곡, 프로듀싱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장비를 가볍게 하면 배낭에 들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작업을 할 수 있죠. 제작년에 일상을 벗어나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제주만의 매력을 느꼈고, 머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1년 정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하면서 숙박과 동시에 음악을 즐기는 생활을 했어요. 제주도에서 쓴 곡으로 앨범을 내기도 하고 거기에서 예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제주도에서 뮤지컬 작업까지 하게 되었죠. **제주에서 많은 활동이 있었네요? 제주도가 많은 영감을 주었나요?** 저는 바다나 하늘 등 자연적인 요소에서 영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주도가 예술하기 좋은 곳이었어요. 제주도는 나가면 바다고 숲이고 맑은 하늘이어서 마음이 더 여유로워지죠. 지금은 제주도를 제2의 고향처럼 느껴요. 실제 고향은 부평이지만 마음의 고향으로 제주도를 생각해요. **여행이 인연이 되어 제주에서 여러 작업을 하셨는데 고진현님에게 여행의 의미는 남다른까요?** 생각을 환기하고 시선을 달리할 수 있어서 여행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여행 계획을 세우곤 하죠. 단순히 쉬고 즐기러 간다기보다 생각지 못한 환경과 마주해 떠오르는 영감을 기대하며 떠나죠. **혹시 최근 간 여행지 중에 기억에 남는 곳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엄마와 남아프리카에 다녀왔어요. 끝없이

펼쳐지는 초원과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동물들을 보는 것은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해가 뜨고 질 때면 차를 타고 나가서 광활한 풍경과 동물들을 만났어요. 경이로운 광경이었고 생명과 자연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어요.

—

앞으로 쓰게 되실 곡이 기대되네요. 초반에 부평에서의 활동도 얘기해 주셨는데 생각나는 또 다른 활동도 있으신가요? 네,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19회 ‘인천청소년가요제’ 때 수상을 했어요. 이후 수상자들이 경인방송 라디오에서 토크도 하고 라이브도 했던 아련한 기억이 나네요.(웃음) **부평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내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데, 혹시 지역에서 해보고 싶은 작업이 있나요?** 보통 저의 이야기를 곡으로 쓰는데,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도 곡으로 써보고 싶어요. 부평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아마 자기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노래로 만들고 싶지만 직접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연을 듣고, 그 이야기들로 곡을 써보고 싶어요. 양이 많아지면 앨범을 발매하고 지역에서 공연도 하면 더 좋겠죠. 전에 제주도 미술관에서 이별을 수집한 〈실연의 박물관〉이라는 전시가 열렸어요. 그 내용이 담긴 책을 읽어봤거든요. 이처럼 나도 사람들의 사연을 받아서 한 곡 한 곡 만들다 보면 앨범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팟캐스트나 여러 SNS를 활용해 봐도 좋겠네요!** 네, 저도 유튜브 채널을 생각했었어요. 아직 구체적인 기획은 없기 때문에 지역에 함께 협력할 분을 만나게 되면 차근차근 실행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인터뷰가 그 기획에 도움을 주는 인연을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현재 부평에서 살고 계신데, 특별히 부평인 이유가 있나요? 집에서 독립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일까요? (웃음) 반면에 제주도는 제가 선택해서 살았던 곳이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살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부평도 좋아해요. 익숙한 동네라 생활하기도 편해요. 친구들도 인천에 살고 있어서 아직 인간관계가 살아 있죠. 무엇보다 김포공항, 인천공항이 가까워서 좋아요. 또한 1시간 이내 거리에 바다도 있고, 서해에서 해 떨어지는 노을 보는 것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인천이 좋아요. 제가 여행을 가면 낙조를 일부러 찾아볼 정도거든요. 한편으로 부평이 음악도시이니까 집 앞에서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려있죠. 요즘은 부평아트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뮤지션 고진현#

2018 디지털싱글앨범 <세화리 운술> 발매
컴필레이션 앨범 <일망하지 않으려 해> 발매
창작뮤지컬 <제주가 땀긴다> 편곡/넘버 앨범제작

일을 하면서 공연도 볼 수 있어요. 교육이나 세미나 행사도 접하게 되고요. 지역의 문화 정보가 쉽게 노출되니 여러 득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작가님의 친언니 분이 현대미술 작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함께 협업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직은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서로의 경력이 더 쌓이면 협업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지역에서 추천하고 싶은 예술인이나 문화 공간이 있나요?** ‘작업실 이진고’랑 ‘락캠프’ 추천하고 싶어요. ‘작업실 이진고’는 작가의 작업실에서 정해진 클래스 시간에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이에요. 저도 종종 나가서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락캠프’는 서울에 가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락밴드 공연을 토요일마다 만날 수 있어요. 좋아하는 밴드가 오거나 궁금한 밴드가 오면 가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부평에 오래 사셨잖아요. 나만의 또 다른 아지트가 있나요?** ‘멜브(MELb)’ 카페랑 집 앞에 ‘코모리’ 카페에서 힐링 하는 편이죠. 그리고 원적산 등산을 좋아해요. 산에 올라가면 멀리 연안부두 바다가 보여요. 석양을 보러 해질녘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추상적인 감정이나 자아 성찰적인 것들을 노래로 만들고 싶어요. 자연을 벗 삼은 곡도 써나갈 생각이고요. 저는 작사도 직접 하잖아요. 노래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생기면 출발점으로 삼고 쓰죠. 다작도 중요하겠지만 진짜배기 노래를 만들고 싶어요.

인터뷰 : 고진이 (2019.9)



음악과 함께 지역문화를 지켜 온 뮤지션 정 유 천

부평의 밴드와 공연장을 찾으며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들은 곳이 부평구청 맞은편에 있는 ‘락캠프’였다. 락캠프를 운영하는 정유천씨는 현재 ‘정유천 블루스 밴드’로 매주 클럽에서 공연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행사에서도 자주 만나 볼 수 있는 얼굴이다. 20인 구성의 대형 밴드인 ‘올스타 빅밴드’의 수장이기도 한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어스름한 저녁 락캠프를 찾았다.

저도 몇 번 ‘정유천 블루스 밴드’의 공연을 토요일 밤에 본 적이 있는데요. 우선 락캠프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락캠프는 1997년 부평 백운쪽에서 시작했어요. 90년도가 우리나라 인디음악의 태동기였죠. 홍대 주변에는 그런 클럽이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인천에는 별로 없었어요. 인디 음악

은 보통 자유로운 분위기의 클럽에서 실험적인 음악을 하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에 클럽을 시작하게 되었죠. 벌써 22년이 되었어요. 10년 정도 백운역 주변 부평삼거리에 있었어요, 운영이 힘들어서 쉴 겸 강화도 외포리에서 4년 정도 있었던 적도 있었죠. 부평삼거리에 있을 때는 일주일 내내

공연을 했는데 강화에서는 기획 공연을 주로 했었죠. 그리고 지금, 부평구청 맞은편이 자리에서 8-9년 되었죠. 지금 블루스 밴드를 하고 계시잖아요. 밴드를 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40년 넘게 밴드를 했는데, 락캠프를 열면서 ‘내츄럴 푸드’라는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으로 블루스, 재즈, 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다가 현재 자리로 옮기면서 블루스 음악 위주로 연주하는 ‘정유천 블루스 밴드’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블루스’를 전문적으로 시작한지는 8-9년이 된 거죠. 락캠프를 시작할 때는 저도 젊었으니까 하드록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블루스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블루스를 하게 되었죠. 저는 블루스를 락캠프에서 거의 처음 라이브를 들은 것 같아요. 블루스는 어떤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딱 한 마디로 표현하긴 어렵겠지만 블루스 음악은 영혼이 담긴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노래를 잘 한다기보다, 연주자가 본인이 느끼는 회로에락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신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장르인 것 같아요. 음악인의 길을 걷게 된 동기가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스스로 택한다기보다 운명적으로 하게 되었죠. 저 젊은 시절에는 다들 통기타를 많이 쳤던 때라서 저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혼자 터득하면서 음악을 좋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밴드를 만들었죠. 70년대에 밴드는 굉장히 멋있는 장르였거든요. 처음으로 밴드로 돈 받고 일했던 곳이 신포동 안에 있는 고고장이었어요. 그 이후에 해군 군악대의 기타리스트로 뽑혀서 3년 동안 기타를 쳤어요. 그리고 나오니까 군대 선배들도 음악을 하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어요. 거기다 제가 클럽

까지 하게 되니까 계속했죠. 나이 먹어 생각해보니 제가 택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우여곡절에도 락캠프는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밴드 음악, 블루스 음악은 경제적인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클럽들도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 이유로 해나가고 있는 거죠. ‘올스타 빅밴드’의 대표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밴드인가요? 해군 군악대에서 20여명이 넘는 빅밴드를 경험해봤어요. 밴드는 여러 형태로 나뉘어요. 보통은 4-5인조가 많고 7-8인조가 되면 ‘캠보밴드’가 되고요. 악기가 추가되어 10인이 넘으면 ‘풀밴드’ 그리고 보통 15인 이상이 되면 ‘빅밴드’라고 하죠. 제가 군악대에서 빅밴드를 경험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화려하고 더 풍부하죠. 그리고 ‘스윙재즈’라는 장르는 즐겁고 신이 나고요. 우리나라에는 빅밴드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방송국 악단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보니 아쉬운 마음에 14-5년 전 쯤 빅밴드를 만들었어요. 좋은 문화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욱이 대중음악이 한 장르로 편향되어 있다 보니 나이가 많은 숙련된 연주자를 써주는 곳이 없어요. 연주자가 나이를 먹어야 숙련된 소리가 나지만, 상황이 그렇다보니 악기를 놓게 되죠. 그래서 스윙밴드라는 문화를 지켜보자, 인천에 있는 연주자분들을 모시고 결성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제일 힘든 문제는 대형 밴드를 이끌어가는 운영비죠. 재작년까지는 부평구문화재단 상주단체로 있으며 공연도 많이 했지만 점점 힘들어졌죠. 지금은 이름을 유지하고 잠시 쉬는 시기예요.

지금까지 많은 공연을 하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으신가요? 가장 좋아하는 공연은 자유로운 클럽 공연이에요. 저는 어디서 공연을 하던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히 여겨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가져가요. 특히 올해는 송도 맥주 축제 분위기가 좋았어요, 큰 공연이었고 관객들도 즐거워했고 저도 맥주를 마시며 공연을 했죠. 제가 재미있다고 느끼면 관객들 반응도 좋더라고요. **곡이 20여곡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음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공식적으로 음반에 담아 발표한 것은 1986년에 ‘자유인’이라는 밴드로 낸 앨범이었어요. 그 다음 정유천 솔로로 91년에 음반을 냈죠. 음반에 담긴 곡은 지금까지 20곡정도 되요. 내년엔 ‘정유천 블루스 밴드’로 내려는 앨범에 들어갈 신곡이 8-9곡이 더 있고요. 블루스 밴드로는 첫 앨범이에요. 음반 자체도 91년도 이후 처음 내는 것이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1집 앨범에 가장 애정을 쏟는데 그게 대중적인 반응이 없으면 맥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다보니 거의 30년 동안 포기를 했었죠. 첫 앨범을 발표했던 시기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했어요. 서태지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제 앨범은 묻혀 버렸는데, 얼마 전에 만나 분이 당시 제 타이틀곡인 〈빨간 사과〉를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누군가는 내 음악을 좋아하고 있다는 게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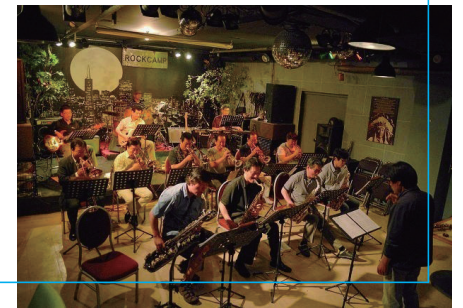
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 근황도 얘기해 주세요.** 블루스 음악에 대한 음반을 만들고 싶은 맘이 있었어요. 제가 노래를 만들고 가사도 쓰는데 대부분 삶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만들어요. 지역에 관한 노래도 만드는 편이에요. 2년 전 락캠프 컴필레이션에 담겼던 〈신촌〉이라는 노래도 부평 지역에 대한 곡이죠. 이번에 새로 나오는 앨범에 담기는 곡이 〈터진개 블루스〉라는 곡이에요. ‘터진개’가 뭐 인 것 같나요? **지역명인가요? 뭔가 터졌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강화도 외포리의 옛 지명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포동도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순우리말로 육지가 터져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뜻이라 해요. 예전에 부평 신촌 거리는 미군기지가 들어와 ‘애스컴시티’로 불렸죠. 반짝반짝하던 그 시절을 담은 곡을 내볼 생각이예요. 곡 작업이 끝나서 공연은 하고 있어요. 내년엔 녹음작업에 들어가요. **락캠프와 올스타 빅밴드의 근황과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락캠프와 올스타 빅밴드는 미래가 밝지 않아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저만의 문제는 아니예요. 인천의 6개 클럽이 모여서 정보교환을 하곤 하는데



다들 쉽지 않아요. 클럽들을 작은 민간 공연장으로 보고 관에서 간소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동네에 편하게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활성화 되어야 지역의 문화가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지역의 문화 공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생기면 좋겠네요. **자연히 부평에 희망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로 이어졌네요.** 지금까지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지원도 필요하죠. 하지만 예술을 지역에서 업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업으로 삼던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제가 외부에서 공연을 하거나 강연을 하는 것으로 락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위태위태한 상황이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공간의 임대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올스타 빅밴드도 전에는 매주 연습을 했는데 올해는 현실적인 문제로 그렇지 못해요. 그래도 더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어요. **부평에 자리 잡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애스컴시티’ 시절 아버지가 제빵사로 부평에 자리잡으시면서 50년 동안 살고 있어요. 지역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있었고요. 그렇기에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죠. 부평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을 때 ‘문화’로 밖에 미래를 생각할 수 없어요. 인천은 바다와 인접한 도시지만 부평은 내륙이기 때문에 유형자원이나 관광지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냉정히 말해 거의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가 좋지 않죠. 미래를 꿈꾸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

가 생각했을 때 부평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음악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완성이로 이끌어야죠. 부평은 현재 거점이 필요해요. 락캠프와 같은 클럽이 여러 개 생겨서 벨트로 연결되어야죠. 그 방향으로 가는 길에 지역이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평에서 오래 활동하시면서 지역에 아시는 예술인이나 단체가 많으실 것 같아요. 얘기하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제가 고문으로 있는 ‘부평문화예술인협회’는 95년도부터 시작된 가장 큰 예술인 단체예요. 작은 단체로는 문학에 ‘굴포문학회’가 있어요. 국악 풍물 단체로는 ‘아작’, ‘너나들이’,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이 있고요. 청천동에는 ‘청천극장’이라는 청소년들 음악교육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산곡동에 ‘미추홀 정가원’이라는 시조를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지역 밴드로는 ‘예술빙자사기단’, ‘gut’라는 그런지 록밴드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문화는 계속 변화하죠. 뭐든지 정점에 위치해 있을 때 다음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인터뷰 : 고진이 (201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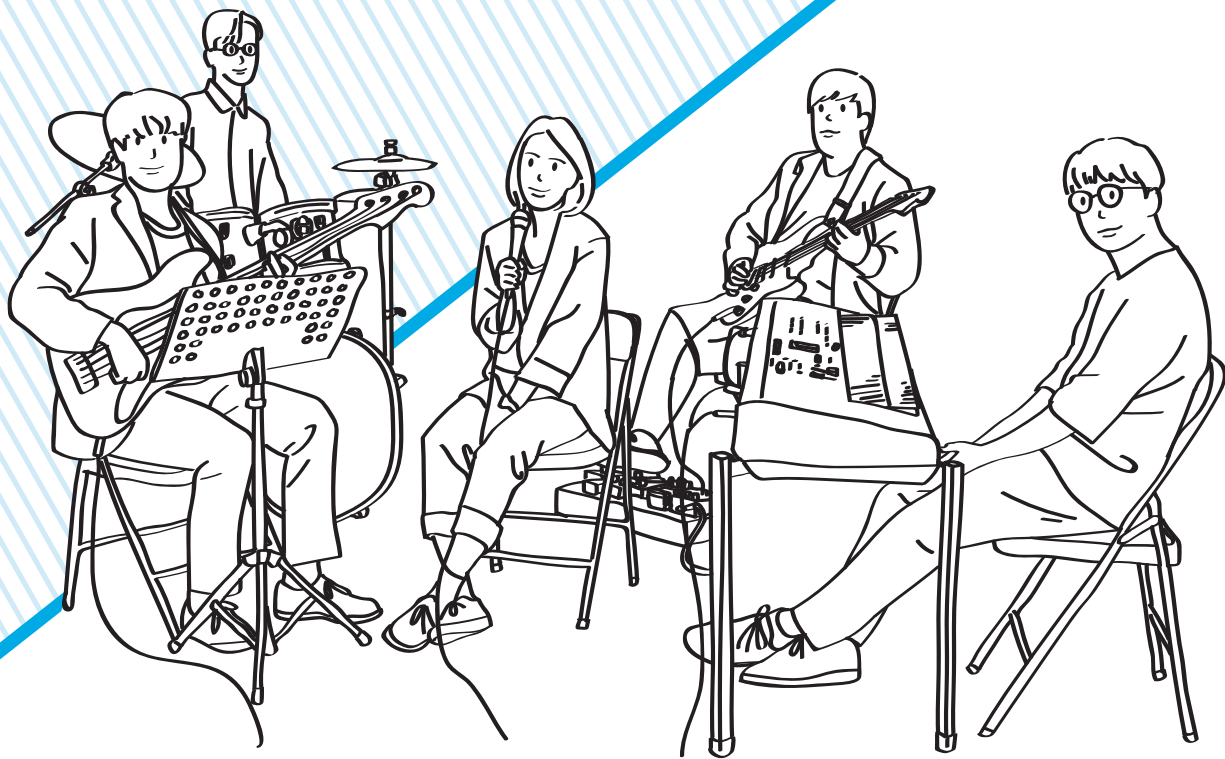


#뮤지션 정유천#

(사)라이브음악문화발전협회 대표이사
인천밴드연합 대표 - 인천대중음악전문공연장협회장
라이브클럽 ROCKCAMP 대표

다섯이 모여 만 개의 빛을 튕기는 웃음소리조차 연주 같은, 찬란밴드

밴드 이름처럼 찬란한 마음 품고 비상하려는 5명의 멤버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합주실을 찾았다. 그들의 음악적 에너지 때문이었는지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 찬란밴드의 1살 이야기는 마치 노래를 듣는 것처럼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었다.



찬란밴드 멤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렉&통기타에 박태민, 건반&코러스에 이수창, 저는 보컬을 맡은 허미란, 베이스에 최대영, 드럼에 김주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결성 동기가 궁금하네요. 부평 구문화재단에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진출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길 듣고 현역들이 모였어요. 그 권유와 중심에 안수민 대표님이 계시고요. ‘찬란’은 제(허미란)에 명으로 쓰고 있었던 것인데, 밴드를 결성하면서 쓰게 되었네요.(웃음) 지난 에스컴시티프로젝트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신촌> 투어에 저희 작가님들이 인상이 좋았다고 얘기해요. 주요 활동 분야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커버곡 연주를 주로 하고 있어요. 기존 아티스트 곡에 저희의 색깔을 가미해 연주하는 거죠. 차차 자작곡을 준비해서 발매도 하고 활동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 커버곡이 무엇인가요?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거야> 등이 있어요. 최근에는 10cm 노래 준비하고 있어요. 이곳 연습 공간(부평 구문화재단 디지털뮤직랩 사운드 스튜디오)은 어떤가요? 시설이 좋아요! 홍대보다 좋아요. 밴드 구성이 되면서 저희 합주는 어떻게 하면 될까 기다리고 있다가 좋은 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웃음) 근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지난 7월, 에스컴시티 프로젝트에서 드러머 김삼순 선생님과 함께 했었는데, 너무 영광이었고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 시절의 음악을 접할 기회가 없는데 많은 공부가 되어 좋았어요. 그리고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에서 버스킹도 했었는데 아는 사람을 만날까 조마조마했어요.(웃음)

공연 처음 하는 데 부끄러운 거죠. 부평은 잘 아니까 아는 사람 만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노래했던 거 같아요. 자작곡도 많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무튼 어색해하면서도 재밌기도 했어요.

부평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박태민) 연수구에 살다보니 부평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처음 와봤어요. 지금까지도 부평이 어려워요. 학원도 부천으로 다녀서 지나는 통로일 따름이었죠. 부평 하면 지하상가! 그냥 지하상가가 떠오르죠. 익숙하지만 전(이수창) 지하상가 길치인데 같은 곳도 살짝 헷갈려요. 오래되었고, 하지만 젊고, 세계에서 제일 큰 지하상가. 평리단길이 생기면서 계속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옷가게나 카페가 많았다면 요즘은 라이브클럽도 생기고 연주공간도 있으니까요. 부평은 인천의 동쪽인데 서쪽(동인천)으로 진출할 생각이? 일단 부평 다 잡고요.(웃음)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올해 부평풍물축제가 취소되었는데요.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대신 저희가 다음 주 10월 11일 <뮤직게더링 2019>공연을 합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저희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해 안수민 대표님을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습시다.(웃음) 사이사이 자작곡도 많이 만들고 유튜브에도 많이 올릴 예정이에요. 그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올해 안으

로 저희 이름의 앨범 발매를 준비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할 수 있다고 하니 저희는 믿고 따를 수밖에요. 대표님이 그러셨는데, 내년에는 페스티벌 갈 거라고. 지산도 있고 펜타도 있고. 참여하면서 입지를 키워주고 하십니다. (다함께) 내년, 페스티벌 갑시다! **굉장히 빠르네요.** 빛을 봤을 때 툭 치고 나가야.(웃음) **다른 분야 예술인들과의 교류가 있나요?** 아직 기회가 없어요. 뭔가 다른 아티스트랑 접하거나 교류할 기회가 없었어요. 공연 때 다른 팀들을 보긴 하지만 세팅하고 리허설하고 연주하고 곧바로 빠져줘야 하니 대화는 없었던 거 같아요. 이번에 하는 <뮤직게더링> 공연에서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서로가 음악적 색깔은 비슷한가요?** (이수창) 사실 밴드는 나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시너지가 생기는 거 같아요. 저는 ‘에너지를 뿜어주겠다’, ‘점점이 있겠다’ 싶은 그 점점을 찾아가는 게 밴드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

한 줄로 가능할까요? 찬란밴드는 000(이)다. ‘찬란’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도 여기가(옛 인천기무사 막사) 음지였던 곳인 만큼 ‘이곳을 찬란하게?!’ 그런 마음이 었거든요. ‘빛을 발하는 느낌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어떤 밴드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내일은 괜찮겠지’라는 희망을 품으니까 우리는 내일을 노래하자. 내일을 노래하는 찬란밴드! 라고 하고 싶습니다.

—

지역에 다른 추천할 분(팀)들은 있을까요?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는데 가야금, 첼로 등의 3인조인데, 영화 <어벤져스>의 OST 커버 연주를 하셨던 팀이 있고요. 밴드는 아니고 ‘창고’라는 펌! 음악인들에게 공연 기회가 되고 구민에게 음악을 알려주고. 토요일은 항상 공연을 하는 거 같아요. 사장님이 부평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티스트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어서 놀랍고, 고맙고, 그래요. **찬란밴드가 부평의 다른 팀(혹은 장르)과 콜라베레이션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풍물하는 젊은 팀도 많더라고요.** 어디든 맞춰드려요. 그런게 목표예요. 행복해요.(웃음) **건강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 그러면 저희 없어지나요?(웃음) 펜타포트 페스티벌 같은 축제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홍대는 클럽데이가 있어서 티켓 하나 사면 모든 클럽을 다닐 수 있는데, 부평도 클럽데이나 페스티벌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사람에게 설레는 일일 것 같아요. 요새 홍대는 댄스 팀이 많고 라이브클럽이나 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대료 문제로 문 닫고 분산되는 느낌이 나요. 이 기회에 부평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최대영)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일 기회를 주셔서 부평구문화재단에 고맙습니다. 이곳 합주공간을 잘 이용해서 밴드 녹음도 하고 드럼녹음도 하고요. 앨범 준비도 여기서 할 거 같아요. 좋은 공간입니다. 에어컨도 빵빵하고요.(웃음)



인터뷰 : 유광식 (2019.10)



#찬란밴드#

2019 공연 <뮤직게더링 2019>
공연 <소리로 기억하는 부평>



바다가 달은 두 도시에 살며 도시의 기억을 음악에 담아내는 피아니스트 안 종 도

2012년 롱티보 콩쿠르 1위없는 2위, 최고독주연주상, 최고현대작품해석상. 2016 대한민국창조문화예술대상 음악부문 대상 수상. 비엔나 콘체르트하우스, 상트 페터스부르크 필하모니 등 이름만 들어도 벅찬 세계의 유명 공연장들에서의 독주회.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 프랑스로디오심포니, 함부르크심포니오케스트라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들과의 협연. 그의 이름 앞에 따라오는 긴 단어들은 세계를 누비며 활동하는 그를 마치 빛나는 무대 위에만 존재할 것 같은 사람처럼 느끼게 한다. 하지만 때때로 부평의 어떤 카페에서, 단풍이 예쁜 동네 뒷산에서 그를 마주치게 될 수도 있다. 국내 연주가 있을 때 잠깐씩 머무는 부평이지만, 나는 부평에 '살고'있다고 말하는 그를 '부평'에서 만났다.

안녕하세요. 안종도 피아니스트님. 직접 소개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안종도라고 합니다. 현재 부평에 살고 있고요. 독일 함부르크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과 유럽을 오가면서 연주활동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함부르크에서 '클랑 아카데미(Klang Akademie)'라는 프로젝트를 설립했어요. 최고의 피아노로 알려진 '스타인웨이'의 고향이 함부르크거든요. 그래서 피아니스트들과 함께 피아노의 소리도 연구하고 악기의 제작과 조율 등을 함께 배우고 연주까지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사실 피아니스트들은 다른 악기들과 달리, 공연장에 있는 피아노를 써야하고 전문 조율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악기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활동하는 유명 피아니스트들을 함부르크로 초청해 함께 악기에 대해 연구도 하고, 연주도 하고, 마스터 클래스도 열고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3년 전부터 잡지(조선 이코노미)에 음악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칼럼도 기고하고 있어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럼 처음에 피아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피아노는 네 살 때 처음 배우게 됐어요. 어머니의 친구께서 집 앞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셨거든요. 어머니를 따라 놀러가서 구경하다가, 선생님께서 한 번 배워보겠냐고 권유하셨고, 그 때 '네!'하고 대답을 한 것이 시작이었어요. 사실, 아버지께서 음악을 많이 좋아해서 음악을 하고 싶었던 꿈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제 꿈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거쳐 고등학교 2학년 때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가게 됐죠.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을 졸업한 후 함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마

치고 2012년부터는 함부르크 국립음대에서 강의도 하고 있어요. 정말 실 틈 없이 달려가고 계시네요. 피아노는 왜 그렇게 좋았어요? '왜'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피아니스트의 삶을 꿈꿨던 것 같아요. 다른 길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가끔 제빵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웃음) 케이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마카롱도 만들어보고 싶고요. 영국의 유명한 지휘자인 다니엘 하딩이 1년 간 에어프랑스의 부조종사로 일하면서 안식년을 취한다던데, 중도님도 안식년에 제빵사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피아니스트 게르하르트 오프츠도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이 있어서 유럽에서 연주 여행을 다닐 때는 직접 비행기를 조종해서 다닌다더라고요. 저도 직접 빵을 구워 연주 리셉션에 내놓게 된다면 재밌겠네요.

—
최근에는 어떤 음악활동을 하셨나요? 국외에서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클랑 아카데미'를 조직해서 바쁘게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국내에서는 지난 10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클라라 슈만의 음악을 주제로 피아노 삼중주 공연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자주 연주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공연이었죠. 사실 자주 연주되지 않지만 정말 좋은 명곡들이 많거든요. 지난 2017년에도 서울에서 <라모의 정원>이라는 타이틀로 장 필립 라모를 비롯한, 국내에선 자주 연주되지 않는 작곡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된 독주회를 열었는데 관객들이 새롭고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클래식 음악에도 다양한 색깔들이 많고 그런 다양함을 즐기는 재미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의미 있는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활동들 중 인상적이었던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공연은 아니었지만, 2012년 룬티보 콩쿠르에 참가했을 때 독주 경연 무대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 긴장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심사위원에게 평가를 받아야하는 경연 무대가 아니라, 그저 음악을 연주해야한다는 것만 생각하려 노력했어요. 무대에 올라 연주를 시작했을 땐 심사위원도, 관객도, 심지어 제 자신도 느껴지지 않고 정말 음악만이 존재한다고 느꼈죠. 저도 정말 처음 느껴보는 경험이었어요. 그 순간은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연주를 마치고 관객들의 박수 소리에 정신을 차렸고, 무대 뒤로 돌아온 다음에도 박수가 끊이지 않았어요. 콩쿠르였기 때문에 규정상 무대로 다시 나가 인사하는 커튼콜을 할 수는 없었지만, 연주를 마치고도 십여 분 간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음악만을 느끼며 연주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 그랑프리상과 함께 받았던 최고독주 연주상 역시 뜻깊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황홀하면서도 감사했던 기억이에요. **그때 연주했던 곡이 무엇이었나요?** 슈베르트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21번이었어요.

—

예술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좋은 점과 힘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점이라고 하면 자유로움? 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악만 생각하며 일상에서 영감을 얻고, 그것을 자유롭게 음악에 담아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음악이 곧 삶이 되니까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게 힘든 점이 되기도 하죠. 자유로움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도 따르고, 준비기간이 긴 연주라고해서 반드시 잘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자유로움 안에는 변수도 많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무슨 일에도 명암이 있기 마련이니 받아들이고 좋은 점을 더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

다시 부평이야기를 해볼게요. 부평엔 언제까지 사셨어요? 또 기억에 남아있는 부평은 어떤 모습인가요? 부평은 지금도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한국에 올 때마다 지내고 있으니까요. 부평은, 어쨌든 인천의 한 부분이고 인천은 항구도시잖아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또 다른 도시인 함부르크도 항구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클래식 음악이 제일 처음 소개된 곳이 인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항구니까 이런 문화의 유입이 더 빨랐겠죠? 그래서 인천에는 그런 자연스러운 음악적 토양이 있다고 생각해요. 열린 자세로 음악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함부르크도 독일에서 오페라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곳이에요. 그래서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열려있는 느낌. 그래서 인천에 있으면 함부르크 생각이 많이 나고, 함부르크에 있을 땐 인천 생각이 많이 나요. **부평에 오면 무엇을 하시나요? 부평에 왔을 때 들리는 공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음, 집에 오면 보통 잠을 자요.(웃음) 사실은 국내 연주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리허설을 다니고 출강 수업도 하고 바쁘게 시간을 보내느라 정말 집에서는 긴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죠. 동네 친구들과 근처 카페에서 밀린 이야기들을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요. 특별히 들리는 공간은 없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야트막한 산을 꼭 올라가요. 올 때 마다 계절이 바뀌어서 자연의 색깔이 바뀌는데 그게 정말 아름답거든요. 함부르크는 동산도 없는 평지라서 그런 자연 풍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평에 있을 때면 자주 동네 뒷산을 오르곤 해요.

—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은 나만의 목표가 있다면 얘기해주세요. 이제 다시 유럽으로 가

는데요. 올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투어연주도 예정되어 있고, 12월에는 다시 아시아에서도 독주 투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부르크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공연장인 ‘엘브 필하모니’에서도 독주회를 할 예정이에요. 내년에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클랑 아카데미’ 프로젝트도 좀 더 확장하려고 해요. 그리고 국내에선, 인천에 있는 한 공연장에서 마티네 콘서트의 기획과 진행을 맡게 됐어요. 총 5회의 공연인데 다양한 색의 음악들로 클래식음악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만의 작은 목표는.....제가 거주하고 있는 함부르크에 대한 애정도 깊은데요. 함부르크가 가진 음악의 역사적인 산물과 음악적 자산을 발굴하고 또 새로운 시도들과 접목하는 작업들을 해보고 싶어요. 함부르크 출신 음악가들로 브람스, 텔레만 등 잘 알려진 작곡가들도 있지만 숨은 인물들도 많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산물들을 찾아내고 또 유망한 신진 작곡가들과의 협업으로 자유로운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인천 내에서도 특히 부평이 음악적 자산이 뛰어난 지역으로 익히 알고 있는데 제 연주로 부평 구민들을 만날 수 있는 날도 곧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뷰 : 성채은 (2019.10)

#피아니스트 안종도#

현재 함부르크 국립음대 출강
2012 룬 티보 크래스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없는 2위, 최고독주연주상, 최고현대작품해석상
런던심포니, 프랑스라디오심포니, KBS교향악단, 인천시립교향악단 등과 협연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졸업, 함부르크국립음대 연주악 박사



따뜻한 햇살의 온기를 넉넉한 낮은음으로 담아 부르는 성악가 몽펠리에 극장 합창단의 바리톤 설현철

음악의 세계는 생각보다 넓었다. 황량하리만큼 넓은 무대 위에 홀로 서서 그 공간을 오롯이 감당하는 음악가도 있는 반면, 수 십 명이 만드는 무대의 조명이 채 닿지도 않는 곳에서 기꺼이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한 편의 오페라가 무대에 오를 때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것은 주역 가수들이겠지만, 공연장을 가득 채울 웅장함을 만들어내는 역할은 따로 있다. 8시간의 시차를 사이에 두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녕하세요. 설현철 성악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 출신의 성악가, 바리톤 설현철이라고 합니다. 현재 프랑스 남부에 있는 몽펠리에 극장 합창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음악대학에서 대학원과정까지 마치고 프랑스로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계속 콩쿠르, 오디션 등에 참여하다가 최근 ‘몽펠리에(Montpellier)’라는 지역에 있는 몽펠리에 극장 합창단에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부평 출신’이라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부평에 오래 사셨나요?** 부평은 제 고향이에요. 아, 태어난 곳은 주안이고요. 제가 5살 무렵에 부평으로 이사 와서 계속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다 부평에서 했어요. 아, 고등학교는 서구에 있었네요.(웃음) 고등학교 때 교내 합창단, 중창단 등의 활동을 하면서 평생 노래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늦은 나이에 본격적으로 성악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음악을 늦게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음악 듣는 걸 좋아했어요. 선천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때 교내 합창단과 중창단에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성악’이라는 걸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합창단 선배 중에 성악을 전공했던 형이 있어서 옆에서 지켜보며 성악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노래를 하고 있으니, 그걸 들으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내 몸을 울려 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흥미로워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본격적으로 음악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그 후 음대에 진학을 하고 한국에서 대학원과정까지 마친 후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왔어요. **늦게 마음먹은 터라, 웬지 공부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유학생활동이나 활동 중에 있었던 인상적인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아직 합창단원으로서 활동한지 오래 되지 않아서 많은 무대를 경험하지는 못한 상태예요. 프랑스로 유학을 오기 전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파리 근교에 있는 말메종 국립음악원(Conservatoire à rayonnement régional de Rueil Malmaison)에 진학하면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낯선 이국땅에서 성과물을 내보려고 성악 콩쿠르나 오디션에도 수십 번 도전했었어요. 하지만 유학을 온 지 거의 3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게 맞는 건가, 회의감도 들었고요. 그러다가 지난 가을에 프랑스 남부 ‘님(Nîmes)’지역에서 열린 ‘Arioso’라는 이름의 국제 콩쿠르(Concours international des jeunes chanteurs lyriques de Nîmes)에 나가게 되었는데 1위없는 2위로 입상하게 됐어요. 제게 첫 국제 콩쿠르 입상이었기에 더 의미가 컸죠. 콩쿠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정말 기뻐요, 바로 이를 뒤에 몽펠리에 극장에서 바리톤을 뽑는 오디션에 참가해야 했어요. 콩쿠르로 인한 피로도도 상당했기에 해낼 수 있을까 싶었죠. 다행히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도 있었어요. 몽펠리에 극장 합창단의 정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죠. 연이어 기

쁜 소식을 안고, 조금 정신을 차려서 달력을 보니 극장 오디션을 본 날이 제가 프랑스에 유학 온 지 정확히 만3년이 채워지는 날이더라고요. 정말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치며 감회가 새로웠고, 그 날의 기분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저에게 있었던 가장 인상적이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와, 정말 이야기를 듣는 제게도 기쁨이 전해 집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축하드려요. 그런데 극장 소속 합창단이라, 제게는 조금 생소한데요. 합창단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으로 예를 들면, 각 지역에 예술회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부평에는 부평아트센터가 있는 것처럼요. 그 예술회관 안에 교향악단, 합창단 등의 예술단체들이 있는 것처럼 유럽에는 도시마다 오페라를 위한 극장이 있어요. 그 극장에는 오페라 공연을 위한 합창단들이 있죠.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곳은 ‘몽펠리에’라는 도시의 극장으로 ‘Opéra Comédie’라는 이름을 가진 공연장이에요. 여기에서 공연 연습도 하고, 공연을 올리기도 하죠. 오페라 공연을 준비할 때는 합창단으로써 연습을 하고, 연출가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유명 솔리스트 주역가수들과 함께 리허설을 하고 무대에 공연을 올립니다. 이 극장 말고도 Opéra Comédie 근처에 ‘Corum’이라는 이름의 현대식 공연장도 있는데 이곳에서도 공연을 해요. 때때로 합창단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다른 도시의 합창단과 연합으로 오페라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활동하고 있는 몽펠리에라는 도시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주세요.** 몽펠리에

는 프랑스 남부 끝에 위치한 바다와 인접한 도시예요. 일 년 365일 중 300일이 해가 짙쨍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전형적인 지중해 풍의 기후를 가진 곳이에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도시이기도 하죠. 그리고 큰 대학이 있는 대학도시로 도시에 젊은 이들이 많아요. 프랑스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이 몽펠리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럽특유의 고풍스러운 건물들도 그대로이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아직 몽펠리에로 옮긴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생활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아, 듣기로 한국 가평에 있는 프랑스 문화마을이 몽펠리에의 거리를 보고 재현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일상의 거리들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

프랑스 남부라, 말만 들어도 그 햇살이 몸에 스미는 듯 따뜻해지네요. 부평집에 오시면 무엇을 하시나요? 부평에 오면 들리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프랑스로 유학을 온 이후에는 아직 한 번도 한국



에 간 적이 없어요. 학교를 다니느라 바쁘기도 했고, 무언가 성과를 거둔 다음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3년 동안 한번도 가지 않았는데, 내년 여름에는 합창단 여름휴가가 있으니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교수님도 찾아뵙려고요. 부평에서 자주 찾는 나만의 공간은 없지만 친구들과 자주 갔던 부평의 치킨집, 맥주집을 다시 가고 싶네요. 아직 그대로 있을까요? **부평은 빠르게 변하기도, 또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도 한 곳이라. 부디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네요.**(웃음) **부평에는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부평은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쭉 살았던 ‘동네’예요. 그래서 학창시절의 친구들과 함께한 추억들도 많고요. 너무 일상의 공간이었던지라 특별한 추억을 상기하는 게 좀 어려운데요. 기억나는 것이 해마다 부평풍물축제를 하잖아요. 어느 해인가, 부평역 광장 바로 앞에서 열린 콘서트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 때 성악가도 무대에 올랐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도 저 무대에서 노래를 한번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가족들도 친구들도, 편하게 와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그럼 설현철 성악가님의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제 원래의 꿈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음악가로써 독립하기 위해서였고, 무대 경험을 쌓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였죠. 안정된 직장을 가지긴 했지만 오페라 배역을 뽑는 오디션이 있다면 끊임 없이 도전할 생각입니다. 콩쿠르도 계속 도전할거고요.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현철 성악가님이 솔리스트로 오페라 무대에 오른다면 어떤 작품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작품,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도니제티의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에서 ‘엔리코’역,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제르몽’역과 <일 트로바토레>의 ‘루나백작’,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에서 ‘발렌틴’역 등의 역할들을 하고 싶어요. 사실 대부분의 오페라에서 바리톤은 비중 높은 배역을 맡는 편이 아니지만 베르디의 작품들에선 주요 인물을 맡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언젠가 꼭 그런 날이 오겠죠?

인터뷰 : 성채은 (2019.11)



#바리톤 설현철#

몽펠리에 극장 합창단 정단원
Concours international des jeunes chanteurs lyriques de Nîmes 1위없는 2위 수상
프랑스 말메종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만장일치 졸업,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프랑스 파리시립음악원 솔리스트과정 1년 수료
서울시립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고민과 패기가 넘치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 밴드 웨터(WETTER) 드러머 허진혁

드럼은 리듬을 만들어낸다. 그 리듬은 듣는 이의 심장 박동을 크게 울리며 또 다른 리듬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쌓인 리듬 위에 음을 가진 악기들이 멜로디를 얹으면 심장 박동이 만든 리듬 위에도 감정이라는 멜로디가 생긴다. 사람의 목소리로 만든 가사를 멜로디에 얹어서 부르면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마법이 펼쳐진다. 그 마법의 시작에는 드럼이 있다. 무대 제일 안쪽에서 이야기의 처음을 만드는 사람. 밴드 웨터의 이야기는 드러머 허진혁이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밴드 웨터(WETTER)의 허진혁이라고 합니다. 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보컬 최원빈, 베이스 정지훈, 기타 채지호가 함께하고 있죠. 웨터는 ‘젖다’라는 뜻의 영어동사 ‘wet’를 활용해서 ‘적시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아 만든 단어예요. 예전에 어떤 페스티벌에서 관객들이 온몸이 땀에 젖도록 진심으로 음악에 빠져서 즐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음악을 듣고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폭 젖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이름입니다. 부평출신이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20대 초반까지 부평에 살았어요. 부평은 제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죠. **처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실 시작이 좀 늦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이모부가 기타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워낙 음악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 댁에 놀러 가면 악기와 옛날 음반들을 구경하곤 했었는데, 성당에서 직접 연주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멋있더라고요. 악기 연주를 한다는 게 정말 멋진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음악에 대한 동경이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나요?** 있긴 있었죠. 중학교 때 학교 축제에서 공연을 보게 됐는데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편으로 ‘내가 노래는 못하겠는데, 악기는 배우면 연주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웃음) 멋있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무턱대고 일단 입시학원을 찾아가서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노력해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원빈이라는 친구가, 지금 웨터의 보컬인데요. 동갑이라 이야기도 잘 통해서 친해지게 됐어요. 원래 록을

많이 좋아했던 친구인데 그 영향을 받아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밴드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게 웨터의 시작이에요. **그럼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을 한 건 웨터가 처음인건가요?** 그 전에도 몇 번 팀을 꾸려보려고 하긴 했는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하다가 제대로 시작해보진 못했어요. ‘정말 이 팀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웨터가 처음이에요. 원빈이에게 제대로 설득을 당했거든요.(웃음) **그게 언제였어요?** 스물 세 살이었어요. 원빈이와 제가 먼저 만났고, 그 이후에 학교 안에서 베이스와 기타 멤버를 찾았어요. 사실 결성은 그 때 했지만, 바로 활동을 시작하지는 못했고 데뷔 앨범을 발매하기 1년 정도 전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허진혁 드러머에게 영향을 끼친 뮤지션은 누가 있을까요? 드러머가 아니더라도, 허진혁 드러머의 음악에 영감을 주고, 활동에 동력을 준다고 할 수 있을 만한 뮤지션이요.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은 브리티시록(영국록)이고, 밴드도 그걸 기반으로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블러’, ‘오아시스’를 좋아하고 그들의 음악을 늘 들어요. 그리고 ‘나인 인치 네일스(Nine Inch Nails)’라는 밴드의 음악을 좋아하는데, ‘딥’한 음악을 하는 밴드예요. 최근에 그 밴드의 내한공연을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유명 록페스티벌에 그들이 왔고, 저희도 공연을 하면서 무대 옆에서 라이브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드러머다 보니 다른 밴드의 드러머가 연주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는 편인데 그 드러머의 모션이나 연주하는 모습들이 정말 너무 멋지더라고요.

닛을 놓고 봤던 것 같아요. ‘정말 저렇게만 연주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너무 멋있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럼 멤버들 각자가 추구하는 음악적 방향은 어떤가요?** 최근에는 전자음이 들어간 음악(EDM같은)에 관심이 생겨서 많이 듣고 있어요. 밴드의 보컬인 원빈이도 저와 비슷하게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희 음악에 그런 전자음의 소리들을 접목해서 담는 것도 구상하고 있어요. 최근에 〈꼰대〉라는 제목의 싱글앨범을 냈었는데요, 그 곡에 전자음을 섞는 시도를 해봤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

웨터의 음악작업 스타일은 어떤가요? 곡 작업은 누가 하나요? 초반에는 원빈이와 베이스를 연주하는 지훈이가 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각자 음악적으로도 조금 성장하고 담고 싶은 음악적 이야기가 생겨서 지금은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음악을 만드는 방법도 밴드들마다 다를 텐데요. 누군가가 베이스 라인을 가져오면, 그걸 바탕으로 합주하다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완성된 곡을 만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정말 순간적으로 곡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웨터는 어떤가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규앨범 1집이 정확히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작업한 결과물들이 다 담겨 있어요. 〈춤 취!〉라는 곡은 그냥 합주를 하다가 즉흥적으로 탄생했고, 어떤 곡은 한 멤버가 완벽하게 작업을 해서 가져왔어요. 정규앨범에 10곡 정도 담을 예정인데 그 세 가지 방법이 다 들어가 있네요. **사실 요즘 인디밴드의 음악들은 스트리밍 한 번 되기도 쉽지**

않고, 공연계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들었어요. 이런 와중에 싱글앨범이 아니라 10곡을 담은 정규앨범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정규앨범을 낸다는 것은 저희에게 ‘기록’의 의미가 더 커요. 밴드활동을 한다면 정규앨범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했죠. 앨범은 내년 초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녹음하면서 편곡작업도 같이 해야 해서 요즘 정신없게 지내고 있긴 해요. **새 앨범은 어떤 스타일의 곡들인가요?** 지금까지의 곡들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었다면, 이번 앨범은 조금 더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의 곡들이에요. 더 리드미컬하고, 그러면서도 전자음들을 접목해보기도 했고요. 다양한 느낌으로 담으려고 했어요.

—

다시 부평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족들은 아직 부평에 살고 계신가요? 본가는 부평이에요.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가곤했는데 요즘은 바빠서 부모님이 저를 보러 와주세요. **집에 가면 뭐하세요?**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동네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들에게 요즘 하도 구박을 받아서.(웃음) 친구들이 서운해하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제가 원래 단체 방에서는 이야기를 잘 안하거든요. 확인 자주 안한다고 뭐라고 해요. 지금 제가 이태원에 살고 있는데, 이태원으로 진출하더니 변했다고 자꾸 놀려요. 진짜 아닌데.(웃음) **부평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어디에 가세요?** 부평에 해물탕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원래 해물을 좋아하기도 해서 자주 갔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친구들이 가자고 하는 곳에 가요. 제가 힘이 없어졌거든요.(웃음)

—

2018년 부평구문화재단의 음악도시 축제 〈뮤직계더링〉에 밴드 웨터도 공연에 참여했었죠. 그 때 참 인상적이었는데, 허진혁 드러머님의 어머니께서 공연을 처음 보러 오셨다고 인사해주셨던 게 기억나네요. **그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 공연에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멤버들과 함께 제가 살았던 동네의 무대에 선다고 하니 기가 살아서 어깨가 으쓱했죠. 그래서 괜히 ‘뭐 먹고 싶어?! 말 만해! 내가 다 데려다줄게!’이렇게 큰소리로 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도 처음 저희 밴드 공연을 보러 와주신거라 더 잘하고 싶었어요. 원래 멤버들이, 그리고 팬들조차도 제가 인천출신이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웃음) ‘인천부심’이 있다고 놀리기도 하고요. 근데 밖에서 인천사람을 만나면 너무 반갑지 않나요? 전 그냥 그렇더라고요.(웃음) **웨터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지역 주민들도 많으셨을 무대였는데 다른 분위기가 있지는 않았나요?** 보통 저희가 하는 공연은 관객 분들이 서서 듣는 스탠딩 형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했던 그 공연은 관객 분들이 앉아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장되긴 했어요. 분위기가 조금 달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부평’이니까요.

—

#밴드 웨터 드러머 허진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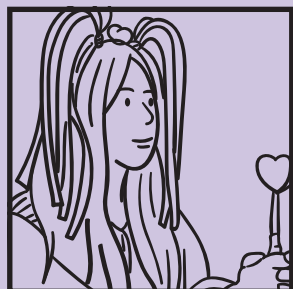
2020 정규 1집 발매 예정/2019 싱글 <꼰대> 발표
2018 미니앨범 <We've Lost, What Now?>
2017 미니앨범 <ROMANCE IN A WEIRD WORLD>
2016 싱글 <WHO>로 데뷔



앞으로 웨터는 어떤 이미지로 기억에 남고 싶나요? 저희를 보고, 저희 음악을 듣고 ‘자유’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도, 감정도,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앨범마다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되 음악을 들었을 때 ‘웨터 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웨터만의 색깔은 변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웨터 멤버들이 다 또래예요. 그래서 정말 친하거든요. 목표는 정말 오래가는 밴드가 되는 거예요. 밴드가 오래가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런 경우들을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도 저희는 힘들어도 버티고, 남아서 오래 가고 싶어요. 그게 밴드로서 가장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밴드를 결성한 이후 힘든 일도 많았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느꼈던 적도 있고요. 그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서로 밖에 없더라고요. 그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함께하자.’라고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부평에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꼭 다시 불러주세요! 꼭 올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인터뷰 : 성채은 (2019.11)

/ 장 다 /



청년인력소 정예지



학예연구사 손민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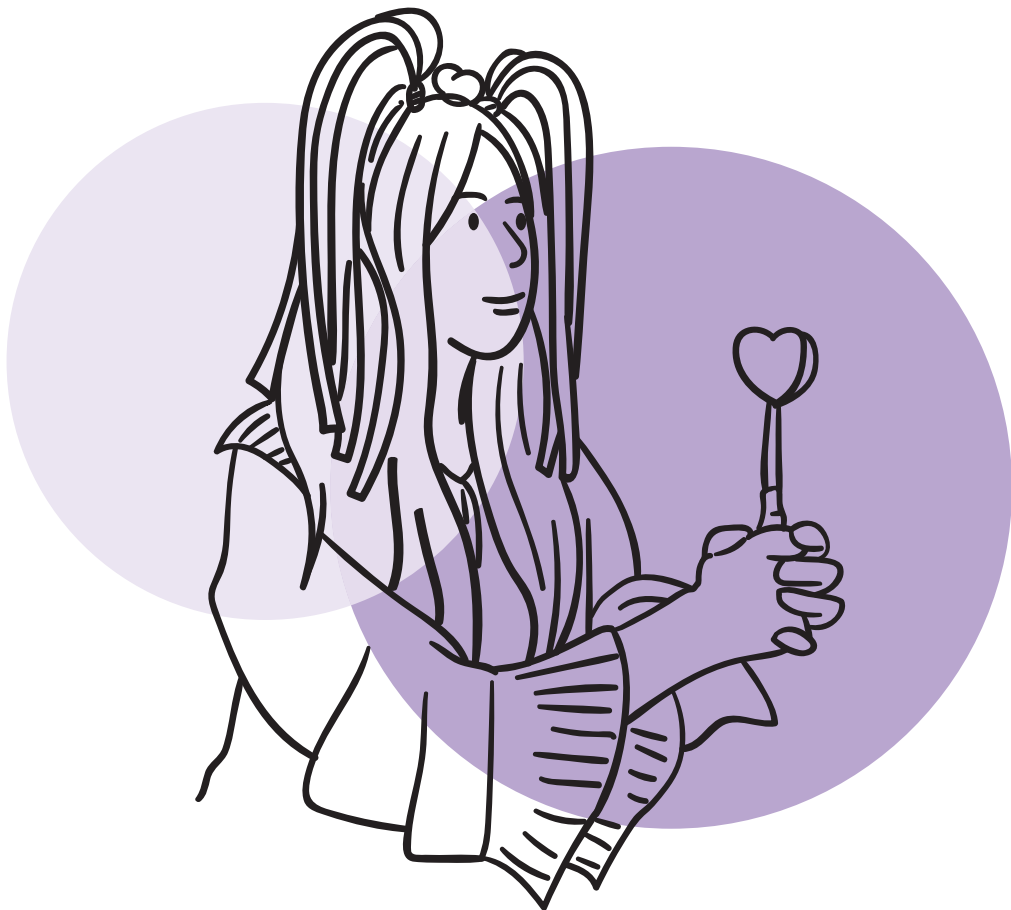
전시장 북극홀 김순지



문화기획가 안수민



복합문화공간 밀레



청년인력소 대표 우주의 아이돌 정 예 지

인터뷰 요청을 하자, 그녀는 지역의 많은 예술가들이 아지트로 꼽은 ‘락캠프’ 바로 옆에 있는 ‘미확인 우주 공간’으로 우리를 초대했다. 공간을 찾자마자 그녀는 우리가 음악을 직접 디제잉하며 우주 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한껏 흥이 오른 상태에서 우리는 조금은 특별한 인터뷰를 시작했다.

명함을 보니 공연과 전시 그리고 문화 기획까지 폭넓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에 ‘예’자도 ‘재주藝’예요. 다양한 장르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양할 뿐이지 하나라고 생각해요. 한가지로 정의 내리고 싶지 않아서 ‘우주의 아이돌’이라는 타이틀로 활동하고 있고, 제 나름의 ‘우주의 아이돌’이라는 장르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표현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저는 그 표현하는 도구들이 여러 개 일 뿐이에요. 본래 전공은 서예입니다. 석사까지 서예를 전공으로 졸업했죠. 부전공으로 문인화, 사군자, 민화 등을 공부했어요. 글을 쓰다 그림을 그려보니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게 느껴졌어요. 우주에 관심이 많아서 외계인도 그리고, 주로 꿈에 나온 장면을 그렸죠. 명함에 있는 그림도 꿈에 나왔던 엄청 큰 제 흉상을 그린 거예요. 서예를 전공하시며 글과 그림을 그리게 되셨네요. 음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버지가 음악인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집에서 아버지가 음악작업하시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음악을 하게 됐죠. 최근에는 ‘평화창작가요제’에서 본상을 받았는데요. 3년 전쯤 동인천 인현동 화재사건 추모제에 초대받았었는데, 기사들을 찾아서 읽어보다 보니 유가족들의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인현동 1999〉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너희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지켜줄게’라는 의미로 불렀는데 유가족 분들이 감동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곡으로 수상도 했고요. 그 외에 엄마가 제게 써주신 〈첫째 딸〉이라는 시를 토대로 만든 노래도 있어요. 엄마가 써주신 것이라 부르다 보면 울컥하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 기획도 진

행하고 계시잖아요? 문화 기획이야 말로 제가 하고 있는 예술 활동의 합체 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인력소’ 청년들과 많은 활동을 해요. 예를 들어 본인을 돌아볼 수 있도록 명상을 하게 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는 기획같은 것들이죠. 제가 좋아하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만든 단체가 청년인력소예요. 정확히 ‘청년인력소’가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청년 모임이에요, 독특한 이력을 갖춘 분들이 함께 하고 있죠. 청년인력소는 모토가 있어요. ‘당신의 오아시스! 청년인력소’ 우리는 각자의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해보기 위해 서로의 인력들을 모아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청년인력소에 장례지도사 친구가 있는데, 차를 폐차시킬 때 그냥 폐차시키기 싫다고 해서 예술인 청년들을 모아서 아트 드로잉을 했어요.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누구랑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을 때 이곳에서 찾으면 되요. 그런데 이름 때문에 인력을 구하는 곳인지 아는 분들도 있어서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연결해줬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묶여 있는 것을 안 좋아해서 모임에도 특별한 제약은 없어요.

—

예지님 그리고 보니 머리에 꽃 장식을 했네요? 네, 그날 기분에 따라 다른 꽃 장식을 해요. 화관을 쓰기도 하고 오늘 같은 데일리 꽃을 꽂기도 해요. 우주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안테나처럼도 보이네요.(웃음) 아무래도 음악을 하시는 아버님의 영향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부모님과 별개로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술의 길에 들어서게 된 개인적인 동기가 있을까요? 예술인의 길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



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어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예술 하시죠?”라고 물으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저는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단어로 대답하기도 어렵고 예술가라는 말이 거창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한마디로 বল리면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으세요?** 그냥 정예지요. 저 자체가 그냥 캐릭터화, 브랜드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3년째 ‘우주의 아이돌’ 타이틀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초대된 공간 ‘미확인 우주 공간’은 어떤 곳인가요?**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된 곳인데, 한 마디로 확인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는 곳이지요. 나름 휴양지 느낌이 나는 소품들도 가져다 놓고 재미있게 공간을 꾸며 봤어요. **뭔가 언밸런스 하지만 원래 이곳에 있었던 것 같은 공간이네요. 앞으로도 예지님이 계속 끌고 나갈 곳이지요?** 그렇죠. 제 작업실 같은 곳이니 까요. **예지님이 주로 예술 활동을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주로 ‘락캠프’와 ‘미확인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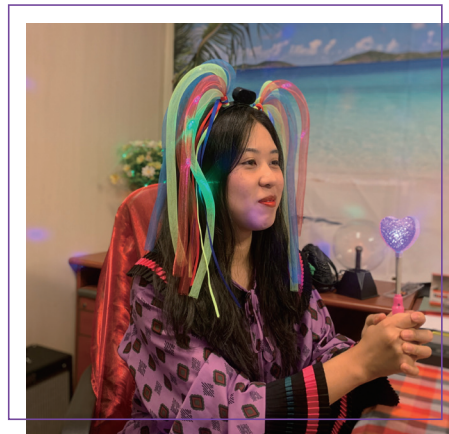
공간’이 있는 ‘길주로 547’에 있죠. 하지만 청년 네트워크, 청년 위원회 등 회의나 외부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남에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모든 활동을 다 하고 싶어요.

—

부평이 고향이고 공간도 부평에 있어서 지역에서 활동하실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평은 애증의 지역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부평에 있었고 평생을 한 아파트에서 살아왔어요. 부평 남부에 있는 ‘목련아파트’가 철거되면서 이번에 첫 이사를 했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모든 추억과 삶을 함께해서 애착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활동을 더 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청년 문화 활동이 미진하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부평 예술인협회에서 서예 분과에 있다가 미술 분과로 옮겨서 10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데 젊은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죠. **함께 전시도 하시나요?** 이번에 부평아트센터에서 함께 꿈에서 나온 장면을 설치로 만들어서 전시를 했어요. 제 최종 목표는 꿈에서 본 장면을 공간으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자각몽을 꾸는 사람인데, 꿈도 기억을 잘 하는 편이라서 꿈을 메모하거나 그림을 그려두곤 해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꿈을 소재로 작업할 계획이에요. 꿈을 소재로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들도 있으시고 비틀즈도 꿈에서 들은 노래로 작곡을 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또 자각몽 카페에서 12년 동안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웃음) **예지님은 정말 많은 모임에 참여하시네요?** 네, 청년 관련 분과 활동도 많이 하죠. 제가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보통 문화예술

에 대해 발언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나가서 저 혼자서라도 발언하려고 해요. 그 덕분에 이번에 부평 공감 콘서트 <사랑의 병원으로 오세요>를 기획해서 진행했어요. 지루하지 않게 병원 컨셉으로 청년 콘서트를 한거죠. 문화테이블도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하셨던 활동 중에 대표적인 활동이 있다면 몇 가지 얘기해주세요.** 저는 힐링과 관련된 기획을 주로 해요. 어제 했던 행사가 <우주 사운드 파티>예요. 철거되는 우리집을 허물기 전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행사였어요. 사운드 파티 시리즈가 제 메인 기획이죠, 그 외에도 2017년 ‘길림성’에서 진행되었던 안티스트레스 <욕 전시>가 있어요. 청년 예술가들이 스트레스를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해보고 해소해보는 전시였어요. **인생의 최종 꿈이 궁금해지네요?** 큰 꿈으로는 예술인들과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는 거예요.

—



#청년인력소 정예지#

2019 평화창작가요제 장려상 수상 <인현동 1999> -우주의 아이돌 정예지
2018 <지구종말 사운드파티> 기획_서구 코스모40
2017 <안티스트레스전> 기획_길림성

부평에서 해보고 싶은 작업이 있거나 지역에 희망 사항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10년 동안 부평구화재단과 많은 활동을 했지만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평에 청년들이 모여 있으니 자원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지역에서 좀 더 마음을 열고 청년들, 예술가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면 좋겠어요.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락캠프’도 22년 된 문화 공간이에요. 매 주말 밴드들이 공연을 하고 있죠. 사실 매주 밴드를 섭외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공간을 지역에서도 활용하면 좋겠어요. **지역에서 추천하고 싶은 예술인이나 단체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락캠프 주변에 예술 하는 분들이 더 모이면 좋겠어요. 다행히 몇 몇 분들이 주변으로 이사오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 서울에서 활동했던 ‘FMS’라는 밴드 동호회 단체가 이사 왔어요. 주변에 가야금 하는 친구도 소개받았는데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부평에 있는 젊은 예술인들이 모여서 네트워킹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모이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함께 재미있는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많은 예술인 분들이 ‘락캠프’를 아지트로 꼽으셨는데 우주의 아이돌 정예지씨의 동네 아지트는 어디인가요?** 락캠프 뒤 쪽에 있는 ‘오미숯불갈비’요. 단골이거든요. 사장님이 철학이 있는 고기 집을 운영하시죠. 우리 인터뷰 끝나고 같이 먹으러 갈까요?(웃음) **좋은 생각이네요!**

인터뷰 : 고진이 (2019.10)



‘부평에 박물관이 있어요!’ 외치고 싶은 부평역사의 파수꾼, 학예연구사 손민환

일요일 오후, 올해 말 아버지가 되는 손민환 학예연구사를 만났다. 어렸을 적부터 남다른 형제애로 주변 고궁을 드나들며 시절을 보냈던 놀이가 급기야 업이 되고 말았다. 그의 묵직함이 큰 키 보다도 더 커 보인 이유다. 최근 시각을 넓혀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을 찾아 헤매는 소리채집 프로젝트에 관심이 간다는 그에게 눈치도 없이 꼭! ‘잔소리’도 채집해 달라고 했다. 태풍 ‘타파’가 뒤에서 으르렁대며 상륙하던 날이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손민환입니다. 보통 학예사라고 많이들 칭하시는데 정식명칭은 학예연구사입니다. 연구원이 서포터 역할을 해주고, 학예연구사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어떤 아이로 기억하나요?** 저는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라서 형하고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종종 여행가는 기분으로 형하고 궁궐을 걷거나 박물관 전시를 본다든지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뭘 본 건지 전혀 모르지만 그 시절이 지금의 제게 뭔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천에 오게 된 이유는 공학도인 형의 권유로 인하대 사학과를 진학하게 되면서였죠. 집 앞에서 스쿨버스가 있어서 형과 함께 다녔어요. 형은 나중에 취업해 용돈도 주고 그랬었죠. **잘은 몰라도 할머니와 형의 영향이었던지 뭔가 반듯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사학과에 와서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사학과 출신이 많지도 않은데 제대하고 나서 박물관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3학년 겨울쯤 준학예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 교부를 위해 1년간 실무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평역사박물관으로 오게 되었어요. 사실 서울 집 근처에 다른 박물관으로 가려 했는데, 요청도 있고 이왕이면 인천에서 활동하려면 인천이 낫겠다 싶어 부평역사박물관에서 연구원으로 시작한 거죠.

당시 인천의 인상은 어땠나요? 엄청나게 싸더라고요.(웃음) 대학가 하면 신촌이나 대학로를 보통 생각하는데 인천 대학가 물가가 정말 저렴했어요. 워낙 싼 거로 유명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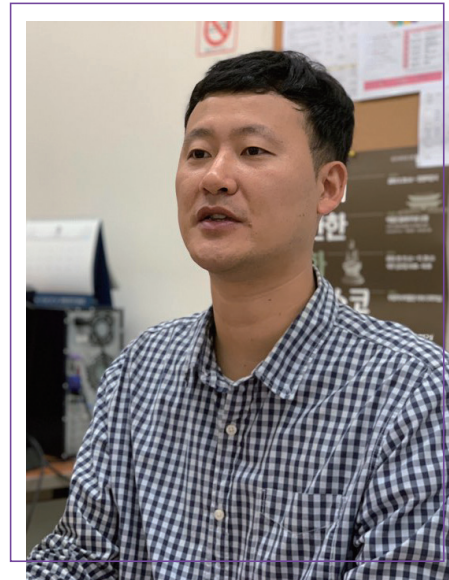
데 너무도 행복했어요.(웃음) **그렇다면 부평역사박물관 개관 때부터 함께 하신 건가요?** 2007년 박물관 개관 준비할 때 들어와서 개관하고 몇 개월 있다가 시립박물관으로 옮겨서 18개월 정도 있었어요. 계속 일을 할 거면 학위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했죠. 그러다가 2013년에 인하대학교박물관에 입사를 하게 됐고, 부평역사박물관에서는 2017년부터 다시 근무하게 되었어요.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는지요?** 사실 저는 고려시대 신분제도를 공부해서 인천과는 실질적으로 많은 관계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인천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인천의 역사와 관련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인천시 역사자료관에서 발간하는 학술총서 집필에 참여하면서 인천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시 단위로 역사 관련 책 편찬이 많았는데, 구 단위에서도 책으로 편찬하자는 움직임이 일더라고요. 2016년에 부평역사박물관에서 부평2동 삼릉마을 조사를 진행했을 때 전문위원으로 참여했어요. 그 일을 마무리하고 때마침 부평역사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를 추천한다고 해서 면접을 보고 입사하게 된거죠. **본인이 부평에서 큰 역할을 하시게 되리라 예상하셨나요?** 제 생각에는, 지역 자산 모아서 정리하는 작업이 사명감 없이는 하기 힘든 것 같은데, 또 하나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부평은 직장생활을 처음 한 곳이고 1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일을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에요. 인천 사람과 부평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개념조차 전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부평만의 역사적 특징을 찾는 것은 더 쉽지 않죠. 박물관 지역조사 사업이 그런 것을 끄집어내는 기초 작업인데, 커다란 범주의 부평이 아니라 어느 특정 동네 속한 소규모 마을부

터 조금씩 보자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 부평에 와서 조사했던 곳이 십정동이에요. 부평 마지막 달동네였던 십정2구역은 재개발을 앞두고 있었고, 어떤 걸 조사할까 회의를 하면서 십정동 하나만 해도 너무 넓으니, 없애지는 십정2구역 위주를 중심으로 해보자 했었죠. 이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받았어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술총서로 발간하고 특별기획전도 개최했어요. 달동네라는 것이 본인이 살지 않았어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토크콘서트도 열어서 조사를 담당했던 전문위원과 마을활동가, 주민들이 어우러질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주민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 후, 그렇게 빨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될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상상을 못했어요. 박물관에서 총서를 내고 특별기획전을 개최하는 것을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서 알고 연락이 왔어요. 앞으로 십정2구역 인근에 작은 전시관을 꾸밀 예정이라고 해서 그동안 수집했던 생활사 자료들을 이관해드렸어요. 아직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

부평의 큰 인연이 십정2구역(열우물 마을) 작업이군요. 그 다음은요? 2018년부터 조사했던 산곡동 화랑농장 학술총서의 출간 막바지 작업 중인데, 이 지역은 이북 출신의 국군 상이용사들이 터를 잡은 곳이에요. 2019년에는 부평의 전통시장을 조사했는데요. 작년에 자유시장과 진흥시장의 조사를 마쳤고, 올해 종합시장과 깡시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출간 예정입니다. 다른 작업으로는 아직 예정이긴 한데 내년에 부평의 철도에 관한 조사도 준비하고 있어

요.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군용열차가 지나가요. 제3보급단으로 들어가는 철도인데 제3보급단 이전 논의가 있더라고요. 제3보급단이 이전되면 열차가 안 다닐 거 같아서 그 전에 기록을 남기는 게 좋겠다 싶어 내년도 조사 예정이에요. **이게 박물관 일이어도 내 작업처럼 하고 싶다 생각했던 작업도 있었나요?** 당연히 있죠! 이를테면 저도 다른 학회지 쪽에 관심 있는 자료를 쓰고 게재를 하고 있는데, 학회지 형태로 공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사하면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바라죠. 욕심이 났던 것은 화랑농장 조사작업을 할 때 화랑농장의 창립자이자 2대 시의원이었던故김국환님의 사모님과 자녀분께서 보관 중인 앨범을 연구 목적으로 대여해 주셨는데 자료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역의 박물관에서 갖고 있어야 할 자료로 훌륭해서 요청(기증)을 드렸는데 고인의 유품을 아직은 가지고 있고 싶다고 하셨어요. 연구하고 돌려드리면 안 되겠냐 여쭙고 대여를 해왔죠. 박물관에서 유물로 소장하고 전시하면 좋겠다 싶어요. **주변에 많은 분을 만나고 다니시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일로 만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이야기 들려주실 분, 조사 작업해 주실 분 이렇게 구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사하는 입장이니깐요. 전통시장의 각 상인회에서는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움을 많이 주세요. 2년 동안 시장의 역사를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서 상인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2019년도의 현재를 기록하는 것도 한 축이에요. 어떻게 변할지, 남게 될지 모르는 시절이잖아요! 이것을 이때 조사를 해놔야겠다 싶더라고요. 특히 소리를 채록하고 있어요. 전문가를 모셔서 소리만 채집하는 거예요. 책을 내



면 QR코드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말이죠. 인터뷰한 사진과 글은 나중에 전시로 연결도 하고요. 부평의 ‘소리’ 만을 가지고 전시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전시 생각하면 시각적이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부평 상인의 발소리, 군용열차 소리 등 재밌을 거 같아요. 얼마 전에 박물관 뒷쪽에 딱따구리가 왔었는데, 그 날인가 다음날인가 인천투데이 신문에 다른 동네 딱따구리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이 딱따구리 철이라 생각 했지요. 그때 저는 처음 들었어요. 나무를 찍는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관련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였나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부평구 내에서도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많고요. 조사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인프라인 것 같아요. **부평시장을 많이 돌아보셨을 것인데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식당은 아닌

#학예연구사 손민환#

‘부평 전통시장’, ‘부평 화랑농장’, ‘열우물마을 십정동’ 학술조사
2018 특별기획전 <애방공장> 기획
2017 특별기획전 <열우물연가> 기획

데 ‘권혁규 제면소’. 여기 면이 기계면이기는 한데 직접 뽑으세요. 종합시장 안에 있는 작은 가게인데 부부가 운영하시고 면 뽑아서 건조를 4~5일 하더라고요. 일곱 빗갈 꽃국수가 인기예요. 실제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라도? 일을 하다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박물관이 어디 있어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정말. 인하대학교박물관 근무시절에도 우리 학교에 박물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부평도 마찬가지예요. “부평에 박물관이 있어요?” “삼산동? 왜 거기 있어요?” 라고 그래요. 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구민들이 박물관이 있다는 것만 알아만 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떤 일을 모의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 같아요. “부평에는 박물관이 있다!”라는 것! 구 운영 박물관이 드물어요. 부평에는 박물관이 있다!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물관에서 일한다고 하면 되게 한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웃음) 한가롭게 물 위에 떠 있는 오리가 물 밑에서 쉴 새 없이 다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박물관에서도 쉴 새 없이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일까지 반납하면서요.

인터뷰 : 유광식 (2019.9)



부평의 문화 샘물 북극홀 대표 김 순 지

초등학교 교사로 13년을 근무하다가 ‘북극서점’을 연 김순지 대표는 싱어송라이터로, 독립출판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평의 예술인이기도 하다. 지금은 ‘북극서점’ 옆 ‘북극홀’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여러 문화기획과 강의 그리고 라디오 방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서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전시공간까지 운영하는 김순지 대표, 일명 순사장님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북극홀 전시장을 찾았다.

본격적인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평에서 조그마한 독립서점인 북극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순사장’이라고 합니다. 북극서점이 어느덧 올해 12월로 3년째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믿기지 않네요.(웃음) 그와 동시에 저는 ‘슬로보트’라는 이름으로 창작 활동도 하고 있어요. 1집을 낸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죠. 작가 활동도 종종 하고 있고, 지금은 주로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 아트 북페어’나 ‘페미니즘페스티벌’ 등 인천에서 다양한 문화기획에 도전하고 있어요. 이곳 ‘북극홀’이라는 북극서점 옆 방구석 같은 미술관에서 제가 좋아하는 여러 작가님들을 모시고 미술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극서점이 생기고 북극홀이 생겼잖아요. 전시장 운영에 일이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다들 왜 이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별일이 없어요. 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누군가 좋아하면 되고요. 좋아하는 작가님께 이 공간 소개와 함께 요청 메시지를 보내드리면 대부분 환영을 해주세요. 문턱이 높다고 생각했던 작가님들도 흔쾌히 응해주셨기 때문에 섭외는 힘들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미술관 월세가 저렴한 편이라 마음 편히 운영할 수가 있어요. 또한 미술관이면서 커뮤니티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만나고 취향도 공유하면서 여러 덕을 보고 있어요. **미술관인 북극홀을 만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서점 옆에 점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점집이 비었고 그날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게 되었네요. **지역에 전시장을 열면서 기대하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충동적이었지만 문화에 대한 욕구가 항상 있었어요. 특히나 인천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제가 좋아하

는 문화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분출된 거죠. 앞으로도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지역에 애정이 느껴지네요. 사장님은 인천이 고향이신 거죠? 네, 인천에서 고등학교 때 까지 살았어요. 배다리 일대나 수봉공원 주변에서 살았죠. 지금은 원도심이 되었지만 어릴 때는 부평이 굉장히 빛나보였어요. **많은 그림책 작가님들이 북극홀에서 전시를 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전시나 작가님들이 있을까요?** 현재 열리고 있는 ○○○ 작가님의 〈아이보리 릉〉 전시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천재 만화가라고 생각해요. 작가님을 모신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인천에서는 최초로 이분의 전시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첫 전시였던 이새벽 작가님 전시가 기억에 남아요. 『고양이 그림일기』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신데요. 처음이라 무척대고 시작해서 무례한 일도 있었을텐데, 잘 협조를 해주셨어요. 전시가 끝날 쯤 그림을 선물로 주셔서 지금도 북극서점에 걸려있죠. 그리고 우지현 작가님과 전시를 하고 인연이 되어서 MT도 함께 갔었고, 방새미 작가님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이어져 다른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죠. 또, 동네에 계신 박상미 작가님이 기억에 남아요. 자폐장애 아드님에 대한 그림을 꾸준히 그려오셨는데 전시를 통해서 책을 출판하게 되었어요. 전시를 우연히 본 출판사와 연결이 되어 『스물두 살 태훈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물이 나오게 되었죠. 저도 작가님들에게 영향을 받고 작가님들도 공간에 영향



을 받아요. 전시를 통해 순환되고 연결이 되어서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공간에서 클래스도 열고 있는 걸 보면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클래스의 경우는 대관으로 진행이 돼요. 스페인어 수업, 워빙, 드로잉 클래스 등등이 있었죠. 서점 자체적인 수업이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서점이 주축이 되는 수업을 더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 독립출판 수업이나 노래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싱어송라이터 수업이요. 올해는 ‘북극 크리에이티브’라는 이름으로 창작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공모를 통한 무료 대관이에요. 3팀의 전시가 있었고요. 이제 한 분의 전시가 공모를 통해 남아있어요. 두 번째는 동네에 계시는 독립출판 창작자 분들에게 무료로 월요일마다 작업실로 공간을 대여해드리고 있어요. ‘똥단배’라는 창작자 모임도 가지고 있어요. 6명이 책을 만드는 클래스인데, 서로 돌아가면서 무료 혹은 유료클래스를 만들어 나가

고 있어요. **여러 문화적인 역할을 북극홀이 지역에서 해나가고 있네요.** 앞으로 다른 누군가가 저와 가까운 부평에서 시작하길 바라고 있어요.

—

인천 지역에서 여러 행사도 기획하셨는데 앞으로 부평에서 또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실까요? 지역에 기대하는 점도 괜찮습니다.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독립출판센터를 부평에 만드는 일이에요. 어떤 지역이던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려면 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심점이 공공기관이면 조금 딱딱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적절한 상업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 서점이라고 생각해요. 독립출판센터를 만들어서 인쇄소와 미술관, 굿즈들을 파는 아트 샵, 캐주얼한 교육프로그램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면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거예요. 독립출판의 산실이라고 할 수도 있죠. 독립출판의 특성상 아카이빙 되기 힘들기 때문에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오는 모든 독립출판물을 아카이빙하고 새로운 창작자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며 서로를 이어줄 수 있을 거예요. 아트 마켓도 열 수 있고요. 인천에는 서울처럼 젊은 아티스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독립출판센터가 부평에 생긴다면 전국 최초겠죠? 그 곳이 생긴다면 운영을 잘 할 자신이 있어요. 굴포천이 문화사업으로 개발이 될 때 이런 기획을 제안하고 싶어요. **부평지역의 이점이 무엇일까요?** 동인천에는 저도 좋아하는 전시장과 문화공간이 많지만 서울과의 거리가 아쉽죠. 부평이라는 위치는 인천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접근하기가 쉽고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

에 문화적인 파워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굴포천이라는 자연과 젊은 흐름, 부평이라는 상업 공간과의 케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기획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에 ‘로켓북’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해서 제안을 했어요. 작년에 부평구문화재단과 함께한 <휘파람 마켓>도 처음에는 제가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다 문화재단이 원하는 제안과 협의를 해서 독립출판행사로 연결했어요. 그런 식으로 기획을 성장시켜왔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자주 생각해요. 아직은 인천에 이런 일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앞으로 시도할 만한 것이 더 많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호의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

요즘 여러 지역에 작은 서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서점을 여는 분들이 그렇겠지만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와 사람들과의 교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상쇄하고 남을 행복이 분명히 서점 안에 있어요. 개인적인 힘들이가 있을 때도 나를 잡아주는 심지가 되어줘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순사장님에게 북극서점, 북극홀은 어떤 의미인가요?** 삶을 잡아주는 심지요. 사람들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게 한 번 받쳐주는 곳이 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이나 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만날 수 있는 곳이 서점이에요. 마을에 작은 서점들이 생겨나서 각자가 원하는 서점을 찾아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에선 집과 직장 외에 다른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인데 서점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책 속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세대에 책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책은 자기 세계를 떼어내 만져지는 물성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한 사람의 시작과 끝이 온전히 종이에 담아서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전 그것이 책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 고진이 (2019.10)

#북극서점, 북극홀 대표 김순지#

싱어송라이터, 문화기획자, 독립출판 클래스 ‘로켓북’ 운영
슬로보트 정규앨범 1집 <섬광>, 독립출판물 <각자의 해변> 등
인천 아트 북페어 <휘파람 마켓>, <싱얼롱페이퍼>, 페미니즘 페스티벌 <인페페> 주관



부평에 불어오는 신선한 문화의 바람 문화기획가 안수민

부평구문화재단의 생활문화센터 2층에서 안수민 문화기획가를 만났다. 생활문화센터 2층은 새로이 음악 연습실과 감상실 등으로 공사를 막 마치고 있는 중이었다. 그 역시 부평에서 새롭게 음악기획과 문화기획 활동을 시작하는 중이었다. 새롭게 탈바꿈한 공간에 어울리는 부평의 새로운 문화기획자의 열정과 다짐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수민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뮤지션(작곡/기타)으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음반제작과 녹음실 운영, 문화기획 등 다방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점적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원래 주된 사업은 녹음실이랑 음반제작이었거든요. 지금은 문화기획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악 쪽으로 거의 특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기획도 거의 공연이나 뮤지션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청년물’이란 곳에서 버스킹 공연 기획도 하고 있고요. **문화기획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30대 초반까지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로 음반계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작업한 곡들이 타이틀이 될 뻔했다가 다른 유명한 작곡가가 곡비도 받지 않고 곡을 주겠다고 하면 제 곡은 밀려나게 되고.... 너무 벽이 높더라고요. 이럴 거면 내가 좋은 가수나 좋은 음악으로 제작을 한 번 해보자 하면서 기획사를 차리게 된 거죠. 그런데 활동을 하다 보니 한계를 느껴서 작년에 인천문화재단 지역문화전문가 양성과정에서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 쪽 일을 하신 게 오래된 건 아닌 거네요?** 전문적으로 기획 쪽으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전부터 조그만 행사를 프리랜서로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정식으로 달리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였어요. 인천문화재단 교육과정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엄청 많이 도움이 됐죠. 문화기획에 관해 많이 배우고, 다른 기획자 분들을 소개받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배웠죠. 제가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영역들을 이제 자신 있게 할 수도 있게 됐고요. 회사이름이 ‘선샤인뮤

직’이고요, ‘선샤인문화기획’도 있고, 두 개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부평이 아닌 구월동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니던 기획사가 구월동에 있었는데 교육 사업 쪽으로 비중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음악 쪽 일을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작년 말쯤에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샤인뮤직으로 독립을 하신 후에 활동상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저희 회사가 이제 막 시작한 작은 회사잖아요. 좋은 뮤지션들이 있어도 제가 계약금을 주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본 결과 기획자들도 협업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뮤지션들과 협업의 개념으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커버 송 프로젝트’란 건데요. 커버 송(유명한 기존의 노래를 다른 음악가가 다시 연주하거나 재녹음할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을 녹음하고 친구들이 연주를 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하나씩 올리는 상황입니다. ‘찬란밴드’라는 팀과 ‘거리 앤’이라는 팀의 커버 송 10곡 정도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조회 수는 어떤가요?** 많이는 안 나옵니다.(웃음) 아직 신생밴드라 활동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공연도 여기저기 하고, 음반작업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란밴드’의 경우에는 지금 같이 음반을 준비하는 중이구요. ‘거리 앤’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원래 음반작업을 했었거든요. 제가 녹음과 믹싱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시작하실 때 그런 밴드들을 알고 시작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눈 여겨 봤던 팀들을 회사를 차리면서 함**



깨하게 된 경우인가요? 전혀 모르고 했었어요. ‘찬란밴드’의 경우에는 보컬과 베이스 친구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찬란밴드’가 되었어요. 음악하는 친구들 중에 재능도 많고 정말 잘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포트를 해주게 되었고요. 서로 ‘원원’해서 같이 커가는 그런 구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밴드멤버들은 부평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네. 부평에서 살았던 친구들도 있고, 부평에 있는 학원 출강을 하며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기반으로 ‘찬란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죠. ‘거리 앤’이라는 밴드는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남동구 쪽의 ‘인천 청년협동조합’이란 곳에서 같이 일을 하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이분들이 음반이 나오**

지는 않은 건가요? ‘거리 앤’은 음반이 몇 장이 나왔고요. ‘찬란밴드’는 올해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빨리 내려고 했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거리 앤’은 100퍼센트 협업관계고, ‘찬란밴드’ 역시 협업개념이긴 하지만 음반 낼 때 제가 제작과 유통을 할 예정입니다.

—

최근 활동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작년 말에 회사를 처음 차렸을 때 운이 좋게 부평구문화재단과 연결이 되서 <에스컴시티 프로젝트>의 무대감독을 맡겨주셨어요. 그게 올해도 이어져서 <에스컴시티 프로젝트>에서 ‘찬란밴드’와 연주무대를 만들게 되었고요. <뮤직계더링>이란 행사도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평도서관에서 음향

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 부평문화 사랑방이란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일을 했었죠. ‘찬란밴드’ 공연 때문에 음향장비를 구비를 했어요. 버스킹 할 정도의 음향장비인데, 그 덕에 운 좋게도 조금씩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문화재단과는 어떻게 연결이 된 건가요?** 음. 그게.....건물주님께서 소개를(웃음) ‘파크에비뉴’라는 카페의 대표님이신데 부평에서 문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부평이 예술가들이 많다고 들었고, 사무실 주변이 주차가 편하고 부평이라는 접근성도 좋고 해서 사무실을 부평으로 옮긴건데, 처음 입주할 때 이것저것 많이 물어 보시더라고요. **신기하네요.(웃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일이 되려니까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죠. 제 생각으론 부평구에서 자기소임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활동을 하다보면 무조건 만나게 되어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기서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 굳이 서울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꼭 그 쪽이 아니더라도 부평에 자리를 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뮤직계더링> 행사와 음반제작, 춘천 청년몰 버스킹 공연 관련 기획을 맡고 있는데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매일 새벽에 들어갑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올해는 제가 경험을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정신도 못 차리고 있긴 하지만, 경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배워야할게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단 <뮤

직계더링>행사를 잘 마치는 거구요.(웃음) 그리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됐지만 공연 기획과 문화기획 일을 더 키우고 싶네요. 인천에서 나름의 음반제작과 유통을 해보고 싶어요. 좋은 뮤지션들을 발굴해서 제가 음반 기획부터 제작, 홍보, 유통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여기 부평구문화재단에 좋은 녹음시설들도 생기고, 서울에 가지 않아도 인천에서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웃음)**

—

부평에 추천할만한 예술가분이 있으신가요? 강현구라는 가수인데요. 부평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노래들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꼭 한 번 음반이나 노래를 들어보길 추천합니다. **끝으로 부평에 가볼만한 곳을 추천해주신다면?** 원래 사무실에서 편의점 도시락 먹는 걸 좋아해요. 맛도 있고, 바쁠 때 빨리 먹을 수 있고 해서요. 그것 말고 가끔 가는 곳이 ‘개성손만두’라고 저는 2001 아울렛 건너편에 있는 지점을 가요. 가끔 가서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추천합니다.

인터뷰 : 조은성 (2019.10)

#문화기획가 안수민(선사인뮤직)#

2019 부평구문화재단 <에스컴시티 프로젝트> ‘소리, 도시, 걷고, 듣고’ 연출
부평구문화재단 <뮤직계더링> 공연 및 연출
인천 <동아시아생활문화축제> 상설무대 연출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복합문화공간 밀레

부평아트센터 근처를 지날 때면 주유소 뒤에 하얀색의 레스토랑 건물이 보인다. 분위기가 근사해 보여 언젠간 들러봐야지 하는 생각만 하다가 그냥 지나치곤 했었다. 처음 방문한 밀레는 근사해 보이는 것 이면에 예술과 문화에 대한 깊이와 이해로 넘쳐나는 곳이었다. 부디 많은 이들에게 소개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밀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유카스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 전문 회사입니다. 저는 대표를 맡고 있는 정광훈이라고 하고요. 주유소나 충전소,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밀레’라는 곳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이 공간이 주유소 뒤에 붙어있었는데, 원래 돼지갈비집이었어요. 여기가 몇 년간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주유소와 연계되는 공간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끝에 여길 복합문화공간으로 한번 꾸며보기로 한 거예요. 지역주민들에게 ‘재미있는 곳이 있네, 편한 곳이 있네, 예쁜 곳이 있네?’라고 회자되는 이런 공간을 한번 제공해보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운영하는 주유소가 계속 사양 산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주유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변화해야 하는가를 찾을 겸,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2018년 4월에 이 공간을 시작했죠.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보자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셨나요?** 처음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구체화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일단 제가 콘셉트를 잡은 건, 적어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미술작가 분들의 작품을 전시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여기 공간에 약간 특이한 스피커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음악 공연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는 예술인이 없어서 거의 길거리 캐스팅처럼, 홍대 ‘에반스’라는 재즈클럽에 갔어요. 거기서 뮤지션 분들에게 명함주고 한번 오시라고 하고 그래서 공연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미술작가 분들은 10회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하면서 원칙을 정했는데 한번은 지역에 있는 분들, 부평 쪽에서 활동을 하는 작가 분들을 모시고 또 한 번은 한국에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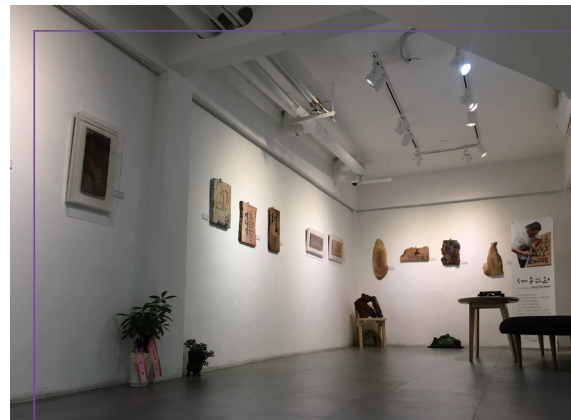
견작가 이상의 이런 분들을 초청하자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어요.(웃음) **전시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밀레 곳곳에 걸려있는 작품들이 설명을 안 해놔서 그렇지 전시중인 작품이고요. 지하에도 조그만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전시는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미술작품 전시를 하게 된 계기가 조영남 씨 위작 시비 들어보셨죠? 그 때 작업을 하셨던 송기창 작가를 3-4년 전에 우연히 김포사업장 근처에서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그때 막 언론사들에서 하도 쫓아다녀 원래 속초에 계셨던 분이 쫓겨나다시피해서 김포까지 오게 되셨다더라고요. 지내시는 곳에 가보니 거의 농가형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지내고 계시는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분을 후원하게 됐어요. 백남준 작가의 조수 생활도 오래하셨고, 미국에서 활동도 하셨던 분인데 우리나라 미술계에선 ‘어디 계보냐’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분에게 작가전시 도와드릴테니 해보시라고 권하면서 그게 어찌 보면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밀레라는 공간을 시작하면서 돈을 좇기보다는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면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오지 않겠느냐 생각했었는데, 반응 맞고 반응 틀리고 있습니다.(웃음) **밀레에 오는 분들의 반응은 어떤 신가요?** 처음에는 지역 분들이 정말 관심이 없구나!(웃음)하고 느꼈는데, 그러다가 10회쯤 전시를 하고나니 반응들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작품들 경우에는 많은 분이 관심들 가져주시고, 또 어떤 분은 사가기도하시고 그래요. 어쨌든 저는 지역주민들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와서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보면 아무래도 달라지거든요.

—

재즈 공연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원래는 일주일에 두 번씩 했었어요. 목요일, 토요일 공연을 했었는데, 제가 사업장이 열 몇 개 되는데 여기가 전체의 십분의 일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쏟는 시간이 반이 넘는 거예요. 목요일은 재즈, 토요일은 클래식 위주로 했는데 일단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그것보다 더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작년 8월부터 일주일에 두 번 공연을 진행했다가 지금은 <목요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일주일에 한번만 해요. 제가 전시와 공연 두 가지를 다 혼자 진행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공연 두 번은 너무 버거웠던 거죠. <목요콘서트> 반응은 어떤가요? 저희가 공연입장료를 받지 않아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공연을 보는데도 집중들을 잘 안하시죠.(웃음) 재즈 뮤지션들 사이에는 여기를 아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저조한 편입니다. 하지만 좋은 공연을 하는 팀들은 반응이 있어요. 제가 마케팅을 잘 못해요. 재즈 공연에 대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광고가 필요한데, 그냥 앞에 배너만 설치하고 그래서 잘 모르시죠. 매주 목요일 8시에서 한 시간 정도 공연을 하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운영하면서 힘든 점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외국의 식당이나, 조그만 서점들은 대부분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그게 하나의 문화로 인정받고 심지어는 뉴욕에는 ‘미술관 식당’도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갤러리 카페 이러면 그냥 마치 별 볼일 없는 개인 취향정도로 인식하고, 전시한다는 것 자체를 폄하하는 게 있더라고요. 작가 분들 중에도 그러신 분이 있고요. 그런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운영하면서 좋은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제 만족도가 높죠. 늘 작품이나 공연을 생각하면서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고, 인간이 밥만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고객의 8-90프로가 여성분들이에요. 그리고 비싸다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비싼 건 아니거든요. 문턱을 낮추려고 했는데 오히려 문턱이 높아진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 가격을 낮추자니 경제성이 너무 안 나오고, 운영하던 일 년 반 동안 제가 가져간 돈은 한 푼도 없어요. 그래도 재밌어요. 고객들이 좋아해주시니까요. 가끔 인상을 쓰고 들어왔다가 웃는 얼굴로 나가는 분들을 볼 때 기분이 좋아져요. **다리미 같은 곳이에요.(웃음)**

—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부회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평아트센터를 보며 ‘십정동에 이런 곳이 있네?’이러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백범 김구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는데 그 분하신 말씀 중에 ‘결국은 문화의 힘이 그



나라의 국력이 아니겠느냐’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군사력은 우릴 지킬만한 정도면 되고, 부력은 먹고 살만하면 되고, 남에게 빌어먹지 않을 정도면 되지만, 높은 문화의 힘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자긍심을 준다는 말씀을 백범일지에다가 적어놓으셨어요. 문화 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사회 자체도 훨씬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후원회에 가입하게 된 것은 제가 먼저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어요. 회사가 여러군데에 있지만 부평 쪽에서 무언가를 하게 된 것은 처음이에요. 문화적 후원을 하는 것도 부평구문화재단이 처음이고요. 대부분 제가 좋아서 시작하는 편이에요. **대표님께서 문화 예술분야에 중점을 많이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유소를 하더라도 뭔가 문화적 요소를 접목시킨 문화경영을 하지 않으면 기업도 도태된다고 생각해요. ‘작은 기업이지만 문화경영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 그걸 위해서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려운 일이

예요. 결국 문화라는 게 너무 폭넓잖아요. **앞으로 밀레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밀레 앞 야외에서 지역주민들 초청해서 재즈 공연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음악 조금 크게 틀면 민원 들어오고, 경찰 출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주민들을 설득해서 내년에는 5월쯤에 토요일 정도에 공연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미술작가 분들 초청해서 전시도 계속 하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대표님에게 밀레라는 곳은 어떤 의미인지?** 저한테는 ‘사실 작은 꿈을 실현하는 곳이고 발전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긴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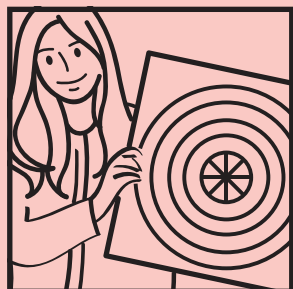


인터뷰 : 조은성 (2019.11)

#밀레 전시와 공연#

전시 차경진 작가/이승희 작가/송기창 작가/한기창 작가 등등
 공연 최용민, 서인혜, brisa, 김수화 project band, 하인에 트리오, 정민경과 뮤지스(클래식)

한글다



나무온실



조각가 김창기



도예가 예성호



유리공방 은리



영화 미술감독 홍주희



나무와 실의 만남, 생각했던 것이 실현되는 공간 **나 무 온 실**

굴포천에 나무온실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진희 작가를 만났다. 여러 공구와 장비들이 가득한 공간에 색색의 실과 따뜻한 나무가 우리를 반겼다. 독특한 매력이 느껴지는 ‘나무온실’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활동들이 가능할지 궁금해졌다.

처음 ‘나무온실’을 만들게 된 계기나 목적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전에는 회사에서 디자인을 했었어요. 공방을 처음 만든 목적은 기존에 하던 일을 살려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나무라는 소재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가공을 해서 바로 제품화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무를 쉽게 가공할 수 있는 기계가 CNC(*컴퓨터로 디자인한 설계도면대로 나무에 자동으로 제단을 해주는 기계)인데, 이 기계를 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나무온실을 연 이후에 장비나 공구들을 하나씩 늘려갔죠. 아직은 공방을 연지 1년이 안되었고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데, 이후에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스트링아트’ 도안을 연구해서 도안책을 만들어볼 생각이예요. 올해 안에는 스트링아트 도안책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스트링아트’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스트링아트는 나무판 위에 디자인된 도안대로 구멍을 뚫어 핀을 박고, 그 핀과 핀 사이를 실로 감아서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컴퓨터로 도안을 디자인하고, 공방에 있는 CNC 기계로 나무에 가공을 해요. **그래서 공간에 여러 색의 실이 많았군요. 공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 최종적인 작가님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제 원래 전공은 ‘멀티매니메이션’이어서 캐릭터 디자인을 했었어요. 제가 만든 캐릭터들을 굿즈로 만들어 상품화 시키고, 스트링아트 도안으로도 만들고 싶어요. 더불어 공간에 갖춰진 CNC, 레이저 프린트, UV 프린트 등 장비들을 활용해서 다른 예술가들이 와서 자기 작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방을 조성하고 싶어요. 최종적으로는 정부에서 하는 지

원사업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어 일반인의 접근이 쉬워지면 좋겠어요.

‘나무온실’의 근황은 어떻게 되나요? 초기엔 스트링아트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업 사이클링’을 생각하게 됐어요. 쓰지 못하는 나무나 폐전선을 활용하는 작업을 기획했었죠. 그러다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어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찾아보게 됐어요. 요즘은 실을 감는 기계인 ‘와인더’를 개발하고 있어요. 스트링아트 작업을 하다보면 실을 계속 감아야하는데 그런 기계가 있으면 편리하겠다고 생각했죠. 낚시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했는데 거의 최종단계에 와있어요. 검은 나무를 배경으로 한 스트링아트 작업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꼭 올해 안에 완성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저도 나무온실에서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캔버스 만들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나무온실을 오가셨던 예술인들로는 어떤 분들이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분으로는 인터뷰를 진행해주시고 있는 옆집 작가 ‘고진이’ 작가님이 있어요.(웃음) 그 영향으로 캔버스 만들기 수업을 만들게 되기도 한거죠. 요즘은 캐릭터 일러스트 작가 분들과 작업 공간을 공유해서 수업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공 관련해서 개인



는 것 외에도 부평지역에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캔버스 만들기〉수업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나무로 캔버스를 다 만들고 나면 그 위에 ‘뭘 그려야 하나?’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다행히 옆에 ‘작업실이진고’가 있어서 추천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공방들이 모여 있고 활발하게 교류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

‘나무온실’은 무슨 의미인가요? 나무온실의 직역은 ‘나무 위에 실’(나무on실)이에요. 스트링 아트를 뜻하기도 해요. 지금 제품 개발하고 있는 와인더도 낚시용품인데, 생각해보면 낚시대 역시 과거에 나무에 엮인 실이었잖아요. **왠지 나무와 실이 운명적으로 느껴지네요.** 나무온실을 영어로 쓰면 ‘스트링 온 우드(String On Wood)’거든요. 이니셜인 ‘SOW’라는 이름을 나중에 공방이 회사로 확장된다면 사용할 생각이에요. ‘SOW’는 ‘대지의 씨앗’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나무온실’은 제 밑받침이자 씨앗 같은 것이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네요. 올해 꾸준히 변화를 멈추지 않았던 ‘나무온실’의 미래가 더 기대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네에 추천하는 맛집이나 아지트가 있나요?** 신트리 공원 앞에 있는 ‘참새초밥’이나 그 라인에 ‘장터 삼겹살’을 추천합니다.

인터뷰 : 고진이 (2019.9)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과도 공간을 공유하고요. 이 안에서는 캐릭터 그리기 수업을 해도 여러 장비로 확실한 결과물을 얻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라탄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과도 라탄 공예 원데이 클래스를 만들어볼 계획이에요. **플랫폼처럼 많은 분들이 오갈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어쨌든 시범운영 삼아서 할 수 있는 한 다양하고 많은 것을 시도해보려고 해요.

—

부평에 자리 잡은 이유가 있나요? 일단 집 근처여서 걸어서 오기 좋은 거리예요. 앞에 지하철역이 있고 교통도 좋아서 다른 분들이 공방을 찾기에 접근성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부평지역에서 활동할 계획 혹은 지역에 희망하는 것이 있을까요?** 부평에 여러 거리가 있잖아요. 문화의 거리에 있는 평리단길, 굴포천 주변에도 먹거리 타운이 생겼고, 구청쪽에 ‘청리단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도 있죠. 먹



#나무온실 공방#

시제품 디자인 및 CNC 설계
스트링아트 DIY 키트 제작
목공 클래스 운영 (캔버스, 스트링아트, 카빙, 도마, 컵걸이)



형상의 돌을 찾아 떠난 자리에서 탈출과 견딤의 움직임을 캐낸 조각가 김 창 기

문이 열려 있는 기다란 작업실 양쪽으로 바람이 들락날락했다. 어느 어른의 지나가는 걸음은 기막힌 비트박스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는 최근 ‘함께’라는 주제에 관한 깊은 고민을 보여 주었다. 깊어진 세계만큼 깊어진 눈물이 사이사이 배어 나왔다. 작가에겐 가족과 작업이 한 덩어리, 조각이었다. 한적한 산곡여중 앞 그의 작업실에서 마주하여 실타래를 풀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함께’라는 부분을 풀어가고 있는 조각가 김창기입니다. ‘함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생명체, 비생명체도 포함합니다. 솔직히 어렸을 적부터 다른 부분에 능력이 뛰어나지 못했는데 손재주가 남보다 낮다고 해서 미술로 출발을 했어요. 기능적으로는 조금 갖춰졌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청소년기에 알게 됐죠. 이걸 하다보면 다른 것에 끌리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르게 보이고, 저도 저를 컨트롤 하지 못한다고 느껴졌어요. 요즘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학교도 회화과를 들어갔는데 제가 평면보다는 입체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졸업하고는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어요. 이탈리아 까라라(Carrara)라는 지역이었는데 주변에 돌이 너무 많았어요. 대리석 산지라서 돌조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웃음) **그럴 적에 사람이 양 갈래로 나뉘잖아요.** 사실 그 지역 유학생 대부분이 대리석을 가지고 작업을 해요. 몇 번 경험하면서 내가 왜 이걸로만 표현할까 싶었어요. ‘움직이는 돌’이라는 주제로 바꿨어요. 움직이기는 하지만 육중함을 가볍게 접근하고 싶었거든요. 성질을 변화시키면서 사고의 변화를 꾀했던 거 같아요. **그때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처음엔 ‘생명’이라는 주제로 풀어가다가 한계를 경험하면서 ‘움직이는 돌’이라는 작업으로 옮겨왔어요. 돌을 움직이는 어린 아이의 가벼운 터치로도 돌에 의식을 줄 수 있는거죠. 또 다른 이유는 전시장의 엄숙함이었어요. 작품조차도 어두운데 만지거나 건드리지 말고 눈으로만 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각은 촉각 부분이 커요. 만지면서 완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시각장애인에게 조각품을 만지지 말고 막아버린다면, ‘굳이 내가 입체작품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하고 생각했죠. 오히려 ‘만져주세요.’, ‘건드리세요.’라는 주제로 더 끌고 가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동안의 고정적 생각을 전환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런 고민이 만들어 낸 대표적인 작품이 있을까요? 인천아시아게임주경기장 작업이었는데, 15m정도 되는 크기예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세운 작업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노동력과 내가 상상하는 것들이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느꼈어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도 실제로는 조금 달랐죠. 갈등이 있었지만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공존의 운율>이라는 작품이에요. <움직이는 빨강, 검정>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색을 조금 넣은 것들이 등장해요. 최근에는 ‘함께’라는 본질적인 인간의 이미지를 조형적으로 풀어하려고 방법적인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 들어요. 이탈리아 갔을 적에 작업 대하는 자세를 익혔던 것이 다시 반복되는 느낌이랄까요.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물질의 조형성을 가지고 ‘함께’라는 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하고 있어요. **활동하시면서 전환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결혼하면 서겠죠. 졸업식 다음날 결혼을 했어요. 2월 22일에 졸업하고 23일 결혼식을 했죠. 그리고 그해 4월에 유학을 갔어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결혼도 하고, 외국도 처음 밟았고, 새로운 문화도 접했고. 4학년 때 이 나라를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부유

해서가 아니라 이 도시를 떠나야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떠나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지금의 아내에게 무조건 떠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해줘서 결혼식하고 같이 갔어요. 92년도였죠. 당시는 바람 잘 날 없는 민주화운동 시기라 시끄러운 학교였어요. 대학 입학을 늦게 했는데 입영 연기를 못해서 전주로 가게 됐고 뭔지도 몰랐던 ‘전투경찰’이 됐어요. 전두환 시절이라 학생들 데모가 많으니까 가자마자 훈련도 안 받고 방패를 들었는데 묘하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흘려요. 앞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료였던 친구들이 서 있고... 그런 것들은 지금 생각해도... (시큰해짐) 그 때 상황은 그랬어요.

—

최근 활동은 어떤가요? 힘들어요. 작업한다는 것, 끌어간다는 것이. 다른 직업 없이 이 일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작가는 신용불량자가 아닐까 드네요. 이번에 다행히 공모 당선이 돼서 한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나면 또 어려움이 오겠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눈뜨면 고민과의 싸움이에요. 하루하루의 자기와 사회와의 부딪힘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 작가로서 존재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탈리아로 다시 가고 싶나요?** 98년도에 들어왔다가 2년 후에 짐을 다시 썼었어요. 그러다가 주저앉았는데 그때 갔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가서 뭐 하겠어요. 이 땅에서 뭘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10년 전쯤에 인천 자유공원에 묻었던 타임캡슐 작업을 했었어요. 오픈이 2016년이었는데 누군가의 제보로 공영방송에 방영되면서 많은 사람의 사연이 방송을 타게 되었어

요. 기억에 남는 몇 분이 있어요. 사랑 고백을 하고 결혼해서 아이와 함께했던 분, 자식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다시 자식에게 삶을 전하는 분, 무당의 사연 등. 다양한 사람들이 내가 마련한 작은 매개체(작품)로 인해 따뜻해진 느낌이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일 수 있죠.

—

부평에는 언제부터 지내게 되셨나요? 귀국해서 10년 정도 되었죠. 한국 들어와서도 10번 이상 이사를 했어요. 쫓겨 다녔죠. 수입이 없으니까 번두리 비닐하우스, 폐교 귀퉁이... 처가가 부평 뉴서울 아파트라서 거기에 잠깐 살다 또 독립해서 살다가 계속 지내게 된거죠. 부평에서 특별한 전시를 하거나 큰 기획하는 것들이 흔치는 않았던 거 같아요. 참여한 것은 2013년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에서 전시 〈조각에 귀를 기울이면〉이에요. **부평의 분위기는 어때요?**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군부대도 있고 구도심도 있고 신도심도 있어서 다니면서



도 일률적이지 않은 환경들, 낮은 산들, 역사성도 있고. 아! 2016년도에 〈평화의 소녀상〉을 부평공원에 세웠어요. 많은 일이 있었고 그때 아마 ‘함께’라는 부분을 고민했던 거 같아요. **지금에 있게 한 실마리가 되었나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기사를 검색해보면 인천 〈평화의 소녀상〉 작가로 나와요.** 저는 동상이라는 건 상징적이긴 하나 이걸 계기로 다양한 행위들을 더 연출했어야 했는데, 연계성을 갖지 못했던 건 아쉽게 생각해요. 제 행위에 대한 거죠. 다른 분들은 꾸준히 행위하고 있는데 스스로 연관행위가 있었어야 했구나 싶기도 하고요. 요즘 일본과의 문제가 심각한데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덧붙일 말씀이라도?** 소녀상 옆에 자연석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공론화하자는 의미를 담았어요. 딸아이가 그 토래예요. 지금 열세 네 살 정도. 그러다 보니 당시의 소녀들이 생각나 정말 많이 울면서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 소녀가 살았던 동네 어귀에 어김없이 자연석이 있는데 거기 부모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상상을 해봤어요. 거기서 같이 소녀의 아픔과 상황들을 풀어 가보자는 의미를 담았죠. 예술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의 소유물이 아닌 이 사회에 던져진 것이고, 공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양하게 바라봐주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작가는 하나의 생각을 던지지만, 판단은 관객들의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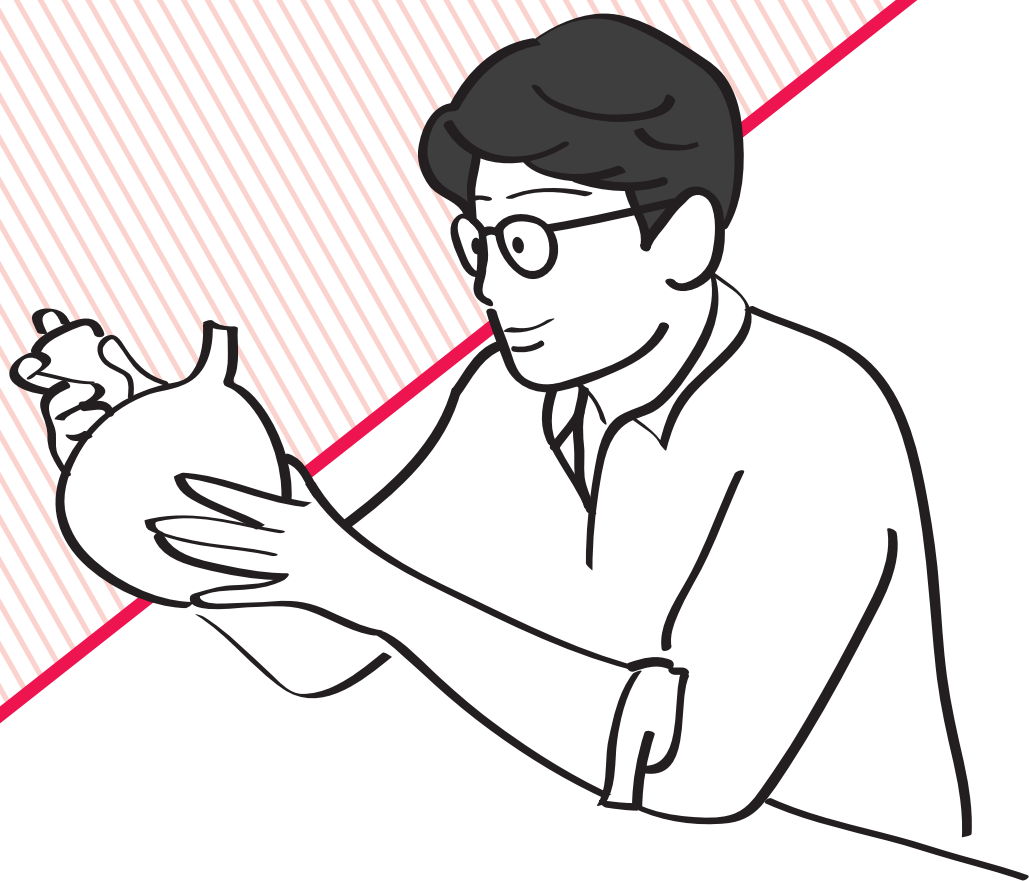
—

#조각가 김창기#

2016 <평화의 소녀상> 부평공원
2014 <공존의 운율> 인천아시아안계임주경기장
2013 전시 <조각에 귀를 기울이면>

혹시 부평지역에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예술가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마을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면 좋겠어요. 인사동도 처음엔 한두 명이 모여서 갤러리도 생기고 작업실도 생겼지만 이상하게 변질이 되었죠. 작가는 쫓겨나고 상가들만 짝 차는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작가들이 뭔가 하고 싶은 마을이 생겼으면해요. 그러다 보면 특성화되는 것들이 생길 거 같아요. 얼마 전에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서 공원 산책하러 나갔어요. 부영공원을 갔는데 이걸(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발견했어요. 네 잎이 아니라 다섯 잎인 클로버죠. 그날이 공모 심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살지, 탈출구도 없고 그래서 공원 산책하러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걸 본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순간 전화가 왔어요. 와~ 죽으란 법은 없다고 했죠. **작업하면서 생활로 부딪치는 게 많죠?** 많죠! 유명한 작가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작가들만이 아니라. 작가들은 자신이 하고픈 걸 추구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렇다고 가정을 팽개치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족이 있고 소명이 있고 예술 행위가 있죠. 예술 행위를 위해 가족을 팽개치고는 싶지 않아요. 내색은 하지 않지만 고통스러워요.(웃음) 그래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 다치지 않고 예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문화가 풍부해져야 사회구성원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인터뷰 : 유광식 (2019.9)



소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는 미소도예공방 도예가 예 성 호

외관부터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미소도예공방’을 찾았다. 1층에는 가마실이 있었고, 작업이나 수업은 주로 2층에서 이루어져서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다. 공방 문을 열자 넉넉한 크기의 도자기들이 우리를 먼저 반겼다. 국내에서 흔치 않은 ‘락쿠’ 작업을 하는 예성호 작가의 공간 역시 넉넉하게 낭만적이었다. 창문을 열고 그 공간에 앉으니 소박한 아름다움이 뭔지 알 것 같은 기분이 몽글몽글 피어났다.

미소도예공방을 운영하고 계신 예성호 작가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도자기를 시작한지는 23년 정도 되었고, 공방은 18년째 한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방에서 수업도 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둘러앉아 차 한잔 마시기도 합니다. 개인 작업도 필요하면 공방에서 하지만 ‘락쿠’ 작업은 연기가 많이 나는 작업이라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기사를 찾아보니 ‘락쿠’ 작업에 대한 글이 많았어요. 정확히 ‘락쿠’가 어떤 기법인가요? 5 번째 개인전 이름이 <예성호의 락쿠 연기전>이었습니다. 연기 연(煙)자에 그릇 기(器)를 더한 연기를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작품을 보면 까맣게 그을린 자국이나 갈라진 자국이 보이죠? 기와 같은 것을 보면 새까맣잖아요. 연기를 빨아들여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도자기가 가마 안에서 1000도에 빨갛게 달궈졌을 때 꺼내서 나무나 톱밥 같은 가소성 물질로 덮어요. 그러면 그 열 때문에 나무가 타면서 나는 연기가 도자기에 스며들어서 까만 흔적을 남겨요.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락쿠 작업을 하지만,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조지로’라는 도공에 의해 시작됐어요. 이 때 락쿠가 알려졌고 그 가문은 아직도 대를 이어 작업하고 있다고 해요. 연기로 인한 우연의 효과로 흔적이 조개껍데기 같기도 하고 화석 같아 보이기도 해요. 락쿠는 일반 도자기는 아니고 토기에 가까운 도자기예요. 일반 도자기는 1200-1300도 정도에서 구워지지만 락쿠는 1000도의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져요. 유약도 낮은 온도에 쓰이는 유약을 바르고요. 쓰임새보다는 조형물에 가깝죠. 개인전 하실 때 주로 락쿠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전에는 생활도자기와 같은 식기 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락쿠 조형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7회 개인전시를 하셨

고 많은 작품들이 있으셨을 텐데 대표작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지금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 도자기로 만든 벽 ‘도벽’ 작업이 있어요. 도자기 벽화라고 생각하면 되요. 2017년 발표한 <Finger print17-3(연작)>의 경우 다섯 손가락의 지문을 뜻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는 오리지널한 지문을 표현하고 제 엄지 지장을 도자기에 찍기도 했죠. 반면 <상념17-4>라는 작품은 지문의 흔적을 모티브로 추상화한 작업이었어요. 제가 주로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지문은 누군가와 겹쳐지지 않는 고유 정체성의 표식이잖아요. 도자기를 만들 때 찍힌 흐릿한 지문에서 착안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혹시 지문시리즈 작업을 얼마나 되셨나요? 10년 정도 되었죠. 락쿠 작업으로 우연의 효과가 많이 생기는데 도자기가 완성될 때 설레겠네요. 네, 그게 없으면 도자기를 할 이유가 없죠. 락쿠 작업은 급격한 온도차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실패율이 높아요. 흙도 일반 흙을 쓰지 않고 조합해서 써야 하고 유약도 특별하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하는 작업이죠. 락쿠 작업이 특별하기 때문에 대학교나 문화재단에서도 워크숍을 갖기를 하죠. 부평구문화재단에서 락쿠 작업은 아니지만 물레시연을 하기도 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도자기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네요. 도자기에 대해선 잘 몰랐어요. 원래는 조소가 전공이에요. 군 제대 후 다른 일을 하다가 조소와 비슷한 뭔가를 찾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도예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저에게 잘 맞았어요. 도자 중에서도 환

경 도자를 전공했죠, 그래서 작가님의 도자기가 더 조형적이었군요. 예정된 전시 소식이나 근황은 어떻게 되시나요? 내년 봄 정도에 개인전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은 장소나 구체적인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른 작가님들은 1년 정도 계획을 하고 끊임없이 작업을 하지만 저는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공방에 전시된 락쿠 작업들도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를 만들고 싶은 기분이드는 곳이에요. 공방이 한자리에 오래 있었는데 장기수강생도 있으시겠네요?** 오래 다니신 분은 7년~8년 다닌 분도 계시죠. 2017년에 미소 도예회원 창립전을 했고 2018년에 두 번째 단체전을 부평아트센터에서 했어요. 올해 단체전시는 쉬어 갈 듯해요.

미소도예공방의 ‘미소’는 웃는 얼굴을 뜻하는 이름인가요? 아름다울 미(美)와 작을 소(小)를 합쳐서 소박한 아름다움이라는 뜻



을 가지고 있어요. 어감도 좋고요. **작가님의 외부 강의는 어떻게 하시나요?** 인천 동구에 위치한 ‘우리미술관’에서 팽이부리마을 동네 분들과 락쿠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봄과 가을로 나눠서 계속하고 있죠. **인천 지역 외에 있었던 활동은 있었나요?** 전에는 청주 쪽에 은사님이 계셔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올해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에 입상을 해서 그 작품으로 참여를 하죠. 금속, 도자, 유리, 섬유와 같은 공예작품들을 볼 수 있는 큰 전시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큰 규모에 외국 작가들의 작품들도 볼 수 있어요. 2019년 10월 8일부터 11월 17일 까지 한 달 정도 진행이 되요. 오래된 큰 건물을 살려서 대작들도 볼 수가 있죠.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것은 작가로서 영광스러울 텐데 입상까지, 축하드립니다. 작가님께 도자 작업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예는 몸으로 일일이 해야 하는 정직한 작업이에요. 글과 말보다는 작품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념적으로만 공예작업을 얘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멋진 작가님께서 부평에 있으셔서 참 좋네요. **왜 부평에 자리 잡게 되셨나요?** 우연히 집 주변에서 공방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도자기를 한다고 해서 초야에 묻혀 백자나 청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소통 없이 산에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와야 하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공방 1층에 갤러리가 있었어요. 공방을 처음 열었을 때는 이 동네가 인천에서 잘 사는 동네였어요. 접근성도 좋아서 갤러리에서 작품도 많이 팔았죠. 하지만 점차 구도심이 되고 생



활상이 전 같지 않아서 갤러리도 수요층이 적어져서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작업장으로만 공방을 쓰고 수업도 하고 있어요. **2층 공간이 꼭 카페같이 예뻐요.** 이 공간은 지인들과 술 한 잔 기울이기도 하는 곳이죠. **여기가 아지트네요! 지역에 추천하고 싶으신 예술인이나 단체가 있으신가요?** 조규창 서양화가님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사시는데 인제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세요. 재직하면서 동네에서 작업실도 운영하고 계세요. 비구상과 추상사이의 작업을 하시죠. 인천 지역에서 넓은 활동을 하셨어요. **중견 미술 작가 분을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 공방에 기타도 있고 세월이 느껴지는 히트송 책도 있는데 음악을 좋아하시나 봐요. **동네에 공방 외에 자주 가는 공간이 있나요?** 부평구청 쪽에 지하에 있는 ‘락캠프’요. 락캠프에 정유천 씨도 공방에 놀러 오시곤 했었죠.

#도예가 예성호#

개인전 7회, 단체전 및 초대전 50여회
단국대학교 환경도자 석사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전환점으로 꼽을 수 있는 시기나 사건이 있을까요?** 예술 하시는 분들이 다들 어려움이 있죠. 특히 도자나 공예는 제품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생활자기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도자기 산업도 많이 죽었어요. 저도 방향을 바꾸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교육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생활자기보다는 조형작업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매달 매해 버티는 노미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18년을 해온 거죠.

인터뷰 : 고진이 (2019.9)





오직 당신에게 햇살의 온기를 담은 유리를 유리공방 온 리(溫璃)

10월 중순 청리단길에 있는 유리공방 ‘온리’를 찾았다. 창문에 붙인 ‘스테인드글라스 온리’라는 스티커 글씨가 빈티지하다는 생각을 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니 역시나 옛 감성을 자극하는 사랑스러운 소품들이 스테인드글라스 작품과 함께 진열되어 있었다. 창가의 타자기와 빈티지 조명에 장식된 유리공예는 ‘온리’만의 색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유리공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작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평 청리단길에 유리 공방을 연지 5개월이 되었네요. 제 원래 전공은 유리공예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유리 공방 클래스로 스테인드글라스를 알게 되었죠. 저희 선생님도 저처럼 1인 공방을 운영하시는데, 정규 수업을 받다가 그곳에서 뭔가 ‘뽀로롱’하는 느낌이 왔어요, ‘아, 이거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 했죠. 마스터 클래스를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연습을 더 하다가 지금의 공간을 열게 되었어요. 사실은 개인 작업실로만 사용하려고 공방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동네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수업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주셔서, 저도 용기를 내서 클래스를 진행하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 공방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졌어요. 또 전에는 부평에 유리 공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유리 공방을 기다렸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유리 공방 클래스를 하다 보니, 좋은 기회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되어서 좋네요. **원래 전공은 무엇인가요?** 제가 학교를 두 번 다녔어요. 처음에는 유아 특수교육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일이 너무 힘들어 두 번째는 엄마 권유로 방사선과를 전공했는데 이걸 정말 지랄 안 맞아서 힘들었어요. 결국은 다시 유아 특수교육 선생님 생활을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일을 접고 육아에 전념했어요. 사실 어릴 때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유리공예를 알게 되면서 스테인드글라스로 하고 싶은 작업을 찾게 된 거죠.

—

유리공예가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온

리’에서는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을 하시는 거죠? 네, 유리 공예 안에 스테인드글라스가 있어요. 보통 열을 가해 유리를 가공하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스테인드글라스는 성격이 좀 다른 작업이에요. **유리 공예 안에 여러 분야가 있는 거군요. 그리고 보니 공방에 여러 색유리가 많네요.** 유리를 모양내서 한 조각 한 조각 잘라 동 테이프를 감아 납땜으로 이어붙이는 작업을 해요. 그렇게 유리로 원하는 모양과 색을 만들죠. 저도 처음에는 간단한 작업인 줄 알았는데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더라고요. **어릴 때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다고 하셨는데, 색을 이어붙이고 모양을 만드는 스테인드글라스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스테인드글라스 안에 ‘유리화’라는 작업이 있어요. 유리 조각 위에 그림을 그리는, 정말 정통적인 기법이죠. 유럽의 성당에서 볼 수 있는 기법이에요. 제가 어릴 때 성당을 다녔는데 성당에 가면 분위기가 따뜻하잖아요. 원래 유리의 성질은 차가운데, 빛을 받은 색유리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이 좋았어요. 성당 유리창 밑에서 햇빛을 받고 있으면 웬지 거기가 더 따뜻한 것처럼 느껴져요. **공방 이름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공방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다가 어릴 때 성당 다니던 그 느낌이 딱 떠오르면서 따뜻한 느낌? 유리? 이렇게 생각하다가 ‘온기를 전하는 유리’를 줄여서 ‘온리’라고 짓게 되었어요. 처음에 공방을 열 때는 제작만 하려고 생각했으니 제가 만든 작품들이 어느 공간에 가든 따뜻한 온기를 전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름을 짓게 된 거죠. **정말 공방 이름에서도 온기가 전해지네요.** 유리는 본래 차갑지만 남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게 멋지네요. 맞아요. 다른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작업에 하다 보

면 잡생각이 없어지잖아요.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육아 스트레스가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작업하는 동안에는 딱 이것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해소 돼요. 그래서 저도 수강생 분들께 많이 물어봐요. ‘어떠세요?’, ‘기분 좋아지지 않으세요?’ 하면서.(웃음) **공간에 전시된 스테인드글라스 작품들이 참 예쁜데, 작가님이 손재주가 좋으셔서 작업하면서 더 힐링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손재주가 없는 초보자 분들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수강생 분들 중에 자신 없어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낯뻐하는 과정이 은근히 힘들고 손이 많이 가거든요. 잘 모르는 분들은 하시다가 ‘저는 왜 선생님처럼 안 되죠?’라고 힘들어 하세요. 그럼 ‘저는 백 개 넘게 이걸 했으니 하는 거라고, 열심히 하면 하실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죠. 즐기며 하다 보면 기술은 점점 늘어요. **앞으로 공방 클래스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은 정규 클래스까지 오픈을 해놨는데, 추후에 취미 클래스와 심화 과정도 오픈할 계획이 있어요. **공방에 빈티지 소품도 많고 자개장도 보이는데 스테인드글라스와 연관이 있나요?** 아니요. 저건 제가 너무 좋아해서 가져다 놓았어요.(웃음) 제가 이런 빈티지 하고 예스러운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제 작업하고 이런 빈티지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테인드글라스도 고전적이잖아요. 제가 이런 취향을 가지다 보니 제 작품에서도 빈티지한 느낌이 난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공방을 연지 1년이 채 안되었지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온리’를 오고 가는 분들 중에 인연이 깊거나 생각나는 수강



생 분들이 있나요? 네, 대부분 다 기억이 남지만, 정말 신기한 경우가 몇 분 계세요. 그 중에서 꼽자면 제가 정규 클래스를 오픈하도록 저를 밀어 주신 분이예요. 스테인드글라스가 너무 하고 싶으셔서 서울에 있는 공방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들으러 다니셨다고 해요. 근데 서울까지 다니기에는 너무 멀어서 자주 가지는 못하셨대요. 마침 또 부평에 사시는데 제가 유리 공방을 오픈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오셔서 등록부터 하셨어요. 왜 그렇게 이게 하고 싶으시냐고 궁금해서 여쭙봤어요. 그랬더니 미안마랑 캄보디아 쪽으로 해외 봉사를 다니신대요. 아주 오랫동안 다니셨나봐요. 그 쪽의 소외계층 아이들한테 이 스테인드글라스를 선물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분은 아니셨지만 하나씩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내주고 싶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정규 수업을 꼭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사실 고민 중이었거든요. 결국 그 수강생 덕분에 정규 클래스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 분이 만든 작품을 이번에 미안마에 보내셨는데 그게 미안마에 있는 도서관

에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작품이 그쪽 미안마 동네에 소문이 났대요. 그러면서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온리를 통한 스테인드글라스가 온기를 전했구나 싶은 마음에 너무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그분은 이 작업을 저에게 더 배워 나중에 캄보디아에 가서 건물을 짓거나 할 때도 도움을 주실 계획이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도 응원을 엄청 많이 해주셔서 소극적인 저에게 용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그분도 정규 수업을 등록하셨는데 저랑 성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고향이 영종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고향도 영종도거든요. 근데 성도 같잖아요. 영종도에 장씨는 흔하지 않아요.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가 그 수강생의 아버지와 촌수는 멀지만 엄청 가까운 관계였던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여기서 가족 상봉도 한다고 그랬어요. **보통 클래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는 1대1 수업만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도 가능한 것 같아요. 수강생들도 1인 수업을 좋아하세요. 제가 밀착해서 알려드리니까. **정말 온리네요.** (웃음) 네, 모든 게 다 온리예요. **1대1로 한다는 게 정말 정성도 시간도 더 쓰는 일인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걱정을 했어요. 일대일 수업이다 보니 수강생이랑 저랑 안 맞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낮가리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다행히 다들 1대1 수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수강생들은 저한테 ‘1대1로 하면 남는 게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냥 1

#유리공방 온리#

스테인드글라스 주문 제작
스테인드글라스 클래스 운영 (원데이, 정규, 취미 클래스)

대1일이 좋아요. 제가 세세하게 가르쳐드릴 수 있어서 편하고, 다수 수업을 하다 제가 어떤 한 분에게 소홀해지는 게 제가 싫거든요. 제가 배울 때도 1대1로 수업을 배웠기 때문에 그 장점을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 명과 같이하다 보면 다른 누군가와 비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부평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는신가요? 저는 이 지역에서 불러준다면 뭐든지 함께 해보고 싶어요. 컬래버레이션 작업도 좋고 무엇이든지요. 더불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방이 되었으면 해요. 예를 들면 부평구 지역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 요양원, 학교, 이런 곳을 꾸미거나 지역 행사들이 있을 때 스테인드글라스 소품이나 작업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참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등학생들 진로 탐색 과정으로 공방체험 활동 등과 같은 과정이 있다면,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도 해보고 싶어요. **부평에 ‘온리’가 생겨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가님에게 유리 공방 온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only. 단 하나뿐인 공간의 색을 담은 유리 공간이죠.

인터뷰 : 고진이 (2019.10)





글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조율자 영화 미술감독 홍 주 희

영화 작업을 하고 있는 미술감독의 작업실을 찾았다.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 이야기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부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미술감독이자 부평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본 부평지역의 이야기도 영화 속 이야기만큼 흥미로웠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영화 미술감독이자 프로덕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홍 주희라고 합니다. 저는 부평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올해 영화 <비스트>를 찍으며 인천에서 영화 촬영을 했었죠. 최근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이

라는 작품을 마쳤습니다. 미술감독이 영화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글을 영상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시각적인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콘셉트를 잡고 구현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서 기초 작업으로 공간에 대한 콘셉트라든지, 장면에 대한 이미지 콘셉트를 정하고 세부적으로는 의상 느낌이나 분장 느낌과 같은 콘셉트 작업으로 시작을 해요. 두 번째로 현장에서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를 제외한 거의 영화 화면에 비치는 모든 부분인 것 같네요? 맞아요. 미장센에서 물성으로 구성되는 것들, 인물을 제외한 것들에 대해서 기획하고 구현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촬영과 조명과 같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물리적인 것들은 저희가 구성하죠. 언뜻 들어도 일의 과정이 많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시나리오 안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이미지화시키고, 거기에 적당한 공간의 이미지, 소품 이미지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옷의 색과 스타일링을 정하죠. 물론 소수 인원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화는 특성상 협업구조이기 때문에 상호 협력하는 여러 팀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품, 세트, 의상, 특수분장팀이 있고 요즘은 특수 효과, CG, 특수분장과 같은 VFX(시각적인 특수효과)와도 같이 협업을 해서 구성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 안에서 중심축이 되서 움직이고 있죠. 미술감독의 역할은 전체적인 것을 감독하는 거죠? 전체적인 것을 감독한다기보다, 전체 파트를 유기적으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만드는 역할이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절대 미학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따라라!' 하는 권위적인 시스템이 아니고(웃음) 감독님과 협의 하에 또는 기술 파트와의 협의 하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점을 정하고, 비주얼을 구현하는 팀들과 협업해서 가장 목표점에 가깝게 도달하고자 조율하는 역할이죠. 조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뭔가를 까먹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프로

덕션 디자인이라고 소개해주신 것도 미술감독과 같은 의미인가요? 사실 미술감독을 작은 의미로는 '아트디렉터'로, 세트 디자이너로 보기도 해요. 넓은 의미로는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역할은 프로덕션 디자인의 개념으로 말씀 드린거고, 공간만 구성하는 아트디렉터 작업을 한 적도 있었죠. 제가 예전에 작업한 <형사>(2005)와 <음란서생>(2006)은 아트디렉터로 역할을 했어요. 영화 안에 들어가는 세트 디자인이라든지 로케이션 공간의 드레싱과 같은 계획을 짜서 실행했죠. 2006년 영화 <음란서생>으로 '청룡영화상(미술상)'을 받고 미술감독으로 입봉한 이후에는 프로덕션 디자이너의 명칭을 달고 전체적인 조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읽고 누군가는 영화 미술감독을 꿈꿀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대학교 때 영화 촬영을 전공했었어요, 카메라로 찍는 것을 좋아하다가 이미 펼쳐진 것들 안에서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것부터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프로덕션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누군가의 제안으로 미술팀을 시작했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어서 많은 노력을 해야했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 쉽지 않으셨겠네요? 맞아요. 미술팀으로 처음 일을 한 영화는 <H>라는 상업 영화였어요. 미술진공자가 아닌데 미술 파트를 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동네 입시미술학원에 가서 그림을 배웠어요. 서양미술사 강의나 대학교 누드크로키 강의 등을 쫓아다니면서



배웠었죠. 근데 배워보고 나서야 그림이 쉽지 않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향하고 프로 그램을 습득했어요. 도면을 치거나 포토샵으로 사진을 다루면서 조수 생활을 했죠. 그런 시간을 거쳐 지금에 올 수 있었어요.

필모그래피를 보면 많은 작업을 하셨는데, 그 안에서 대표작을 꼽으신다면 무엇일까요? <비밀은 없다>(2016)가 아무래도 대표작이죠. 그리고 <제보자>(2014)도 흥행 성적이 좋았어요. **최근작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끝난 <보건교사 안은영>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9개월이나 작업했어요. 보통 영화는 6개월 정도 일을 해요. 촬영을 준비하는데 3달, 촬영하는데 3개월이 소요되죠. 하지만 드라마는 호흡이 긴 편이에요. 길어서 힘들기는 했지만 재미있었어요. 흥행이 좀 안되긴 했지만 영화 <비스트>(2019)는 이성민 선배와 유재명 선배가 나오는 형사물이에요. 이 작품 배경이 인천이었거든요! 제 고향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로케이션 맵을 짜서 감독에게 제안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겐 재미있고 의미있는 작품이었어요. **인천 어디에서 촬영이 진행되나요?** 배다리, 북성포구, 차이나타운, 송도에서도 찍었어요. 그리고 인천대학교 구 캠퍼스에서 오픈스튜디오로 경찰서를 만들어서 찍었죠. **혹시 촬영하면서 생각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배다리 회관 바로 옆에 목욕탕이 있어요. 걸어가다 우연히 외관의 느낌이 좋아서 들어가 본 곳이었는데요 옛날 목욕탕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었어요.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라서 촬영을 진행했었죠. 그 맞은편에는 속옷 창고로 쓰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예전 공간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영화 마지막 장면을 거기서 찍었죠. 그리고 송현시장 옥상에서도 촬영을 했고요.

— **활동지역도 광범위하실 것 같은데,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사무를 보는 지역은 주로 서울이죠. 촬영은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흥미로운 지역은 여전히 인천이어서 인천자료 로케이션을 많이 제안하고 있어요. **인천이 화면에 노출이 많으면 좋죠! 부평에서는 거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인천사람이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해요. 제가 자랐던 지역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감동적으로 생각해요. 부평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점은 자연이에요. 저희 동네에는 원적산이 있어요. 그 안에 숲이 있어서 아이들이 숲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죠. 마음먹으면 45분 거리에 있는 바다로 가서 갯벌에서 놀고 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환경이에요. 동



네에 있는 소규모 책방인 '북극서점'이라든지, 문화사랑방에서 열리는 아이들 눈높이의 공연이라든지, 어린이날 행사와 같은 것들을 아주 잘 챙겨 가고 있어요. 그리고 '부평역사박물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지역을 아는 것이 역사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억나는 전시로는 <신촌>이라는 기획전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신촌은 에스컴시티 옆, 백운역 앞에 있는 거리인데, 예전에 미국인이 쓴 소설에 '캔디 랜드'로 나온다고 해요. 그 시절에는 사창가였는데, 그 주변에 옷을 수선하는 미싱공들도 많고, 상업 활동으로 소비되던 거리였죠. 그 거리를 세트로 구현해 놓았던 전시였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슈를 자연스럽게 풀어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부평 혹은 인천 지역에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활동이나 희망 사항이 있으신가요?** 사실 부평에 너무 재미있는 이슈들이 많은데요. 부평역사박물관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부평의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책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시간, 먼지 되어 날다』라는 책인데 열우물 마을의 역사와 미군 부대의 얘기가 나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친구들과 놀던 철로에서 보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떠돌던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는거예요. 그 자리가 미군부대였고 거기에서 보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 아래에 큰 수로가 있었고 그 끝으로 가면 인천항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드벤처로도 좋은, 장편 상업 영화로 써도 충분한 소재라고 생각해요. 사실, 젊을 때는 부평을 베드타운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영화를 하게 되고 아이들을 키우며 세상을 보는 눈이 풍부해지니 지역이 달리 보였어요. **추천하고 싶은 지역의 예술인이 있나요?** 제가 읽은 『시간, 먼지 되어 날다』라는 책은 인천 시에서 만든 책이라, 따로 살 수가 없었는데 책을 집필한 유동현님께 연락을 취해서 감사히 책을 받았어요. <굿모닝 인천>이라는 월간 잡지도 만든 분인데 그 인연으로 제 인터뷰도 잡지에 실렸었죠. 직접 사진도 찍으시고 인천의 역사를 꿰고 있는 분이셔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지역에 대한 귀한 얘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네에 꼽는 아지트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원적산이요. 숲이 잘 조성이 되어있어서 아이들과 올챙이도 잡고 나무집도 만들었어요. <비밀은 없다>의 이경미 감독님도 영상을 촬영하러 오신적도 있어요. 저의 비밀 공간 같은 곳이에요.

인터뷰 : 고진이 (2019.10)

#미술감독 홍주희#

2019 영화 <비스트> 미술
2015 영화 <비밀은 없다> 미술
2014 영화 <제보자> 프로덕션디자인

<알.쓸.신.예> 작업을 마치며

>> 영화감독 조은성

예술은 문자가 아닌 형태를 빌려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드러운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술을 하는 부평의 문화 예술인에 대한 아카이빙을 시작할 때 어떻게 기준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엇이 예술이냐, 혹은 예술인이냐의 기준보다는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진정한 메시지가 있는가에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어떻게 세상과 만나 실현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귀담아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들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책으로 엮여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와 돌이켜보니 한 분 한 분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진솔한 기억들을 기꺼이 기록으로 허락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 번 전합니다.

>> 소 설 가 조경아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만큼 살면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일이 적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자신의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영감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며 사는 예술인들은 다르지 않을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예술을 하는 사람들조차 정작 개인의 이야기를 할 기회는 없었다는 것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덕분에 누군가를 궁금해 하고, 질문하고, 들어 주는 일은 참 멋진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멋진 작업을 하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또한 부평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도 고된 예술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동료들을 많이 얻은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의지하며 어깨동무했던 저희 팀원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며 그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니다. 조은성 감독님, 고진이 화가님, 유광식 작가님, 황선화 배우님!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독수리 5형제보다 좋은 팀이었다고 기억하겠습니다.

>> 시각예술가 유광식

B연필의 굵은 심이 하얀 종이 위를 건넵니다. 그 흔적은 시간의 배를 타며 물에 젖거나 강풍에 휘청도 하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때를 증언하며 미래로 배달됩니다. 올라가 부평지역의 예술인, 단체, 공간을 만나며 놀라운 경험이 변화무쌍한 날씨만큼이나 잦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라진 문화적 행위를 살피며 개별적으로 자립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종합'과 예술인들의 '개별' 사이를 오가며 굿는 연필 노릇을 잘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상자분들의 흔적은 순수했고, 때로는 도전이었습니다. 나의 경우에 빗대어 간발의 차이를 두고 긴장도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모나지 않았던, 한 둘레의 그룹 '부평의 얼굴들'일 것입니다. 오늘의 얼굴을 응원합니다.

>> 화 가 고진이

올해 처음으로 만난 4명의 예술인들과 이 지역에서 과연 무엇을 하게 될지 처음에는 막연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이지만 낯설기도 한 곳이었기 때문에 설레기도 두렵기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동네를 걷고 모르던 이웃을 알게 되었고 찾아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다 보니 초여름을 지나 이제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감동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물렸을 뿐 우리 동네에 아름다운 얼굴들이 가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해졌고 지역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들의 이야기를 글로 옮겨 책에 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제가 과연 글로 이들의 삶을 잘 표현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최대한 마음을 눌러 담아 듣고 본 것을 글로 적었습니다. 6개월 동안 부평의 예술인들을 만나 관계를 맺어 만든 이 책은 씨앗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씨앗이 흙을 만나 싹을 틔우듯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줄 매개가 되면 좋겠습니다.

>> 배 우 황선화

저는 연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삶을 간접적으로 살아보고, 또 어느 때는 꼭 빠져 살다가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오느라 애를 쓰곤 하죠. 이번 작업을 하며 기억나는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때 강력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를 연기하기 위해 실존인물 인터뷰를 다 들여다보고 지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인간 고통의 본질은 말하고 싶은 욕망'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예술인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깎아내 그것을 재료로 표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만큼의 고통을 안고 있었고, 또 그것은 들어주는 누군가가 필요 했던 것이지요. 말하고 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그것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를 많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들어봐요, 듣는 걸로 충분해요.'



PART 01

중다

조은성

jo7248@gmail.com

고진이

rhwlsdl12@naver.com

유광식

yooaull@hanmail.net

조경아

rose602@empal.com

황선화

ggulsunhwa@gmail.com

PART 02

그리다

심기명

simgo22@naver.com

이진우

streetart@hanmail.net

맹가영

rocher429@naver.com

정나래

grimnarae86@naver.com

공지선

gongjiseon@outlook.com

조규창

2251783@naver.com

이정은

but818@daum.net

PART 03

짓다

김홍기

hongkikim@gmail.com

김미혜

kimmihae40@hanmail.net

이경림

poemsea58@naver.com

양진채

hanajaya@hanmail.net

춤추는달팽이도서관
(관장 최선미)

snailme@naver.com

PART 04

놀다

극단 907(기획 권영)

young-1020@naver.com

필근아 소극장

01090638538@nate.com

예술숲(대표 김면지)

arts4@artsforet.com

연희단 비류(대표 이연호)

leeyeonho465@naver.com

공연창작소 지금(대표 이은선)

5015633@naver.com

석보배

bobe1010@daum.net

서지아

raphun1015@naver.com

여운을 남기며

PART 05

울리다

백선희

na-rarara@daum.net

고진현

rhwlsgus16@naver.com

정유천

rockcamp@naver.com

찬란밴드(보컬 허미란)

hermi0605@gmail.com

안종도(더브릿지컴퍼니)

djyoon@thebridgekr.com

설현철

barseol0731@gmail.com

허진혁(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imstar020@daum.net

PART 06

담다

정예지

yojoyeji@naver.com

손민환

190501@daum.net

김순지

bookgeuk@naver.com

선샤인뮤직(대표 안수민)

vai0725@naver.com

밀레(대표 정광훈)

emi524@daum.net

PART 07

만들다

나무온실(대표 박진희)

sowfactory@gmail.com

김창기

changghi@naver.com

예성호

dptjdgh72@hanmail.net

온리(대표 장예선)

only_works@naver.com

홍주희

bluefilmx@naver.com

알아두면 쓸데많은
신비한 예술인사전 (부평의 얼굴들)

발 행 인 (재)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

편 집 인 (재)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홍준식

총괄기획 (재)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장 최인호

편집기획 (재)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성채은

글·사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파견예술인 - 조은성/고진이/유광식/조경아/황선화
성채은

일러스트 이지현

디 자 인 한디자인

발 행 일 2019년 12월

발 행 처 (재)부평구문화재단
2144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십정동)

전 화 032-500-2000

팩 스 032-506-9021

홈페이지 www.bpcf.or.kr

이 책의 내용은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2019 부평문화상상테이블>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